

#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주민 의식 변화

성기영·정일영·최규빈·최순미·윤보영





#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주민 의식 변화

연구책임자: 성기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정일영 (IBK기업은행 북한경제연구센터 연구위원)

최규빈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최순미 (아주대학교 아주통일연구소 연구교수)

윤보영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객원연구원)

연구 지원: 탁민지 (통일연구원 연구원)



##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주민 의식 변화

KINU 연구총서 18-03

---

발행일	2018년 12월 15일
저자	성기영, 정일영, 최규빈, 최순미, 윤보영
발행인	김연철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통일정책연구실
등록	제2-02361호 (97.4.23)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02-2023-8000 (FAX) 02-2023-8296
홈페이지	<a href="http://www.kinu.or.kr">http://www.kinu.or.kr</a>
기획·디자인	(주)계문사(02-725-5216)
인쇄처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02-2269-9917)
I S B N	978-89-8479-936-3 93340
가격	10,500원

---

© 통일연구원, 2018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주민 의식 변화

※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차례

요 약 .....	9
I. 서론 .....	17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9
2. 연구 내용 .....	24
II. 북한 변화와 주민의식 .....	27
1. 북한주민 의식 변화의 의미 .....	29
2. 북한주민 의식 변화 추이 .....	43
3. 소결 .....	57
III. 북한주민 의식 변화와 외부요인 .....	61
1. 외부요인 변화의 배경: 국제관계 및 남북관계 .....	63
2. 남북교류협력과 정보 유통에 따른 북한의 변화 .....	82
3. 소결 .....	105

<b>IV. 남북교류와 북한주민 의식 변화:</b>	
<b>접촉의 경험을 중심으로</b> .....	109
1. 접촉지대 내 북한주민 의식 변화의 특성 .....	114
2. 요인별 북한주민 의식 변화 .....	134
3. 소결 .....	145
<b>V. 남북관계 변화와 북한주민 의식 변화:</b>	
<b>탈북민 사례연구</b> .....	149
1. 북한 내 주민의식 변화의 특성 .....	158
2. 요인별 북한주민 의식 변화 .....	189
3. 소결 .....	205
<b>VI. 결론</b> .....	209
<b>참고문헌</b> .....	220
<b>최근 발간자료 안내</b> .....	235

## 표 차례

---

〈표 II-1〉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북한사회의 변화 .....	44
〈표 III-1〉 1990년대 이후 한국의 대북관여 및 교류협력의 변화 .....	69
〈표 III-2〉 연도별 금강산 관광객 추이 .....	84
〈표 III-3〉 개성공단 근로자와 생산액 추이, 2005~2015 .....	87
〈표 III-4〉 시기별 대북 인도적 지원 .....	94
〈표 III-5〉 대북지원 효용성에 대한 북한주민의 인식 .....	95
〈표 IV-1〉 심층면접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113
〈표 V-1〉 탈북민 심층면접 대상자의 특성과 경험의 유형 .....	154

## 그림 차례

〈그림 Ⅲ-1〉 상업적 거래 유형별 반출입 추이, 1995~2017 .....	84
〈그림 Ⅲ-2〉 개성공단 교역 및 비중 추이, 2004~2016 .....	88
〈그림 Ⅲ-3〉 사회문화 분야 방북인원 추이 .....	90
〈그림 Ⅲ-4〉 대북 인도적 지원 추이 .....	93
〈그림 Ⅲ-5〉 정보통신기기 이용 실태 .....	99



##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관계의 발전 과정에서 진행되어왔던 교류협력 사업과 남한 정보의 북한 내 유통이 북한주민들의 의식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검증해보는 것이다. 북한사회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구조나 행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시되어왔던 주민의식에 초점을 맞춰 연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북한주민 의식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고 변화하는가, 주민의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은 어떻게 구분 지을 수 있는가, 주민의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들 중 교류협력과 정보 유입 및 유통이 가져오는 각각의 효과와 한계는 무엇인가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1990년대 중반 경제위기 이후 북한주민들의 의식 변화 추이를 시기적으로 구분하여 관찰해보고 거주지역 등 공간에 따른 차이, 계층, 성별, 세대 등 집단 내 구성원들의 차이에 따라 의식 변화가 어떻게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도 추적해 보았다. 이를 위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종사했던 남측 책임자와 실무자 27명, 그리고 남한에 거주하는 탈북민 중 본 연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32명에 대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 및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와 접경지역을 통한 남한 정보 유입을 통해 북한주민들은 무엇보다도 자본주의적 사고와 행동방식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성공단 근로자로 일했거나 장마당에서 장사 경험이 있는 북한주민들은 이윤과 인센티브 시스템을 체험하면서 자본주의 작동 원리를 체득할 수 있었다.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고품질의 제품, 또는 근로자용

간식 등이 시장으로 흘러나와 거래되면서 일반주민들도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를 이해하고 남북경협 효과 등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게 되는 현상도 목격되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하면서 과거에 접하지 못했던 지식과 기술 습득의 기회를 갖게 된 북한주민들은 매우 적극적인 학습의욕을 보였다. 교류협력사업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북한주민은 소수에 불과하고 북한에서 남한의 영상물을 접했던 주민들은 훨씬 광범위하게 퍼져있지만 두 그룹 모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남한을 경험하면서 대남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도 확인되었다.

특히 북한에 유통되었던 남한의 드라마와 영화는 북한주민들의 일상 의식 변화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작품 속 주인공들의 외모와 행동을 모방하거나 차용하게 함으로써 행동의 변화를 자극하기도 했다. USB 등 전자 저장장치를 통해 유통되는 영상물에 비해 현장 검열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남한의 대중가요와 춤 등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더욱 깊이 스며들어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모방과 차용은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과거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감정을 발견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했다.

북한주민들은 남북교류와 외부정보 접촉을 통해 일련의 의식 변화를 경험하면서 남측 사업담당자와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평소 의도적으로 통제해왔던 감사와 미안함 같은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외부정보를 통해 남북한의 경제적 현실을 간접경험하면서 북한 당국에 대한 실망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남한으로부터 유입되는 뼈라를 통해 노골적인 월남 권유 등을 접하게 되면 충격과 두려움, 번민 등 복합적인 감정에 휩싸인다.

남북관계의 발전이라는 환경 속에서 남한으로부터 유입되는 정보에 북한주민 의식이 변화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들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적 공간이나 성별, 계층, 세대 등 다양한 하위변수에 따라 의식 변화의 수준과 깊이가 달라지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네 가지 하위 변수 중에는 세대나 성별에 따른 변수가 공간이나 계층 구분이라는 변수보다 북한주민 의식 변화에 더욱 두드러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세대 간 격차에 따라 남한 정보를 수용하는 태도나 인식 변화의 수준에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기성세대는 과거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대한 자부심과 향수에 인식의 바탕을 두고 있으나 식량난 이후 출생하고 성장한 세대의 경우 가장 큰 관심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로 집약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남한으로부터의 정보를 해석하는 태도의 차이로도 이어진다. 예를 들어 90년대 식량난 이후 시장에서의 생존 방식을 체험해 온 세대와 이러한 부모를 보면서 성장한 세대는 가정에서 몰래 남한 영화를 함께 시청할 정도로 외부 정보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주기도 한다.

성별 측면에서 보면 남자보다는 여자가 외부정보의 영향에 민감할 뿐 아니라 이를 수용하여 자신의 행동양식에 적응시켜 보고자 하는 욕구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직장 및 군대, 소속기관이나 조직이 요구하는 의무 이행 책임을 짊어진 남성보다는 식량난 속에서 시장을 통해 가족의 생존을 지켜야 했던 경험을 가진 여성들이 외부정보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온 것이다.

계층별로 보면 엘리트 계층에서부터 외부정보를 접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복측 상대방 또한 대부분 고학력의 엘리트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이들은 대남 접촉 과정에서의 부적절 행위에 대한 검열과 통제로부터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거주지역에 따른 공간 변수가 미치는 영향 중 두드러지는 특징은 북

중 접경지역 주민들과 남북 접경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발견된다. 북중 접경지역 주민들이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상인 등을 통해 은밀한 방식으로 남한의 드라마와 영화 등 영상물을 접하고 있다면 남북 접경지역 주민들은 남한에서 송출되는 TV프로그램이나 빠라 등의 직접적 영향에 노출되어 있다. 남북 간 접촉이 중국 등 제3국에서 이뤄지는 경우 북한 내에서 이뤄지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호혜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기도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분석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는 존재한다. 1990년대 중반 경제위기 이후 북한주민들의 의식이 변화하게 된 요인은 크게 내부요인과 외부요인, 그리고 이들 두 요인이 증첩된 결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외부 관찰자와 탈북민의 시점을 통해 포착한 외부요인, 그 중에서도 남한 쪽 요인에만 분석의 초점을 맞추었다. 물론 남북관계가 북한주민들의 의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남북관계가 정체되어 있던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북중관계가 더욱 활성화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요인들 중 남한에서 제공되는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이유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급진전을 보이고 있는 남북관계의 전개방향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시사점을 찾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던 북한주민 의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외부요인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도 더욱 확대, 강화되어갈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 대북 제재의 일부가 완화되거나 해제된다면 남북경협의 전면 재개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개연성이 점쳐진다. 때맞춰 북한이 경제건설 집중노선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주민들이 일상영역에서 경험하는 국가의 통제가 약화된다면 정치적으로 허용된 공적 선호(public preference)가 국가 통제와 충돌해온 사적 선호(private preference)의 일부를 흡수할 수도 있다.

문화예술, 스포츠 등 사회문화교류 분야에서도 커다란 진전이 예상된다

다. 예술단 교환방문 등은 이미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친선경기나 단일팀 구성 수준을 넘어 2032년 올림픽 공동개최 추진 등 과거의 협력수준에 비해 한 차원 높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남북 간 교류는 일상화하고 협력사업은 다변화할 수 있도록 정책의 초점을 맞춰나가야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남북관계의 발전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교류협력사업에 민간의 참여가 높은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젊은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폭도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이뤄지게 되면 과거 남한 측 대표단의 방북 위주 협력사업에서 벗어나 각 계각층 인사들의 상호 방문을 통한 쌍방향 교류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작업에 신속하게 착수해야 한다. 북한과의 인적 왕래와 접촉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인식도 개폐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듯이 경제협력을 포함하여 남북한 상호 간 교류와 접촉을 동반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북한주민들의 대남 인식을 본질적으로 바꿔놓는 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남북한주민들은 상호 간 적대적 인식을 우호적 인식으로 바꾸어나갈 수 있다.

**주제어:** 남북교류협력사업, 북한 내 정보 유입, 북한주민 의식 변화

# Abstract

##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Change of Perception of North Korean Residents

*Sung, Ki-Young et al.*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e.g.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inter-Korean joint projects (e.g. social and cultural exchange and humanitarian assistance) generally provide meaningful tools to observe their implications on North Korean residents' perception. Moreover, the influx of information from the outside, including South Korean soap operas and movies, is evaluat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shaping the perception of North Korean people.

An in-depth interview had been conducted on 27 South Korean officials who were involved in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and 32 North Korean defectors who had settled in South Korea. The interview found that inter-Korean exchange promoted at the government and non-government level and the influx of information coming from South Korea, among others, have offered an opportunity to expose North Koreans to capitalist mindset and behavior.

In fact, North Koreans who have engaged in inter-Korean exchange projects have been very active in obtaining new knowledge and skills. Their views on South Korea have also been positively changed. In addition, South Korea's pop culture, distributed in North Korea, has presented an opportunity for North Koreans to imitate the looks and patterns of behavior of the main characters of South Korean movies and dramas. South Korea's pop songs and dances are evaluated to have more deeply permeated through everyday life of North Koreans when compared to the number of videos distributed in North Korea by using data storage device, such as USB.

A change in the perception of North Korean residents, caused by exchange and cooperation and the influx of outside information, unfolds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members of society, such as when and where they are exposed to such influence as well as their social class and gender. An in-depth interview result confirms that relatively younger generations than older ones and women rather than men are more likely to be responsive and sensitive to a change of perception made through contacts with the outside world. The influence of when and where they encountered such change was evaluated to be comparatively less dominant. However, border areas turned out to be more sensitively responsive to a change made through contacts with the outside world compared to an inland.

Such results suggest important implications in designing a future policy on North Korea at a time when we are at a critical turning point of advancing inter-Korean relations since the announcement of the Panmunjeom Declaration on April 27 and the Pyeongyang Joint Declaration of September 2018. The task that should be primarily dealt with regarding the advanc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is turning hostile perception that has been existing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s into friendly one by discovering and developing more efficient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that will enable expanding the areas of contacts to the maximum extent between the people of the two Koreas.

**Keywords:**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Information influx,  
Change of perception of North Korean residents



I

서론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1. 연구 배경 및 목적

2018년 들어 남북관계의 개선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월 27일 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에 합의하면서 남북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선을 예고한 바 있다. 남북한 지도자는 5월 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의 정상회담으로 비핵화를 위한 북미정상회담의 계기를 마련했고 9월 19일 평양정상회담을 열어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에도 합의했다.

남북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핵심 이슈는 북핵문제 해결 방향을 놓고 남북한 정상이 어떤 합의를 내놓을 것인지로 모아졌다. 청와대 역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핵심 의제가 비핵화 논의에 집중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바 있다.<sup>1)</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보면 비핵화의 원칙을 확인하는 동시에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한 구체적 합의들이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4월 27일 판문점선언의 총 13개항 중 11개항이, 그리고 평양공동선언의 총 15개항 중 13개항이 남북관계 차원에서 논의하고 실천해야 할 합의사항들로 채워졌다. 향후 남북관계의 진행과정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한 인적 접촉과 왕래, 교류와 협력사업 등 대북 관여정책(engagement policy)이 추진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고하는 것이다.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대북정책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이후 유엔 제재 위주의 봉쇄정책에서 관여정책으로의 전환을 시사하고 있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동창리 엔진 시험장 및 미사일 발사대 폐기 합의 등을 통해 비핵화 관련 조치를

1) “靑,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서 비핵화 논의 집중 불변,” 『연합뉴스』, 2018.8.30., <<http://www.yna.co.kr/view/AKR20180830073600001?input=1195m>> (검색일: 2018.9.14.).

취하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 행보에 나서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협상, 외교관계 개선과 경제적 투자 기회 제공 등 관여정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관여정책이라 함은 외교, 군사,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상국가와의 교류를 광범위하게 증진시킴으로써 해당국가의 정치적 행위를 긍정적으로 유인하는 정책을 말한다.<sup>2)</sup> 흔히 관여(engagement)와 대립되는 정책을 봉쇄(containment), 고립(isolation), 유화 appeasement) 등으로 표현하는 것에 비춰볼 때 2006년 최초의 북핵실험 이후 한미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취해왔던 경제 제재 위주의 대북정책이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여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관여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이슈 영역을 유지하는 것은 협상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정책의 효과에 대한 기대수준을 높인다는 점에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sup>3)</sup> 실제로 2018년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 군사적 신뢰구축, 경제협력, 인도적 문제 해결, 사회문화 및 체육교류 등 남북관계를 구성하는 전 분야에 걸쳐 대북 관여정책 기대효과가 높아지고 있다.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남북관계 개선 과정은 자연스럽게 북한주민들과의 접촉면 확대를 예고하고 있다. 평양정상회담 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이 15만 명의 평양시민들을 대상으로 연설을 하고 대중식당

---

2) 관여정책의 다양한 정의에 대해서는 전재성, “관여(engagement)정책의 국제정치이론적 기반과 한국의 대북정책,” 『국제정치논총』, 제43권 1호 (2003), pp. 233~235를 참고할 것.

3) Richard N. Haass and O’Sullivan L. Meghan, “Terms of Engagement: Alternatives to Punitive Policies,” *Survival*, vol. 42, no. 2 (Summer 2000), pp. 124~125.

을 찾아 평양시민들과 만난 일 또한 과거 정상회담에서 볼 수 없었던 주민들과의 직접 접촉의 기회로 볼 수 있다.<sup>4)</sup>

1990년대 초, 이른바 ‘모기장식 개방’을 통해 개혁개방에 따른 여파를 체제위협 요인으로 인식했던 북한으로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것이다. 또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 진입과 동시에 남북교류협력의 전면화라는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남한으로서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된 셈이다. 특히 남북 간의 접촉과 왕래, 교류와 협력의 증대로 북한주민들과의 접촉면이 증대한다는 사실은 남북관계가 북한주민들의 의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증대하리라는 사실을 암시한다.

과거 남북관계 또는 북한연구 분야에서 북한주민들의 의식 형성과 변화의 문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 북한 체제의 정형화된 속성, 즉 폐쇄적인 1인 독재체제, 극단적 자력갱생 논리에 기초한 자립경제의 추구, 언론자유와 부재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북한 사회 내부, 특히 주민들 개개인의 문제들은 분석 영역에서 경시되어온 것이다.

사회과학의 일반적 맥락에서 본다면 분석대상을 주로 구조와 행위와 의식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 구조의 변화가 개인의 생활사적 맥락에서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의식의 변화를 수반하기도 한다. 반대로 의식의 변화가 행위의 변화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인식과 재인식, 성찰, 적응, 자각, 저항과 같은 다양한 흐름으로 나타나면서 행위 변화와 구조적 변동을 촉진하기도 한다.

분단 이후 북한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대상 역시 구조적 변동에 크게 초점이 맞춰져 왔다. 북한사회를 규정하는 구조적

---

4) “문대통령, 15만 北주민에 연설 ‘적대 청산하고 평화의 큰결음,’” 『연합뉴스』, 2018.9.1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9/19/0200000000AKR20180919197751001.HTML?input=1179m>> (검색일: 2018.9.20.).

현실, 즉 이데올로기적 통제나 사회적 규범 일탈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과 같은 요인들 때문에 이러한 경향은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을 것이다.

북한주민들의 의식 변화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최악의 식량난으로 인해 탈북자와 난민이 속출하면서부터였다고 할 수 있다. 식량난으로 인한 배급체계 붕괴, 시장의 출현 등 내부적 변화와 사회적 통제의 약화에 편승한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 시도는 북한사회에 만연한 구조적 통제 내에서도 주민들의 의식에 일정한 영향을 미쳐온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인들이 어떠한 변수들을 통해 어떠한 방향으로 주민의식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분석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되고 있는 완전한 비핵화 프로세스와 함께 남북관계의 재정립을 통해 북한이 안정적이고 점진적인 개혁개방 모델로 나아간다고 할 때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주민 의식 변화는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도 관심의 대상의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들은 적지 않다. 북한주민 의식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북한주민 의식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고 변화하는가, 주민의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은 어떻게 구분 지을 수 있는가, 주민의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들 중 교류협력과 정보 유입 또는 유통의 효과와 한계는 무엇인가 등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 국면에서 북한주민 의식 변화에 주목하는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과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시대에 맞는 새로운 대북정책 수립의

고려요인으로서 북한주민 의식은 외부세계에 대한 태도나 대남 인식과 같은 범주에 국한되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주민의식 변화 역시 ‘친남한화’ 담론과 같은 일방적 개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시장화와 인센티브 시스템에 대한 진전된 인식, 사회적 다양성과 이해관계의 다원화에 대한 수용, 외부정보에 대한 개방적 태도, 국가 주도의 사회구조에 대한 비판적 이해 등 경직된 사회구조에서 개방적 사회구조를 지향하는 요소들이 모두 포함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주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남북접촉 및 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함으로써 정보의 피동적 수용자가 아닌 능동적 참여자로서 활동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외부정보의 수용이 개별적 차원을 넘어 공유와 확산 과정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 본 연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물론 남북관계의 동화와 북한주민의 의식 변화라는 두 가지 요소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놓고 전자가 후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은 현재 남북관계의 현실에서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다. 북한주민들에 대한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데다 북한 내 정보 유통의 한계로 인하여 남북관계 전반의 발전, 정체, 또는 후퇴가 주민들에게 직접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어디까지인지도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북관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들 중 경제협력사업과 사회문화교류사업, 인도적 지원사업에 국한하여 이들 사업들이 북한주민들의 의식을 어떻게 변화시켜왔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 심층면접을 통해 남한으로부터 유입되는 각종 정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북한주민들이 갖게 되는 의식 변화의 흐름을 추적해 볼 것이다.

북한주민의 의식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외부 요인들의 형

성은 남북관계의 변화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본 연구와 같이 남북관계라는 채널을 통해 이를 들여다보는 것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으로 인해 조성된 남북관계의 대전환기를 맞아 중장기적 관점에서 향후 대북정책을 설계하는 데 시사점을 도출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2. 연구 내용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북한주민 의식 형성 및 변화를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선행연구의 경험을 토대로 본 연구를 통해 북한주민 의식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관점을 제시한다. 이어서 1990년대 중반 이후 20여 년간 관찰되어 온 북한주민의 의식 변화 추이를 개괄하기 위해 북한사회의 변화를 ① 충격기(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② 조정기(2000년대 초반~2010년대 초반) ③ 전환기(2010년대 초반~현재)의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본다. 또한 주민의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도출하기 위해 공간적 상이성, 계층, 성별, 세대 등의 요소와 의식 변화의 상관관계를 제시한다.

III장에서는 북한주민 의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의 역할, 그 중에서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이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먼저 국제환경이라는 측면과 남북관계라는 측면에서 외부요인이 형성된 배경을 살펴보고 공식적 교류협력과 비공식적 채널을 이용한 정보 유입 등 외부변수가 주민의식 변화에 영향을 미쳐온 과정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먼저 II장의 시기 구분에 근거하여 해당 시기를 전후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를 ‘소극적 대북관여(1990년대 중

반~2000년대 초반)', '적극적 대북관여→조건부 대북관여(2000년대 초반~2010년대 초반)', 그리고 '제한적 대북관여(2010년대 초반~현재)'의 형태로 분류한다. 교류협력사업은 경제협력과 사회문화교류, 그리고 인도적 지원으로 나누어 해당 시기별 추이를 바탕으로 북한주민 의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 및 한계를 분석한다. III장의 후반부에서는 중국 및 한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정보와 문화콘텐츠의 북한 내 유통 실태와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이러한 요인이 주민의식에 미친 영향을 추론해본다.

IV장과 V장에서는 II장과 III장에서 살펴본 북한주민 의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과 변수들을 중심으로 남북교류협력에 종사했던 관계자 및 탈북민 심층면접을 통해 이들 요인과 변수들의 실제적 적용과정을 추적한다. 특히 IV~V장에서는 II장에서 제시했던 시기별 특성에 따른 의식 변화 여부와 과정, 공간과 성별, 세대 등 구체적 변수를 고려한 주민의식 변화 여부와 추이를 함께 관찰한다.

먼저 IV장에서는 남북 간에 이뤄진 다양한 교류와 협력의 경험들을 통해 북한주민 의식 변화의 실제적 양상을 도출한다. 이 장에서는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경협, 역사·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 인도적 지원 등에 실제로 참여했던 한국 측 관계자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이들 외부요인의 영향을 파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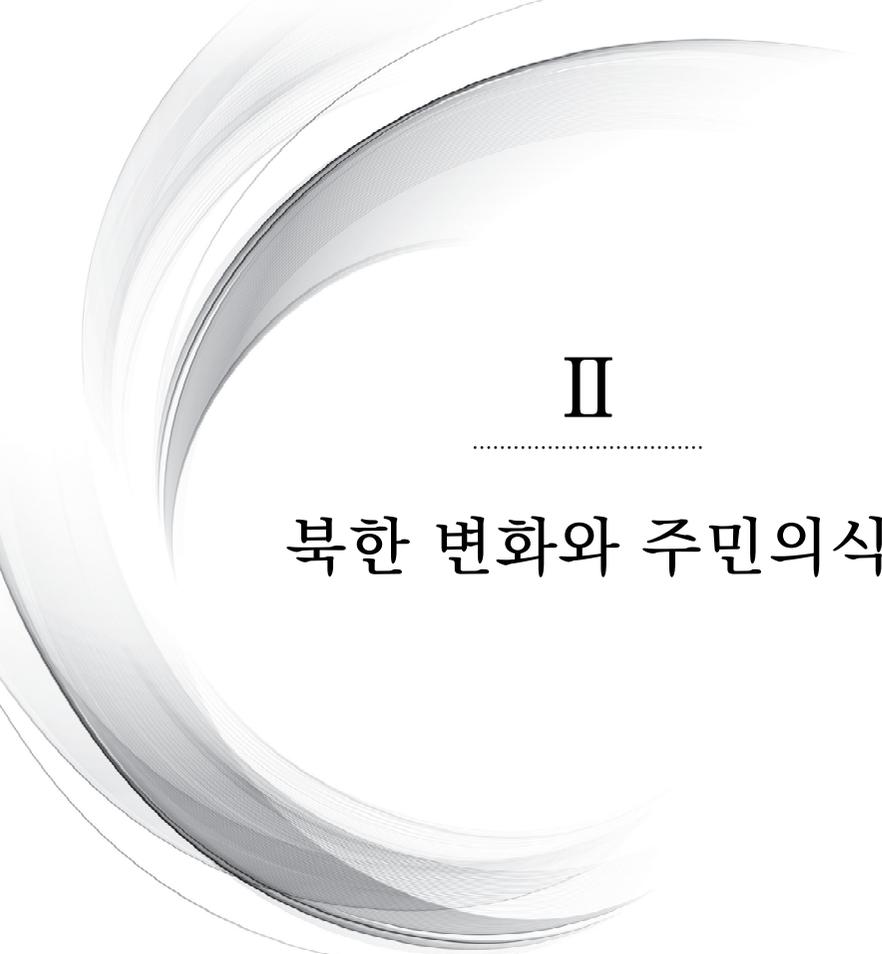
V장에서는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면접을 통해 이들이 북한에 거주할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외부요인이 주민의식 변화에 미치는 경험을 파악한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탈북민 심층면접 결과를 최대한 직접 인용하여 이들이 진술하는 의식 변화의 방향과 추이를 기술한다.

IV장의 분석이 남북교류협력사업과 북한주민의 의식 변화가 보여주는 상관관계를 공급자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평가해본 시도에 해

당한다면 V장의 내용은 남북교류협력뿐만 아니라 외부정보의 유입 효과를 포함하여 이러한 상관관계를 수용자 측면에서 검증해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공급자 측면과 수용자 측면을 함께 고려해서 주민의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단, IV장과 V장 집필을 위해 심층면접에 응한 대상자들은 정치적 민감성과 향후 교류협력사업 재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모두 익명으로 기술하였다. IV장에서는 대상자가 참여했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밝히고 ‘개성공단/교류협력/대북지원 사례○’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V장에서는 북한 거주지역과 연령대 등 최소한의 면담자 정보를 밝히고 ‘탈북민 사례○’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통일하였다. 면담 일시와 장소는 각주에서 명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에 해당하는 VI장에서는 전체 연구의 요약을 바탕으로 연구 결과가 향후 남북관계 또는 대북정책에 미치는 함의를 살펴본다.

본 연구는 북한 정치 및 사회, 남북관계, 통일정책 등을 전문 분야로 연구해온 5인의 연구자에 의해 공동 집필되었다. 연구책임자 성기영은 연구의 설계와 기획, 집필내용의 총괄 조정을 담당하는 한편 서론과 결론을 집필하였다. 정일영은 II장 ‘북한 변화와 주민의식’을 집필하고 최규빈은 III장 ‘북한주민 의식 변화와 외부요인’을 작성하였다. 최순미와 윤보영은 각각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해온 남한 측 관계자와 탈북민 집단에 대한 심층면접 작업을 바탕으로 IV장과 V장에서 북한주민의 의식 변화를 추적하였다. 5명의 연구자는 10여 차례의 토론을 거쳐 전체 연구의 내용과 집필 방향을 조율하고 공동연구보고서로서의 체계를 잡기 위해 노력하였다. 통일연구원 탁민지 연구원은 본 연구과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종 회의 개최와 보고서 작성 등을 지원했다.



## II

---

# 북한 변화와 주민의식



# 1. 북한주민 의식 변화의 의미

## 가. 북한주민의 의식: 형성과 변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은 일정한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의미 관점을 형성하게 되며 사회적 환경과 경험, 타자와의 교류, 그리고 사회에 대한 인식의 내적, 외적 충돌과 성찰을 통해 이러한 관점을 전환하게 된다.<sup>5)</sup> 북한주민들 또한 그들이 삶을 영유하는 일정한 공간에서 사회화의 과정을 거쳐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그리고 국제관계를 인지하고 해석하는 관점, 즉 주민의식을 형성하게 된다.

여기서 주민의식은 보편적 인간성이나 개인적인 성격이 아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집단적 의식, 즉 사회문화적으로 전승되고 학습되는 다양한 가치관과 태도의 영역을 의미한다.<sup>6)</sup> 다만 주민의식의 일반적 정향 이면에는 구성원 개인이 처해 있는 구조적 환경에 따라 다양한 수위와 형태로 나타나는 차별성 또한 존재한다.

북한에서 개인은 주체사상의 인식론과 세계관을 가진 ‘주체의 공산주의 인간’, 즉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여기는 참된 인간’으로 구조되어 왔다.<sup>7)</sup> 북한에서 사회구성원에 대한 ‘개조’는 전 일생에 걸쳐 국가에 의해 진행된다. 북한에서는 교육제도와 조직생활, 일상생활에서의 감시와 균

---

5) Jack Mezirow, "Learning to think like an adult: Core concepts of transformation theory," In *Learning as Transformation: Critical Perspectives on a Theory in Progress*, ed. Jack Mezirow (San Francisco: Jossey-Bass, 2000), pp. 5~16.

6) 이재열 외, 『사회적의식에 관한 사회조사 연구』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pp. 4~5.

7) 사회과학출판사 편, 『인간개조리론』, 주체사상총서 제6권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p. 102~138.

중동원 등을 통해 당이 개인의 사회화 과정을 철저하게 통제해 왔다.<sup>8)</sup>

보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사회화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북한의 독특한 사회통제체제 속에서 작동된다. 사회통제체제는 사회규범과 구성원의 동의구조, 그리고 일탈에 대한 재사회화 기제를 통해 작동한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북한은 광범위한 충성계층을 중심으로 수직적인 동의구조와 수평적으로 단절된 통제체제를 구축하였다.<sup>9)</sup> 한반도에서 휴전체제가 지속됨에 따라 전시통제의 성격이 지속되었던 점 또한 개인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정당화하고 강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같이 강한 사회통제체제 하에서 북한주민은 사회정치적 생명체로서 수령의 절대성과 집단주의에 순응할 것을 요구받게 된다. 북한에서 개인의 자유는 최소화되며 개인은 다만 집단으로서의 인민으로 호명되었다.<sup>10)</sup> 혁명의 주체로서 인민은 수령의 영도 속에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하위 개체로 존재할 뿐이다.<sup>11)</sup> 그렇다면 현실은 어떠한가? 북한주민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하위 개체로 살아가고 있는가?

북한에서 개인은 촘촘하게 구성된 사회조직의 통제 속에 일상생활을 영위하게 된다. 개인은 성장단계에 따라 국가의 지도체계 속에 포섭된 각각의 단체에 소속되어 조직생활을 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원자화된다. 성인이 된 북한주민은 생산단위의 작업반과 사

---

8)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사회구조와 사회의식의 이중성 연구』 (서울: 나남출판, 1995), pp. 196~199.

9) 정일영, “한국전쟁기 북한의 사회통제체제에 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19권 2호 (2015) 참조.

10) 조정아 외,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서울: 통일연구원, 2010), pp. 81~84.

11)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서대숙 편, 『북한문헌연구』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4), p. 137.

회단체, 인민반을 통해 이중, 삼중의 통제에 놓이게 된다. 가족 또한 국가가 요구하는 사회규범을 체득하고 일탈을 규제함으로써 가족 구성원을 재사회화하는 ‘사회의 세포’로서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sup>12)</sup> 결국 개인은 국가가 요구하는 사회규범으로부터 일탈행위를 스스로 통제하는 ‘자기통제의 행위규범’을 내재화하게 된다.

다만 북한에서 주민의 정체성과 사회의식이 국가의 철저한 통제 속에 ‘형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조건, 즉 개인의 토대와 성분, 성과 연령에 따라 사회를 바라보는 의식의 차이 또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강한 국가의 통제 속에 집단주의 규범이 지배하는 사회체제 속에서 개인의 자유는 억압되어 왔으나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사적 선호는 여전히 잠재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서술한 바와 같이 북한에서 개인은 국가의 철저한 통제 속에 구속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가의 억압성 또한 일정한 작동 메커니즘을 동반한다. 북한이 1990년대까지 지속해온 배급체제가 그 하나이다. 북한에서 배급의 중단은 불가피하게 국가의 통제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국가의 통제가 약화된다면 정치적으로 허용된 공적 선호(public preference)가 이완되고 사적 선호(private preference)가 표출될 가능성 또한 상존한다.<sup>13)</sup> 1990년대 중반 북한이 직면한 경제위기는 이와 같은 국가의 통제체제를 이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과적으로 북한에서 국가의 수직적인 통제와 수평적인 단절로 구축된 통제기제는 1990년대 경제위기의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완 내지 붕괴되었다. 그 결과는 단절되어 있던 공간과의 접촉을 의미한다. 북한 내부의 단절된 공간뿐만 아니라 북한 외부와의 접촉

12) 안찬일 외, 『(10명의 북한 출신 엘리트들이 보는) 10년 후의 북한』 (서울: 인간사랑, 2006), p. 441.

13)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사회구조와 사회의식의 이중성 연구』, pp. 222~223.

이 확산되었으며 새로운 접촉에 따른 이질적인 요소와의 대면은 북한주민의 의식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러한 외부와의 접촉은 이질, 혹은 동질적인 문화의 전파(diffusion)라는 시각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대부분 그 사회 안에서 발생하지만 다른 사회들로부터 문화적인 요소들이 전해지기도 한다. 이와 같은 문화의 전파는 이웃하고 있는 두 공동체 간에 직접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제3자에 의해 간접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sup>14)</sup>

문화의 전파에 따라 인간이 사고하는 방식과 형태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각 문화마다 세상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사람은 자신이 속한 문화권에서 세상을 이해하는 내용과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고하기 때문이다.<sup>15)</sup> 심지어 같은 문화권 내에서 한 부모에게서 자란 일란성 쌍둥이조차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기도 한다.<sup>16)</sup>

외부 문화와의 접촉은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게 된다. 최근 북한주민들이 외부와 접촉하는 행태들은 먼저, 중국 등 인접국가에 일시적으로 방문하여 직접적으로 접촉하거나 외부의 정보 또는 문화콘텐츠를 인쇄물이나 다양한 형태의 저장장치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남북관계가 진전되던 시기에 있었던 교류와 협력사업 또한 다른 형태로 진행되는 접촉이라 할 수 있다. 남북의 공식적인 접촉, 예를 들면 정상회담 등 고위급 회담뿐만 아니라 개성공단과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접촉은 동질과 이질적인 요소가 중첩되어 북한주민의 의식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

14) 한상복 외, 『문화인류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pp. 474~479.

15) 리처드 니스벳 지음, 최인철 옮김, 『생각의 지도: 동양과 서양, 세상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 (파주: 김영사, 2004), p. 17.

16) 주디스 리치 해리스 지음, 광미경 옮김, 『개성의 탄생: 왜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유일한 나인가』 (서울: 동녘 사이언스, 2006), pp. 11~12.

그렇다면 이와 같은 외부로부터의 접촉을 통해 북한주민의 의식은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가? 북한주민 의식의 변화는 ‘관점전환의 학습’이란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관점전환 학습의 과정은 크게 세 단계, 즉 이질적인 경험을 통해 의식이 생성되고, 이러한 경험의 반복이 의식의 전환으로 이어지는 단계, 마지막으로 새로운 관점이 형성되어 행동으로 실현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sup>17)</sup>

여기서 의미관점의 전환은 특정한 사건을 경험하거나 성찰을 통해 한 순간에 일어나기보다는 누적적이고 지속적인 경험을 통해 나타나며, 이러한 순환이 반복하여 표출되기도 한다.<sup>18)</sup> 예를 들어, 중국을 방문하는 북한주민이 한국의 발전상을 지속적으로 접하게 되면 남한에 대해 국가가 부여한 ‘가난한 국가’라는 그동안의 선전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다.<sup>19)</sup> 그렇다면 북한사회의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주민의식의 변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나?

## 나. 북한사회의 변화와 주민의식에 대한 기존의 논의

북한사회의 변화와, 그 원인과 결과로서 주민의식의 변화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중반 북한을 극한의 위기로 몰아넣은 경제난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주로 탈북자 인터뷰를 활용한 연구에 의존했으나 최근에는 북한주민 의식의 변화를 이해하는 다양한 시각과 방법론이 활용되며 깊이 있는 분석이 가능해졌다.

---

17) Jack Mezirow, *Transformative Dimensions of Adult Learning* (San Francisco: Jossey-Bass, 1991), pp. 168~173.

18) 조정아 외,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p. 57.

19) 강동완·박정란, 『사람과 사람: 김정은 시대 ‘북조선 인민’을 만나다』 (부산: 너나드리, 2015), pp. 175~176.

첫 번째로, 북한의 주민의식과 그 변화에 관한 연구로는 서재진(1995),<sup>20)</sup> 조정아 외(2010),<sup>21)</sup> 박순성·홍민(2010),<sup>22)</sup> 이우영(2012),<sup>23)</sup> 최대석·장인숙(2015),<sup>24)</sup> 강동완(2014, 2015)<sup>25)</sup> 등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북한사회의 변화는 1990년대 중반 경제위기로부터 표출되었다. 서재진은 1990년대 중반의 북한사회의 변화를 구조와 의식의 이중성이란 시각으로 분석하였다.<sup>26)</sup> 그는 정치적 태도에서 우상숭배와 일상생활형의 저항이 부딪히고 있으며 주민들의 인성 또한 신민형 인성과 개인주의적 인성이 충돌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외부의 억압이 약화되면 북한주민의 사적 선호(private preference)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북한주민의 의식 변화라는 측면에서 조정아 외는 정체성과 의식의 전환이란 관점에서 북한주민과 사회의 변화를 분석하였다.<sup>27)</sup> 조정아 외는 북한주민들의 생애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관점전환 학습의 촉진요인으로 사회구조적 불평등, 외부세계와의 접촉, 그리고 대안으로서의 남한사회 존재를 제시하였다.

이우영은 김정일 사망 이후 등장한 김정은 체제의 사회 변화 가능

20)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사회구조와 사회의식의 이중성 연구』.

21) 조정아 외,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22) 박순성·홍민 공편, 『북한의 일상생활세계』 (파주: 한울, 2010).

23) 이우영, “김정은 체제 북한 사회의 과제와 변화 전망,”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2012).

24) 최대석·장인숙 공편, 『북한의 시장화와 정치사회 균열』 (서울: 선인, 2015).

25) 강동완, “북한으로의 외래문화 유입 현황과 실태: 제3국에서의 북한주민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제60집 (2014); 강동완, “북한의 한류현상과 사회변화,” 『北韓』, 제512호 (2014).

26)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사회구조와 사회의식의 이중성 연구』 참조.

27) 조정아 외,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참조.

성을 분석하였다.<sup>28)</sup> 그는 북한 내부의 불평등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이 계급별, 지역별로 심화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한다. 시장화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부문이 약화됨에 따라 일상생활, 일상문화에서 주민들의 의식 변화가 체제전환을 요구하는 구조적 압력의 정도를 점차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지적하였다.

북한주민의 의식 변화를 분석함에 있어 한국사회에 정착한 탈북민들은 중요한 분석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최대석·장인숙은 탈북민 의식조사를 통해 김정은 시대의 북한주민 의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sup>29)</sup>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시장화로 인해 주민생활의 일부 영역에서 당(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예외적’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주민들, 특히 하위계층에서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이 높게 나타났으며 개혁개방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sup>30)</sup>

그렇다면 한국사회의 변화와 한국의 문화는 북한주민들의 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강동완은 외래문화(한류)가 북한주민의 의식 변화에 어떻게 다가가고 있는지, 그로부터 주민들의 의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sup>31)</sup> 그는 한국의 문화콘텐츠, 즉 한류가 다양한 전달 매체를 통해 북한 내부로 흡수되고 있고, 이러한 외래문화의 접촉이 북한주민들의 사상이관을 일정 부분

28) 이우영, “김정은 체제 북한 사회의 과제와 변화 전망” 참조.

29) 최대석·장인숙 공편, 『북한의 시장화와 정치사회 균열』 참조.

30) 이와 관련하여 국가의 통제로부터 벗어난 미시공간의 생활상을 탈북자 증언을 통해 분석한 연구로 정은미, “북한주민의 의식주 생활과 사회변동,” 『아세아연구』 제57권 4호 (2014); 박순성·홍민 공편, 『북한의 일상생활세계』; 이교덕 외,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7) 등이 있다.

31) 강동완, “북한으로의 외래문화 유입 현황과 실태: 제3국에서의 북한주민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강동완, “북한의 한류현상과 사회변화” 참조.

추동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다만 한류를 북한사회 변화의 직접적 요인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하였다.

두 번째로, 북한사회의 변화를 구조, 즉 도시공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 연구가 최근까지 진행되어 왔다. 오유석·이주철(2007),<sup>32)</sup> 박희진(2014),<sup>33)</sup> 홍민(2014)<sup>34)</sup> 등은 북한의 도시 변화에 초점을 맞춰 북한에서 주민의 삶이 변화하는 과정을 추적하였다. 이를 통해 수평적으로 단절된 도시라는 통제된 공간이 이완되는 과정에서 북한사회의 변화와 그에 따른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연구하였다.

도시 공간 중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곳은 시장일 것이다. 오유석·이주철은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개인사업에 가까운 ‘시장적 공간’과 거래관계가 형성되었고 그 결과 부의 불균등 현상이 나타나면서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의식이 형성되었다고 분석하였다.<sup>35)</sup> 이와 같은 변화는 북한주민들의 소비의식과 생활문화의식, 직업의식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세대와 지역에 따라 격차를 보이고 있다.

북한주민의 의식을 이해한다는 점에서 일상생활에서 개인, 주체의 공간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또한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박희진은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이 일어나는 공간으로 ‘주체의 공간’을 상정하고 함흥에서 주체의 공간 활동을 분석하였다.<sup>36)</sup> 이 연구에서는 탈북자의 증언을 통해 그들이 도시 공간의 주체가기보다는 탈주체화되

---

32) 오유석·이주철, “도시 주민의 행위 양식과 사회적 의식 변화,” 최완규 편, 『북한 ‘도시정치’의 발전과 체제 변화』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7).

33) 박희진, “함흥 도시 공간의 지배 구조와 탈주체의 삶,” 북한도시사연구팀 편, 『함흥과 평성, 공간·일상·정치의 도시사』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4).

34) 홍민, “북한의 아파트 건설 역사와 도시 정치: 통치와 욕망의 공간적 변주,” 북한도시사연구팀 편, 『함흥과 평성: 공간·일상·정치의 도시사』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4).

35) 오유석·이주철, “도시 주민의 행위 양식과 사회적 의식 변화” 참조.

36) 박희진, “함흥 도시 공간의 지배 구조와 탈주체의 삶” 참조.

었으며 도시지배구조의 이데올로기에 포획되었다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도시 공간의 변화는 기존의 정치, 경제, 사회적 위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홍민은 평성, 순천, 청진의 사례를 통해 사회계층의 공간적 분화와 위계화를 분석하였다.<sup>37)</sup> 그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차원에서 공간의 분화를 추적하고, 도시에서 구성원의 지위에 따른 공간적 분화가 진전되며 정치적 구획선, 문화의 경계선, 계급의 구분선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남북의 접촉지대(contact zone)로서 개성공단을 분석한 양문수 외(2013)<sup>38)</sup>의 연구도 특기할 만하다. 양문수 등은 개성공단에서 활동한 남측 행위자들을 인터뷰하여 간접적으로나마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북한 근로자들이 갖는 남한 근무자에 대한 적대감과 대결의식이 접촉의 과정을 거치며 상당부분 완화되었다고 지적한다. 다만 남북의 갈등이 표출되는 정치적 격변기에 서로가 ‘남’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는 점에서 변화의 한계 또한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탈북자 조사 등을 통해 북한주민의 의식 변화를 분석한 연구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2017, 2018)의 통계분석자료가 특기할 만하다.<sup>39)</sup>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북한주민의 통일 인식, 대남 인식, 북한실태 인식, 그리고 주변국관계 인식 등을 조사·분석하였다.<sup>40)</sup> 현실적으로 북한주민의 의식 변화에 관한 현장조사가 어

---

37) 홍민, “북한의 아파트 건설 역사와 도시 정치: 통치와 욕망의 공간적 변주” 참조.  
38) 양문수·이우영·윤철기, “개성공단에서의 남북한 접촉이 북한 근로자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남한 주민에 대한 북한 근로자의 태도 변화를 중심으로,” 『통일연구』, 제 17권 2호 (2013).  
39)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편, 『북한주민 통일의식 2017』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8);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편, 『2017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변화, “병진노선”의 두 얼굴』, 학술토론자료집 (2017).  
40) 추가적으로, 남북한주민의 통일국가정체성을 분석한 연구로 박종철 외, 『남북한 주민의 통일국가정체성 인식조사』 (서울: 통일연구원, 2016); 김수삼 외, 『민주주의 및

려운 상황임은 분명하다. 다만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에 대한 조사는 분석의 정교함이 수반될 경우 북한주민의 의식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정한 경향성을 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될 필요가 있다.

북한사회의 변화와 주민의식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무엇보다도 양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경제위기 이전에 국가에 의해 주도된 주민의식의 특성과 변화의 양상을 검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주민의식의 변화를 이해함에 있어 ‘남한’이란 변수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한계 또한 존재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주민의 의식이 변화하는 현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단선적인 인과관계를 무리하게 적용함으로써 주민의식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과오 또한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 연구는 북한주민 의식의 변화에 있어 남한 변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에 진행된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특히 과거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주민의 의식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고찰한다는 점에서 학술적,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다. 북한주민 의식 변화의 이해

사회구성원은 그들이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특성화된 사회화의 과정을 거쳐 일정한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고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게 된다. 북한의 주민들은 국가의 철저한 통제 속에 끊임없이 정체성을 점검받아 왔으며 그 결과로 개인의 자유보다 집단주의에 구속된 사회의식만이 정당화되어 왔다.

---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 인식조사』(서울: 통일연구원, 2016) 참조.

다만 개인의 정체성은 이질적인 경험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내적 갈등이 반복됨으로써 의미관점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 북한에서 이와 같은 의미관점의 전환은 일차적으로 1990년대 중반 대량 아사와 탈북으로 이어진 경제위기로부터 발생하였다.

1990년대 중반 경제위기 이후 북한에서 주민의식이 변화하게 된 요인은 크게 내부요인과 외부요인, 그리고 이들 두 요인이 중첩된 결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북한에서 주민의식의 변화를 설명함에 있어 내부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1990년대 중반 경제위기가 식량난과 배급체계의 붕괴, 암시장의 확산과 유동성의 확장으로 이어지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로 인한 주민의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한계와 1990년대 중반에 이어진 흉수로 인하여 북한은 식량난에 직면하게 된다. 북한 당국은 공급물자의 부족으로 식량을 포함한 기본적인 배급체계의 붕괴를 통제하지 못하였고 이는 아사와 탈북으로 이어지게 된다.<sup>41)</sup> 북한 당국은 이제 ‘공짜와 평균주의’를 더 이상 기대하지 말 것을 선언하기에 이른다.<sup>42)</sup> 국가가 주민들의 의식주를 더 이상 책임져주지 않는 상황에서 암시장이 확산되었으며 개인은 자신과 가족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즉 북한이 강조하는 집단주의 정향이 이완되고 개인의 이익추구가 정당화되는 의식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41) 북한은 1995년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수해 등으로 약 190만 톤의 식량생산이 감소하였고 그 결과로 약 387만 톤의 식량이 부족함을 시인하였다. 남성욱은 1995년부터 1993년 3월까지 약 28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남성욱, “북한의 식량난과 인구변화 추이, 1961-1998,” 『현대북한연구』, 제2권 1호 (1999), pp. 260~265.

42) 박재규 편, “7.1 경제관리개선조치 관련 북한 내부자료,” 『새로운 북한읽기를 위하여』 (서울: 법문사, 2009), p. 456.

둘째, 경제위기와 함께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고 중간관료의 부패가 만연함에 따라 수령과 당, 인민을 연결하는 유일지도체계의 이완 현상이 확산되었다.<sup>43)</sup> 사회통제체계의 이완 속에 주민들이 시장으로 진출하면서 일상생활 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던 조직생활 또한 그 형태와 양식이 약화되어 형식화될 수밖에 없었다.<sup>44)</sup> 국가의 위기는 중간관료층을 중심으로 대리인의 문제가 확산되면서 심화되었고 주민들 또한 시장으로의 진출 과정에서 이들과 상호공생 관계가 형성되었고 개인이 조직생활로부터 이탈을 용인 받는 것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sup>45)</sup> 이와 같은 조직생활의 이완은 개인의 의식을 지배하고 이탈을 규제해왔던 교육체계의 약화로 이어짐으로써 주민의식을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셋째, 배급체계의 붕괴와 함께 시장을 통한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적 네트워크가 확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sup>46)</sup> 기존에 수평적으로 단절되어 있던 격자가 이완되고 다양한 형태로 유동성이 확장됨으로써 북한주민들이 사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상행위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적 네트워크, 사적인 공간의 형성은 개인을 원자화함으로써 유일적인 지도체계를 지속해왔던 기존의 체제가 이완되고 사적 공간을 통해 개인들이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외부로부터 유입된 문화들을 공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조직생활의 이완 속에 사적 공간이 형성되고 이 공간을 통해 정보와 문화콘텐츠가 유통됨으로써 북한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추동하고 있는 것이다.

43)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 p. 243.

44) 박형중,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변화』 (서울: 해남, 2004), pp. 204~205.

45) 정일영, “공장관리체제를 통해 본 북한사회의 변화: 당비서-지배인-노동자 삼각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통일연구』, 제17권 1호 (2013), pp. 27~28.

46) 장세훈, “북한 도시 주민의 사회적 관계망 변화,” 최완규 편,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 1990년대 청진, 신의주, 혜산』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6), pp. 295~307.

지금까지 기술한 대로 경제위기, 배급제 붕괴, 사회통제 이완 등은 필연적으로 외부요인에 의한 대내 영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현상이 목격되었다.

첫째, 과거 외부와 철저히 단절되고 통제되었던 북한에서는 경제위기 이후 대량 탈북이 진행되고 북중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공식, 비공식적인 인적, 물적 이동성이 증가하면서 외부의 정보가 북한 내부로 유통되기 시작했다. 외부로부터 유입된 정보는 기존에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이식해온 정보에 대한 혼란과 불신을 가져왔다.<sup>47)</sup> 북한은 조선노동당이 언론과 방송, 출판, 그리고 문학예술 분야의 모든 콘텐츠를 통제하는 유일한 국가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통제는 외부와의 단절을 통해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되어 왔다. 그러나 밀봉에 가까웠던 외부와의 단절이 상당부분 이완되면서 국가의 일방적인 정보통제는 불가능해졌다. 국가가 인민들에게 사실로 강조해온 많은 정보들이 외부의 정보들과 충돌하며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국가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구심을 갖게 만든 것이다.

둘째, 2000년과 2007년, 2018년에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등 정치회담과 다양한 형태의 인적 교류, 그리고 경제지원과 협력사업은 그동안 한국에 대해 북한주민이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미 제국주의의 하수인’으로 규정되어 왔던 남한의 대통령이 북한의 최고지도자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인민군의 사열을 받는 모습은 북한주민들에게 새로운 충격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또한 2018년 평양정상회담에서 평양시민을 대상으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한국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인식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외부에서 생산된 문화콘텐츠, 특히 한국의 문화콘텐츠가 북

---

47) 박순성·홍민 공편, 『북한의 일상생활세계』 (파주: 한울, 2010), p. 352.

한 내부로 유입되면서 한국사회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 특히 ‘장마당 세대’라 불리는 젊은 층에게 이들 문화콘텐츠는 한국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사회인식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sup>48)</sup> 최근에는 한류를 상징하는 문화콘텐츠가 더욱 다양한 전달 매체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녹화기, 재생기 등의 하드웨어에 비디오테이프나 CD, DVD로 전해지던 문화콘텐츠가 최근에는 USB나 태블릿 PC, 노트북(EVD 플레이어) 등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콘텐츠 전달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있다.<sup>49)</sup> 이러한 문화콘텐츠와 전달 매체의 발전은 북한주민들의 이질적인 경험을 통해 의식이 생성되고 전환되며 새로운 관점이 형성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sup>50)</sup>

특기할 것은, 북한주민들의 의식 변화가 위에서 살펴본 내외부 요인들이 상호 조응한다는 관점에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1990년대 경제위기는 행위와 결과, 주체 상호 간의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형태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북한사회의 변화는 내부, 혹은 외부의 변수로 단순하게 해석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북한사회의 변화는 외부요인이 내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내부의 변화가 외부의 정보를 흡수하는 양상 또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내외부 요인의 상호 중첩과 내외부의 분리로 해석되기 어려운 다양한 변인들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현재의 북한을 설명하는 중첩되고 복합적인 현

48) 조정아 외,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pp. 72~73.

49) 강동완, “북한으로의 외래문화 유입 현황과 실태: 제3국에서의 북한주민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pp. 172~183.

50) 한국에서 생산된 문화콘텐츠를 접한 북한주민들은 콘텐츠가 담고 있는 한국사회의 모습들을 보며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북한의 실상과 비교하는 과정을 거치며 남북 사회에 대한 인식을 수정해나가게 된다. 강동완·박정란, 『한류, 북한을 흔든다』 (서울: 늘봄플러스, 2011), pp. 81~106.

상 속에 북한주민의 의식 변화를 해석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11년 12월 김정일의 사망과 함께 등장한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주민의 의식 변화는 북한 내외부의 변화가 어떻게 상호 조응하며 구성원의 의식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내부의 변화 또한 국가와 사회의 관계가 어떤 형태로 변화하는가에 따라 상이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과거의 북한, 북한주민들을 현재화하는 오류는 없는지 확인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제 북한은 더 이상 유일지도체계가 획일적으로 작동하고 수많은 격자들을 통해 유동성이 차단되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연구자는 북한주민의 의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이해한다는 관점에서 단선적인 시각을 지양하고 다양한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북한사회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북한주민의 의식 변화가 북한 체제의 변동으로 과대 해석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오히려 최근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변화 속에는 행위자가 처한 정치, 사회, 경제적 조건에 따라 원심력뿐만 아니라 북한체제의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구심력 또한 일정 부분 작동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상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 북한주민 의식 변화 추이

북한주민 의식이 변화하는 양상은 다양한 범위와 영역, 즉 시간, 공간, 그리고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가. 내외부 요인에 따른 북한사회의 변화: 시기적 구분

북한사회의 변화는 다양한 영역에서 서로 다른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상호 조응하거나 충돌하고 있다. 북한사회의 변화와 그에 따른 주민의 의식 변화를 시간적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자칫 변화하는 현실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다만 북한 내외부의 변화 속에서 북한사회를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이 책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의 변화를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북한사회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세 시기, 즉 ① 1990년대 중반 경제위기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의 시기, ② 2000년대 초반 국가의 대응이 본격화된 후 2010년대 초반 김정은 체제의 등장까지, 그리고 ③ 2010년대 초반 김정은 체제의 등장 이후 현재까지로 구분할 수 있다.

〈표 II-1〉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북한사회의 변화

		충격기	조정기	전환기
시기 구분		1990년대 중반 ~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초반 ~ 2010년대 초반	2010년대 초반 ~ 현재까지
대내 환경	정치 분야	■ 김일성 사망과 유일체제의 위기 - 유훈통치	■ 선군정치를 통한 위기 극복	■ 김정은 체제의 등장 - 당의 지배 정상화
	경제 분야	■ 계획경제의 붕괴 - 배급제의 붕괴 - 암시장 등 확산	■ 국가의 개혁조치 - 7·1경제관리개선 조치 - 종합시장 공식화	■ 국가와 시장의 공존 - 도시건설 활성화 - 경제집중 노선
대외 환경		■ 사회주의체제 붕괴 - 국제사회의 원조 수용 - 남북경협사업 추진	■ 협상과 대결의 반복 - 對중국 의존 확대 - 남북관계의 진전과 중단	■ 북한 핵개발과 협상 - 대북 경제제재 지속 - 북미·남북관계 조정

출처: 필자 작성.

첫 번째로,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정치적, 경제적 위기와 함께 극심한 사회적 혼란에 직면하게 된다. 당시 동구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고 북한지도체제의 공백(김일성의 사망)이 경제위기와 함께 중첩되어 나타나며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였으며 이에 따라 북한사회 역시 기존의 규범과 생활양식을 전면 수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국가의 공급능력이 붕괴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극대화되었다.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기제로 작동하던 의식주의 제공, 무엇보다도 식량 배급이 중단되면서 위기가 가중되었다. 결국 배급제도의 붕괴는 대량 아사와 탈북으로 이어졌으며 북한주민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국가의 위기로 말미암아 기존의 전체주의적 정향은 상당부분 형식화되었고 개인은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추구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인식을 갖게 되었다. 암시장의 확장과 종합시장의 등장, 그리고 그에 따른 사적 공간의 확장은 이전에 비사회주의적 요소로 받아들여던 현상들을 생존의 공간 내지 도구로 재인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두 번째로, 2000년대 초반 북한은 경제위기 이후의 정치·사회적 혼란을 선군정치로 극복하는 한편 주민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함으로써 경제위기로 이완된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김정일 체제는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군대를 앞세우는 선군정치를 주창함으로써 유일지도체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2000년대 북한의 경제는 국가의 공급체제가 붕괴된 상황에서 암시장 등 비공식적 경제활동이 여전히 주민들의 의식주 생활을 지탱한 시기였다. 결국 김정일 체제는 국가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부 단위의 자력갱생을 요구하는 한편 비공식적으로 확산되던 암시장을

통제하기 위해 국가가 관리하는 종합시장을 각 도시에 설립하게 된다.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2003년 종합시장의 공식적 인정<sup>51)</sup>은 북한사회의 변화를 수용한 국가의 대응이라 할 수 있다.

또한 2000년 6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이후 차관 형식으로 대북 식량지원이 이뤄지고 남북 간 경제협력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한국에 대한 북한주민의 의식이 일정 부분 변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 간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고 개성과 금강산 등 경제·관광특구라는 교류협력의 공간이 창출되며 접촉이 지속적으로 반복됨에 따라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접촉지대 행위자들의 의식 변화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2011년 12월 김정일의 사망과 김정은 체제의 등장을 전후한 북한사회의 변화는 1990년대 중반 경제위기의 충격과 2000년대 사회 변화의 수용이란 성격과 또 다른 양상을 보여 왔다. 특히 2010년대 이후 나타난 변화의 양상들, 즉 대외적으로, 북한의 핵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와 남북관계의 악화, 그리고 내부적으로, 시장의 점진적인 안정과 확산,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외부 문화 콘텐츠의 유입 등이 북한주민의 의식에 일정한 변화를 추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0년대 북한사회의 변화는 주민의식의 변화가 시장화 등 사회의 역동성을 추동하는 형태 또한 보이고 있다. 최근 북한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행위(사업)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경제적 이익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의식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추가적으로, 2017년 최고조에 이르렀던 한반도 안보 위기가 2018년 평창올림픽을 정점으로 점차 대화를 통한 비핵화 국면으로 접어들

---

51) “시장운영에 대한 내각지시,” 북한 내각지시 제24호 (2003.5.5.).

면서 남북관계 복원과 동시에 내부적으로 경제건설을 강조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지난 4월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해소하고 ‘경제집중노선’을 천명하였다.<sup>52)</sup>

이와 같은 내외부의 변화는 향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 그리고 이어질 경제개발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대응에 따라 북한사회의 전환적 변화를 추동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이는 북한주민들의 의식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 나. 공간의 상이성과 주민의식의 변화

북한에서 공간의 상이성은 과거와 달리 주민들의 의식 변화에 일정한 변수로 상정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북한주민의 의식 변화와 관련한 공간의 상이성을 크게 ① 국경지역과 내륙지역, ② 도시와 농촌, 그리고 ③ 국영 기업과 지방의 영세 기업소로 나누어 설명하도록 한다.

첫 번째로, 외부접촉지역에서 주민의식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국경지역, 즉 북중 접경지역과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를 중심으로 한 남북 간 접경지대는 상대적으로 외부정보를 취득하기 쉬우며 공식, 비공식 교류를 통해 내륙지역에 비해 개방되어 있어 주민의식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경험이 직간접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sup>53)</sup>

---

52) 정성장, “북한의 경제-핵 병진노선 폐기 배경과 비핵화에 대한 입장 평가,” 『세종논평』, no. 2018-22 (2018. 4. 23.), <[http://www.sejong.org/board/bd\\_news/1/egofiledn.php?conf\\_seq=1&bd\\_seq=4](http://www.sejong.org/board/bd_news/1/egofiledn.php?conf_seq=1&bd_seq=4)> (검색일: 2018. 9. 9.).

53) 이와 관련하여 국경지역이 내륙지역에 비해 체제 불만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경지역이 내륙지역보다 사회 변화에 민감한 만큼 국가의 통제에 불

무엇보다도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시작된 한국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의 인도적 지원은 북한의 고위층과 주민들의 대남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sup>54)</sup>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 중 개성공업지구는 남북경협이 공간으로, 금강산관광지구는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의 공간으로 활용되면서 이들 공간에 다양한 목적으로 참여한 행위자들의 인식 변화 또한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성공단은 남한의 기업인과 북한의 노동자가 함께 입주기업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접촉지대(contact zone)로서 남과 북 모두에게 새로운 실험이라 할 수 있었다. 개성공단에서 일한 남한의 관리자들은 이와 같은 접촉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정서, 특히 남한에 대한 적개심 내지 대결의식이 상당히 해소되었다고 지적한다.<sup>55)</sup>

두 번째로, 평양을 중심으로 한 주요 도시에서 주민의식의 변화를 들 수 있다. 특히 평양은 국가단위의 공급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토대와 성분이 좋은 층성분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북한 당국이 요구하는 사회규범에 여전히 충실하며 국가가 주도하는 개혁정책에도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sup>56)</sup> 평양은 김정은 체제에 가장 충성도가 높은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은 체제의 등장 이후 평양을 중심으로 도시 현대화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사회주의식 현대화에 대한 주민의식이 또 다른 차원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sup>57)</sup> 반대로 지방 소도시와 농촌지

---

만을 드러낸 것으로 판단된다. 박영자, “체제 변동기 북한의 계층·세대·지역 균열,” 최대석·장인숙 공편, 『북한의 시장화와 정치사회 균열』 (서울: 선인, 2015), pp. 226~227.

54) 북한이탈주민 K 인터뷰(2018.7.24., 통일연구원).

55) 양문수·이은영·윤철기, “개성공단에서의 남북한 접촉이 북한 근로자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남한 주민에 대한 북한 근로자의 태도 변화를 중심으로,” pp. 142~147.

56) 강동완·박정란, 『사람과 사람: 김정은 시대 ‘북조선 인민’을 만나다』, pp. 336~337.

역은 여전히 외부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만큼 일상생활에서 자생적 시장을 통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도시 내부에서 작동하는 공간의 상이성 또한 강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평성의 사례를 보면 도당위원회와 역전, 시장 등 삼각 축을 중심으로 도시공간의 계층적 위계와 분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정치적, 경제적 자본, 그리고 사회적 지위(성분)에 따른 구별 짓기와 이에 따른 공간의 분화를 특징으로 한다.<sup>57)</sup>

추가적으로, 남북 간 정치적 교류협력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평양의 공간적 특성 또한 존재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8년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의 정상이 중단된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진전시키는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시민들에게 전달한 메시지는 이전에 없던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국영 기업소와 지방의 중소 규모 기업소 노동자 사이에서 시장 접촉의 기회가 상이하게 주어짐으로써 서로 다른 의식 변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영 기업소의 경우 여전히 배급이 이루어지고 있어 국가의 통제기제가 작동하고 있는 반면 중소 규모 기업소의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시장으로의 진출 가능성이 높다.<sup>58)</sup>

시장을 통해 삶을 영위하는 북한주민의 경우 시장의 논리에 적응하며 공장, 기업소로부터 점차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생산공간에서 당비서와 지배인(관료), 노동자 간 상호 의존적 공생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시장의 확산과 함께 그 형태

---

57) 김정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올 데 대하여,” 『로동신문』, 2012.5.9., 1~4면.

58) 홍민, “북한의 아파트 건설 역사와 도시 정치: 통치와 욕망의 공간적 변주,” pp. 142~149.

59) 양문수, “1990년대 경제위기와 지방경제 운영체계의 변화,” 최완규 편,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 1990년대 청진, 신의주, 혜산』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6), pp. 73~79.

와 방식이 더욱 복잡해져 가고 있다.<sup>60)</sup>

최근에는 돈을 중심으로 새로운 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 기관을 활용한 창업 또한 다양한 수위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북한의 창업 교육 NGO인 조선교류(Chosun Exchange)에 따르면 평양 인근의 은정과학지구에 최근 약 17개의 스타트업이 설립되었다고 한다.<sup>61)</sup> 여전히 국가의 통제를 받고 있지만, 기업의 자율성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으며 특정 분야에서는 국가가 이를 용인 내지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 북한에서 공간은 국제도시로 육성한 평양과 그 이외의 지역으로 나뉘는 정도의 상이성만이 존재해왔다. 각 지역은 격자로 가로막혀 이동이 철저하게 통제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외부와의 접촉지대가 확대되고 북한 내부의 유동성 또한 확대되면서 공간의 성격에 따른 상이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 다. 구성원의 특성과 주민의식의 변화

북한에서 주민의식의 변화는 계층, 성, 그리고 세대에 따라 그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제시하는 계층과 성, 그리고 세대는 북한사회를 이해하는 준거이자 최근의 사회 변화와 주민의식의 변화, 그리고 그 성격을 이해함에 있어 중요한 경계라 할 수 있다. 특히 시장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시장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시장참여자와 시장을 통해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자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

60) 이석기, “북한의 1990년대 경제위기와 기업 행태의 변화: 생존추구형 내부자 통제와 퇴행적 시장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2003, p. 154.

61) 정새롬, “북한에도 스타트업이 있을까, 블록체인을 할까? 북한 창업 생태계 5문 5답,” 『플래툰』, <<https://platum.kr/archives/102998>> (검색일: 2018.8.12.).

## (1) 계층별 차이

첫 번째로, 북한은 정권 수립 이후 한국전쟁을 거치며 엄격하게 분리된 계층구조를 구축하였다. 오랜 시간 제도화된 사회계층은 북한주민의 의식 변화를 가로막는 기제로 작동하였다. 북한의 사회통제체제는 한국전쟁의 경험을 공유하는 광범위한 충성계층을 중심으로 적대계층을 통제하는 사회규범과 동의구조, 그리고 이탈자에 대한 재사회화를 구조화한 유기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

북한의 사회통제체제는 한국전쟁 이후 정착된 사회계층의 엄격한 분리를 특징으로 한다. 한국전쟁 이후 1967년부터 70년까지 3년간 주민들을 3계층(핵심, 기본, 적대계층), 51개 부류로 구분하는 주민재등록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핵심계층은 조선노동당원과 혁명·애국열사유가족, 6·25피살자 및 전사자 가족 등으로 전체 주민의 약 28%에 달한다. 적대계층은 월남자 가족과 적(敵)기관복무자, 반당·반혁명 종파분자, 자본가와 지주, 그리고 종교인 등 전체 주민의 약 27%에 달했다.<sup>62)</sup>

특히 한국전쟁을 통해 강한 충성심을 공유하는 핵심계층은 무의식적 충성분자를 구성원으로 하며 국가의 위기상황에 맞서 정권의 지속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된다.<sup>63)</sup> 반대로 적대계층은 당원 가입에 제약을 받았으며 일부는 정치범 수용소와 집단이주를 통해 물리적으로 통제되어 신분 상승의 기회를 박탈당했다.<sup>64)</sup>

두 번째로, 1990년대 중반 경제위기 이후 진행된 시장의 확산은

62) 전현준, 『북한의 사회통제기구 고찰』 (서울: 통일연구원, 2003), p. 55.

63) Albert Hirschman, *Exit, Voice and Loyalty: Responses to Decline in Firms, Organization, and Stat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0), pp. 91~93.

64) 김남식, “북한의 공산화과정과 계급노선,” 공산권연구실 편, 『북한 공산화과정연구』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1972), pp. 212~213.

기존의 사회계층을 이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과거 적대계층으로 사회적 신분 상승이 불가능했던 구성원들이 시장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부의 축적을 통해 정치적 지위를 획득하는 사례도 보고된다.

잠재적 ‘상업자본가’라 할 수 있는 행위자들, 예를 들어 거대 자본을 활용한 돈주나, 외화벌이 일꾼, 그리고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차익을 남기는 되거리장사를 하는 거상들은 기존의 획일화된 사회계층의 구조를 이완시키고 시장을 중심으로 계층이 분화되는 현상을 일정 부분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 또한 제기된다.<sup>65)</sup> 물질적인 부의 차이가 사회계층의 또 다른 준거가 된다는 인식이 북한주민들 사이에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사회계층을 구분하던 기준, 즉 개인과 선대(先代)의 출신 성분이 갖는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고 경제적 기준에 의한 계층구조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계층화 현상을 대변하는 집단은 시장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돈주’ 등 신흥 자본가 집단이다.<sup>66)</sup> 탈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박영자의 분석에 따르면, 사회계층의 균열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소득과 금전(37.5%)이 권력(32.5%)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sup>67)</sup>

추가적으로, 물질적 부를 축적하기 어려운 구성원, 즉 구 지배계층 중 경제위기를 스스로 극복하지 못한 구성원, 그리고 직업의 특성으로 인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어려운 구성원, 예를 들면 교원 등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유동성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운수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사적 이익을

65) 최봉대·구갑우, “북한의 도시 ‘장마당’ 활성화의 동학,” 최완규 편,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 1990년대 청진, 신의주, 혜산』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6), pp. 132~137.

66) 이우영, “김정은 체제 북한 사회의 과제와 변화 전망,” pp. 71~74.

67) 박영자, “체제 변동기 북한의 계층·세대·지역 균열,” pp. 214~217.

추구하기 쉬운 반면, 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운 주민들은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sup>68)</sup>

## (2) 성별 차이

성별에 따른 역할 분담은 사회 내에서 일종의 제도처럼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근대에 와서도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일은 주로 남자들이 담당해 왔다.<sup>69)</sup> 북한은 해방 이후 「남녀평등법」을 제정하는 등 남녀평등을 추구한 듯 보이나 실제로는 가부장적 문화가 지배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90년대 경제위기는 남녀의 역할, 특히 가정에서 여성의 경제적 역할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무엇보다도 시장의 확장은 남성보다 시장에 친화적인 여성의 사회인식을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성은 경제위기 이전에도 가내작업반을 통해 소규모의 가내수공업과 장사 등을 경험했기 때문에 시장으로의 진출이 용이한 조건을 내재하고 있었다.<sup>70)</sup> 북한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경제난 이후 생계의 많은 부분을 여성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과 의식의 변화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sup>71)</sup> 게다가 북한의 가격체계가 다층적으로 분화되어 있는 상황에

---

68) 탈북자 조사를 통해 나타난 북한주민의 객관적 계층 인식에 따르면, 군인과 농민을 하층으로 인식한 비율이 각각 69.2%와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관적 계층 인식 조사에는 농민의 80%가 자신을 하층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미, “북한 중간계층의 결정요인과 특성: 북한이탈주민의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제7권 2호 (2015), pp. 89~90.

69) 한상복 외, 『문화인류학』, pp. 196~197.

70) 구수미·이미경, “체제변혁 시기 북한 도시 여성의 지위 변화 전망,” 최완규 편, 『북한 ‘도시정치’의 발전과 체제 변화』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7), pp. 177~182.

71) 이미경·구수미, “경제위기 이후 북한 도시 여성의 삶과 의식,” 최완규 편,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 1990년대 청진, 신의주, 혜산』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6), pp.

서 북한주민 상당수는 직장의 급여보다 더 많은 수입을 시장을 통해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72)</sup>

이와 같이 북한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 진출이 용이한 상황이며 시장에서 상행위를 할 수 있는 주민 또한 여성으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아 여성이 남성보다 시장 친화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시장을 통한 이익의 추구, 상행위를 통한 가계수입의 증대라는 의식 변화를 여성이 주도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여성의 시장 진출로 인해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과 위상 또한 점차 변화하고 있다.<sup>73)</sup> 시장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이 국가기관 혹은 공장, 기업소 등 공식적인 생산단위에서 받는 월급과 비교하여 많게는 10배 이상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이 가정의 수입을 주로 담당하고 남성이 이를 보조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남성이 ‘낮전 등’이라 불릴 정도로 무능력한 존재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북한사회의 가부장성을 해체시키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여성이 시장이라는 공간을 통해 얻는 진보적 의식은 여러 겹으로 중첩되고 모순된 이중성을 띠고 있다.<sup>74)</sup> 북한에서 여성은 가정에서의 가부장성뿐만 아니라 기존의 조직생활 등 사회문화 전반에 자리 잡은 집단적 가부장성과도 충돌하게 된다.

북한 정치의 상부구조에서 여성의 참여 또한 아직은 난망하다. 현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31명)과 정무국(12명), 당중앙군사위원회(14명), 그리고 국무위원회(12명) 등 핵심 권력기구에 소속

---

201~220.

72) 정우곤·이주철, “북한 주민생활보장제도와 도시 계층구조 재편,” 최원규 편,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 1990년대 청진, 신의주, 혜산』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6), pp. 161~163.

73) 구수미·이미경, “체제변혁 시기 북한 도시 여성의 지위 변화 전망,” pp. 177~182.

74) 조정아 외,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pp. 294~297.

된 69명 성원 중 여성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유일하다. 또한 당중앙위원회 전문부서(16개)와 12개도(직할시·특별시) 당 책임비서 중 여성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sup>75)</sup> 북한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이 일부 확대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현상이 중앙정치에서 여성의 지위 상승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3) 세대별 차이

북한사회의 변화, 즉 내외부의 변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세대별 차이 또한 특기할 만한 주제이다. 특히 1990년대 중반 경제위기 이후 출생한 ‘장마당 세대’는 이전의 세대와 다른 사회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즉, 북한주민의 의식 변화에서 세대는 의미 있는 차이를 가져온 변수라 할 수 있다.<sup>76)</sup> 시간이 경과하면서 북한주민의 의식 변화는 젊은 세대의 정향과 궤를 같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중장년층일수록 국가가 요구하는 사회규범에 순응하는 반면 청년층은 새로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장년층일수록 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회규범을 관성적으로 추종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전후 국가의 사회통제체제 하에서 ‘주체의 사회주의 인간’으로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끊임없이 정치·사상 교양에 포섭된 계층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중장년층이 보이는 의식의 변화는 앞서 분석한 공간과 계층, 세대의 차이와 맞물려 그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75)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권력기구도,” <<http://nkinfo.unikorea.go.kr>> (검색일: 2018.9.29.).

76) 오유석·이주철, “도시 주민의 행위 양식과 사회적 의식 변화,” pp. 300~301.

반면, ‘새 세대’, 즉 식민지와 전쟁 경험이 없이 사회주의체제가 완성된 이후 성장해 청장년 시기에 ‘고난의 행군’을 경험한 세대는 실리적인 경제관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주의적인 정향과 실용주의적 직업관을 공유하고 있어 당의 공식적인 교양으로부터 다소 이완된 의식구조를 갖고 있다.<sup>77)</sup> 북한이 지난 2016년 8월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의 명칭을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으로 개칭한 것 또한 청년층의 정치·사상적 이반을 막고 국가의 통제력을 지속시키려는 의도라 할 수 있다.<sup>78)</sup>

두 번째로,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국 등 외래 문화콘텐츠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와 같은 문화적 접촉을 통해 기존의 사회 의식이 변화하는 현상 또한 나타나고 있다.<sup>79)</sup> 1990년대 중반 경제 위기 이후 출생한 청년층은 경제위기 이전 정형화된 북한의 사회통제체제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운 성장과정을 거쳤으며 이와 같은 특성은 외부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기성세대보다 적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제작된 문화콘텐츠는 언어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젊은 층에게 호감을 불러일으키며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북한 사회와 달리 자유분방한 남한의 젊은 층이 표출하는 다양한 형태의 이질적 요소들은 북한의 젊은 층에게 의미관점의 전환에서 나타나는 혼란과 충돌, 그리고 의식의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sup>80)</sup>

77) 이우영, “김정은 체제 북한 사회의 과제와 변화 전망,” pp. 74~76.

78) 이와 관련하여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016년 신년사를 통해 “오늘의 총진군에서 청년들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청년들은 청년강국의 주인으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을 깊이 간직하고 조국을 떠받드는 역센 기동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며 강성국가 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기적의 창조자, 청년영웅이 되어야 한다”며 청년동맹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김정은, “신년사,” 『중앙일보』, 2016.1.1., <<https://news.joins.com/article/19344937>> (검색일: 2018.9.20.).

79) 강동완, “북한의 한류현상과 사회변화,” pp. 31~36.

80) 일부 북한의 젊은 세대는 시장을 통해 외부의 문물, 특히 한국의 드라마와 가요, 패션

추가적으로, 세대별 차이는 직장에 대한 선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국가의 계획경제에서 직장이 배정되고 배급체계 속에 안주하던 과거와 달리 국가가 지급하는 급여로 가게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별 구성원이 스스로 수입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는 집단주의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개인주의와 배급주의의 가치관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sup>81)</sup> 결국 최근 북한의 청년층은 점차 경제적 부를 보장해주는 직장, 즉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직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분석한 바와 같이 구성원의 특성, 즉 계층과 성별, 그리고 세대의 차이에 따라 북한주민들이 보이는 의식의 변화는 서로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차이는 앞서 기술한 공간의 상이성과 중첩되어 나타난다는 점에서 변화와 그에 따른 인식의 저항, 그리고 변화의 성격이 무엇인가에 관해 더욱 면밀한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3. 소결

북한에서 개인은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여기는 참된 인간’으로 구조되어 왔다. 국가의 철저한 통제 속에 주민들의 의식 또한 구속되어 왔던 것이다. 다만 북한에서도 억압적이며 구조화된 국가의 통제가 약화된다면 정치적으로 허용된 공적 선호(public preference)가 이완되는 공간에서 사적 선호(private preference)가 표출될 가능성 또한 존재

---

등을 접하며 이를 모방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8 북한 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8), p. 158.

81) 위의 책, p. 157.

한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이 직면했던 경제위기와 이에 따른 자발적 시장화, 외부자원의 유입, 그리고 정보 유통의 확대와 같은 현상들은 국가의 통제체제 약화라는 배경 속에서 사적 선호가 부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주민들은 1990년대 중반 식량난과 배급체제의 붕괴라는 상황 속에서 개인과 가족의 생존을 추구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 인식에 눈을 뜨게 된다. 2000년대 들어 경제관리개선조치와 종합시장의 공식화 등으로 경제위기에 대한 국가의 대응이 본격화하고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북한주민들이 자본주의 시장체제와 남한에 대해 갖는 인식 또한 변화를 겪었다. 2011년 말 김정일 사후 김정은 체제가 등장하면서부터는 국가와 시장이 공존하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김정은 시대 들어서는 주민들의 상행위가 더욱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경제적 이익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이 더욱 강화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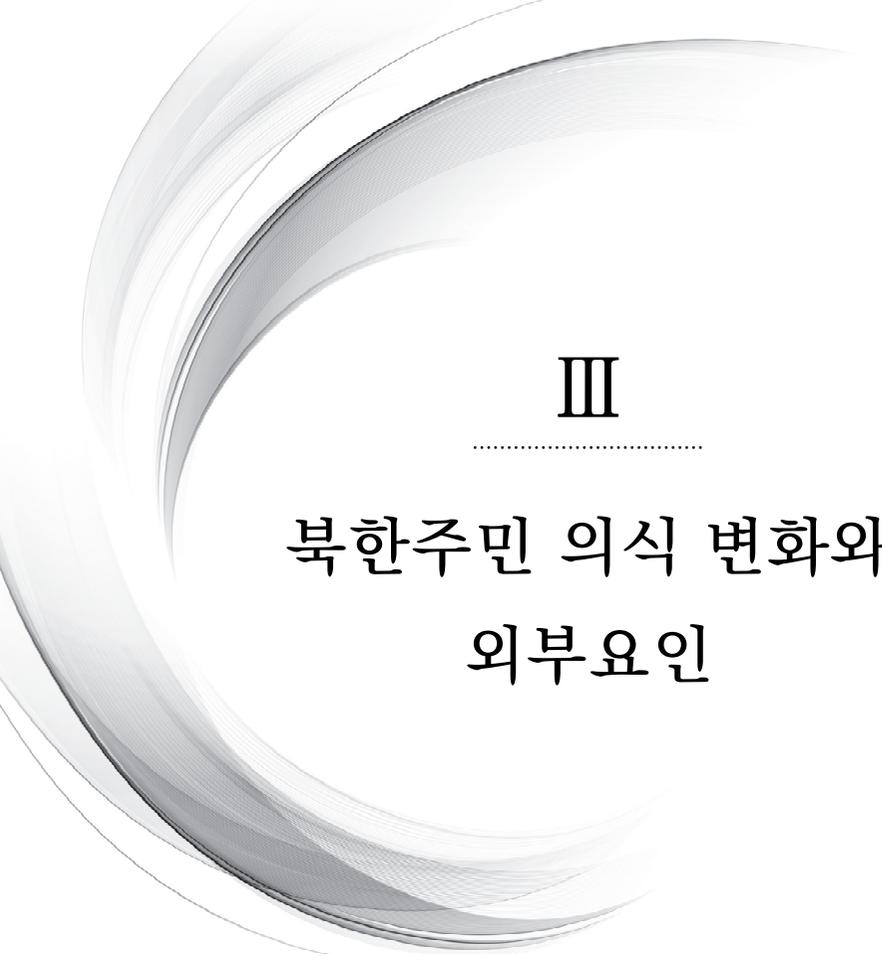
시기적 구분 이외에도 북한주민들의 의식변화의 흐름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또 있다. 먼저 거주지역이나 작업공간의 상이성이 북한주민들의 의식 변화에 주요 변수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국경지역과 내륙지역, 도시와 농촌, 그리고 국영기업과 지방의 영세기업소 등 주변 환경의 차이에 따라 주민들의 의식 변화 양상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계층과 성별, 그리고 세대 등 구성원의 특징에 따라 주민의식 변화 양상 또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여기서 제시하는 계층과 성별, 그리고 세대는 북한사회를 이해하는 준거이자 최근의 사회 변화와 주민의식의 변화, 그리고 그 성격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경계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시장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시장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시장참여자나 시장을 통해 정보를 취득하는 행위자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할 필

요가 있다.

북한주민들의 의식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은 크게 북한사회의 내부요인과 외부요인, 그리고 이들 두 요인의 중첩된 결과가 빚어내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북한주민들의 의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이해한다는 관점에서는 단선적인 시각을 지양하고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에 주목하면서 북한사회의 변화를 추적해야 할 것이다. 다만, 북한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이질적인 경험의 반복을 통해 의식이 생성되고 전환되는 ‘관점전환의 학습’이란 측면에서 이해한다면 상대적으로 내부요인보다 외부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관계의 발전과정에 주목한다면 서로 다른 문화권의 접촉이라는 측면에서 외부요인이 주민의식 변화에 영향을 미쳐온 결과에 천착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III장에서는 북한사회의 변화에 영향을 미쳐온 외부환경을 국제적 측면과 남북관계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게 될 것이다. 특히 북한사회와 주민의식 변화에 영향을 미쳐온 외부요인에 주목하기 위해 1990년대 들어 시작된 남북교류협력의 전개과정을 집중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이들 외부요인의 형성과정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 Ⅲ

---

## 북한주민 의식 변화와 외부요인



## 1. 외부요인 변화의 배경: 국제관계 및 남북관계

북한주민의 의식과 태도 변화는 북한 내부요인에 의해 추동될 뿐 아니라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과도 관계가 있다. 북한주민 의식의 변화가 시간, 공간, 그리고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외부의 변화를 수용하는 과정이자 결과임을 고려할 때 이 역시 남북관계 및 한반도 주변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환경과 분리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sup>82)</sup>

남북한은 냉전기의 체제경쟁 및 대결 시기를 거쳐 1980년대 후반부터 급변하는 탈냉전의 국제질서 속에서 외부변화를 수용하면서 체제안정, 관계발전, 통일 지향의 길을 모색해왔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난과 대규모 기근은 인도적 지원을 위한 북한 당국과의 접촉 및 대화와 협상 등을 수반하는 유엔 및 국제사회의 개입을 초래하였다. 남북한 차원에서는 김영삼 정부가 1995년 쌀 15만 톤을 북한에 제공함으로써 대북지원이 시작되었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부터 2000년대 말까지 지원을 확대해 나갔다. 남북한 인적 왕래 역시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 사회문화, 대북지원 등과 관련하여 꾸준히 늘어났으며, 2000년대에는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사업이 활발해지면서 남북경제협력은 급격히 확대된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의해 대북 포용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정부와 민간 차원의 다양한 교류와 접촉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수반된 정보와 문화의 유입, 인적 접촉의 기회는 북한주민들의 의식과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III장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주민 의식 변화에 영향을 미

---

82) 전재성, “국제환경 변화와 남북관계에 대한 영향,” 신중호 외, 『전환기 남북관계 영향 요인 및 향후 정책 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06), p. 201.

친 외부환경을 국제환경 및 남북관계의 변화로 나누어 살펴본다. 탈냉전기 북한의 지역질서 인식과 대외정책은 국제관계 차원의 변화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의 주요 변화를 간략히 살펴보고, 북한의 생존과 번영, 외부와의 교류 및 타문화와의 접촉, 북한 내 정보와 문화 유입 차원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주요 시기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 가. 국제환경의 변화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탈냉전은 동북아 국제정치뿐 아니라 남북한의 대외환경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전통적인 미소 대결구도에서 형성된 양극체제가 1989년 동구 사회주의권 붕괴와 1991년 소련의 해체로 미국의 단극체제로 전환된 것이다.<sup>83)</sup>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지역 질서를 규정하는 힘으로 작용하였다. 미국의 클린턴(Clinton) 행정부는 1990년대 초중반 경제적 호황을 바탕으로 ‘관여와 확대(Engagement and Enlargement)’라는 대외정책을 통해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와 자유시장 및 민주주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적극적이었다.<sup>84)</sup> 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미국의 관여정책은 전통적인 냉전시기 소련에 적용했던 봉쇄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었고 이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역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1990년대 국제환경의 변화는 한국의 노태우 정부 이후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시기 외교 및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대외

83) 전재성, “분단 70년의 국제환경, 대내구조, 남북 관계의 조명,” 『통일정책연구』, 제 24권 1호 (2015), p. 19.

84) The White House,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Engagement and Enlargement,” (February 1996), pp. 11~12.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1994년 김일성 사후 김정일 집권 초기의 대외환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미소 간의 대탕트와 함께 한국은 1989년~1990년 동구권 국가들과의 수교를 시작으로 1990년 한소수교, 1992년 중국 및 베트남과 수교를 거치며 냉전체제 종식이라는 국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sup>85)</sup>

한국의 북방정책 및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수교 및 관계 개선과 같은 전향적 조치들은 북한에게는 상당한 충격을 동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한은 탈냉전의 국제정세 변화가 구조적인 방향 전환이라기 보다는 일시적 동요 현상으로 간주하고 ‘우리식 사회주의’, ‘조선민족제일주의’, ‘사회주의대가정론’ 등을 내세움으로써 내부동요를 막고 사상통제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sup>86)</sup>

따라서 이러한 외부환경의 변화가 북한의 대내외 정책의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 요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심각한 딜레마’를 초래한 것은 사실이다.<sup>87)</sup> 즉 국제질서의 변화와 관계없이 체제응집, 고립노선, 비타협성을 고수하는 것과, 북한 체제에 정치적 도전이 될 수 있지만 제한적인 대외개방, 국제사회와의 관계 설정, 남한과의 관계 개선 조치 등의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했다.<sup>88)</sup> 북한의 선택은 대체로 후자 쪽이었다.

1991년 9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주권을 제도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행위자로 수용하게 된 것을 의미하며, 북한으로서는 타국과의 외교, 조약 체결 등 국제사회와 대화와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상황의 변화를 의미했다. 북한이 분

85) 우승지, “남북관계 연구: 검토와 과제,” 『국제정치논총』, 제46집 1호 (2007), p. 165.

86) 허문영, “북한의 대외정책 현황과 전망,” 민족통일연구원 엮음,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민족통일연구원 국내학술회의, 1996.11.11.), p. 57.

87) 한승주, “북한의 대미관계,” 유세희·이정식 공편, 『전환기의 북한』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1), p. 208.

88) 한승주, “북한의 대미관계,” p. 208.

단 이후 적대관계를 유지해 온 미국과 경수로 지원 및 관계 정상화를 핵심으로 하는 1994년 ‘제네바 합의(Agreed Framework)’를 이룬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미국 주도 질서의 기반 아래서 형성된 동아시아 국제관계는 2000년대 중반부터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다.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미국 패권 중심의 단극시대가 도전을 받게 된 것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연평균 9% 수준의 고속성장률을 기록하며 2005년에는 제3위 무역국으로, 2010년에는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무역대국으로 부상한다. 중국은 경제성장과 발전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점차 확대해 나갔고 2000년대 중반에는 이른바 ‘G2(Group of Two)’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2005년 부시 2기 행정부에서는 중국의 경제력 및 군사력 증강, 그리고 주변국가에 미치는 영향력 확대를 위협으로 간주하는 이른바 ‘중국 위협론’이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sup>89)</sup>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미국과 중국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진다. 미국의 패권은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반면 중국은 지속적 경제성장 및 국방력 강화를 통해 새로운 글로벌 파워이자 중심축으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물론 미국은 여전히 강대국으로 막강한 세력과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1990년대부터 미중 간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함에 따라 중첩되는 이익에서 대결과 충돌보다는 경쟁과 협력관계를 유지해온 것이 사실이다.<sup>90)</sup>

그렇지만 미국 내에서는 중국의 부상이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으며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

89) 김홍규,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과 전략적 미·중관계의 형성,”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09.2.16.), p. 2. <<http://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 (검색일: 2018.7.16.).

90) 김홍규, “전략적 경쟁에서 전략적 협력으로: 미중관계 변화와 한국에의 함의,” 『중소연구』, 제33권 3호 (2009), p. 22.

관측이 제기되었다. 반면 중국에서는 자국의 경제·군사력을 바탕으로 국익을 위해 주변국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는 ‘중국 역할론’이 부상하였다. 이러한 미중 간의 상이한 인식과 상호 경계 태도는 동아시아 역내 질서에 새로운 양상을 가져왔다. 글로벌 차원에서 미중관계의 경쟁과 대결 구도가 점차 명확해짐에 따라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역학 또한 달라진 것이다. 2002년 ‘화평굴기(和平屈起)’를 지향하는 후진타오(胡錦濤) 체제 등장,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11년 미중정상회담 시기까지는 기존 패권국 미국과 도전국 중국 간의 세력균형 변화를 보인 시기였고 동아시아 내의 협력과 경쟁 구도 역시 점차 복잡해지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부상과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한국은 북한의 핵위협으로 인한 안보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기조를 유지했다. 2006년과 2009년 북한의 1, 2차 핵실험은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핵문제 대응과 비확산 목표를 위해 ‘북한문제’에 보다 깊이 개입하게 된 계기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2차 북핵 위기 중 출범한 후진타오 정권 역시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sup>91)</sup>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진행된 6자회담은 북핵문제에 있어 중국의 역할이 새롭게 부각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99년 6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 사절단은 중국을 방문하여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회복하기로 하였고, 러시아와는 2000년 2월 친선·선린 및 협조조약을 공식 체결하였다.<sup>92)</sup> 김정일 정권은 대내적으로 사회주의강국 건설, 미국의 일극

91) 우승지, “김정일-후진타오 시대 북중관계에 대한 고찰,”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6.12.), p. 317.

92) 김국신, 『미국의 대북정책과 북한의 반응』 (서울: 통일연구원, 2001), p. 52.

체제 및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항을 강조하며 선군시대를 주창한다.<sup>93)</sup>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 실현을 위해서도 경제적 뒷받침이 필수적이었고 중국은 북한이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상대국이었다. 중국의 부상이 본격화된 2000년대 초반 이후 북중 간 경제협력은 무역과 투자 분야에서 점차 확대되었고 2000년대 중반 후진타오 체제가 북한과의 변경무역을 장려하면서 북중 간 경제 의존은 한층 더 심화되었다.<sup>94)</sup>

중요한 사실은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북중 간 무역 및 교류 증대가 거시적인 경제변화뿐 아니라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정보접촉 및 이주의 기회를 증가시켰다는 점이다. 북중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제활동과 중국 조선족의 한국 방문 및 교류 증대는 북한 내외부 소식의 유통을 현저히 증가시켰고 특히 한국에 대한 정보의 유입 및 탈북 이주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sup>95)</sup>

## 나. 남북관계의 변화

분단 이후 지속된 미소 양극체제가 1991년 소련의 붕괴 이후 종식된 점은 남북한에 서로 다른 기회와 도전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냉전의 붕괴 이후 1990년대 중반 북한이 처한 경제위기와 극심한 식량난이 대북 인도적 지원의 계기가 되었고 김정일 체제 하에서 남한과의 교류협력이 선군정치 하의 국가이익 차원에서 확대 혹은 조

93) 우승지, “김정일 시대 북한의 국제관계론 이해를 위한 시론,” 『국제정치논총』, 제47권 4호 (2007), pp. 59~61.

94) 중국 국무원은 2005년 6월 “동북 노후 공업기지의 대외개방 확대 실시에 관한 의견”이라는 소위 ‘36호 문건’을 통해 동북3성의 개발을 본격화하고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한 및 동북아 인접국들과 경제교류를 확대하는 방침을 정한다. 김부용·임민경, “중국의 동북진흥전략 10년 평가와 전망,” 『중국 성(省)별 동향 브리핑』, 제4권 7호 (2013), p. 4.

95) 박명규 외, 『노스 코리안 디아스포라: 북한주민의 해외탈북이주와 정착실태』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1), p. 62.

절된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이 또한 한국 정부가 국제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펼쳤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II장의 <표 II-1>을 통해 제시한 대로 경제 위기 이후 북한사회의 변화가 충격기(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조정기(2000년대 초반~2010년대 초반), 전환기(2010년대 초반~현재) 등을 거쳐 진화했다면 이러한 시기에 대응하는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은 소극적 대북관여(1995년~2000년), 적극적 대북관여에서 조건부 대북관여로의 변화(2001년~2010년), 제한적 대북관여(2011년~2017년)로 전환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북한사회의 변화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명확하게 연계시킬 수 없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표 III-1>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 내부의 변화를 보는 시기 구분과 관련하여 해당 시기를 전후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그중에서도 교류협력의 추이와 수준을 요약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한국의 대북정책과 전략의 결과로 나타난 남북교류협력이 주요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북한주민의 의식에는 어떠한 외부 요인으로 작용해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표 III-1> 1990년대 이후 한국의 대북관여 및 교류협력의 변화

	충격기	조정기	전환기
시기구분	1990년대 중반~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초반~ 2010년대 초반	2010년대 초반~ 현재까지
국제환경	탈냉전		
	단극체제	중국의 부상	미중 경쟁체제
남한	소극적 대북관여	적극적 대북관여 → 조건부 대북관여	제한적 대북관여
정부변화	김영삼 정부 (1993~1998)~ 김대중 정부 (1998~2003)	노무현 정부 (2003~2008)~ 이명박 정부 (2008~2013)	박근혜 정부 (2013~2017)~ 문재인 정부 (2017~)

		충격기	조정기	전환기
교류 협력	경제 협력	- 위탁가공무역 확대 - 금강산관광사업 착수	- 개성공단사업 착수 - 남북경협 전면 확대 - 2010년 5·24조치	- 개성공단 폐쇄 - 판문점선언 이후 재개 논의
	사회 문화 교류	- 간헐적, 제한적 교류	- 노무현 정부 민간 분야 교류 증가 - 이명박 정부 이후 축소	- 사실상 중단 - 남북 체육교류 통해 재개 모색
	인도 지원	- 대북 인도적 지원 시작	-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및 축소	- 대북 인도적 지원 축소

출처: 필자 작성.

### (1) 소극적 대북관여와 남북교류협력 추진

노태우 정부 시절이었던 1989년 이후 남북한 간 일반교역이 시작되고 1992년부터 위탁가공교역이 시작되었다.<sup>96)</sup> 남북경제협력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한 것은 김영삼 정부 시기에 들어서면서부터였다. 1994년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로 1995년부터 기업인 방문, 사회문화 분야의 다양한 인적 방문이 이루어졌다. 남북경제협력 초기, 가장 활성화되었던 분야는 대북 식량지원이었다. 한국 정부는 1995년 북한이 식량부족 사태에 직면하자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식량지원을 처음으로 시작하였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남북관계 개선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국내정치적 관점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다.

1995년 6월 대북지원의 과정에서 북한 인공기 계양을 강요받았던 사건과 8월 대북 쌀 수송선의 한국인 선원이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대북지원에 대한 국내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을 통한 식량지원은 1996년

96) 위탁가공교역은 남한의 원부자재를 북한으로 반출하여 이를 가공한 완제품을 다시 반입하는 교역방식으로 1991년 처음 시작하여 1992년부터 생산액이 집계되기 시작하였다.

에도 이루어졌지만 같은 해 4월 북한군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침입, 9월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 등이 발생하자 정부 차원의 무상 지원은 중단되었고 남북교류협력 또한 크게 위축되었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교류협력은 남북관계의 전반적 상황에 맞춰 진행되어야 한다는 ‘정경연계’의 입장에 입각해 있었기에 정치·군사 등의 남북관계 상황, 북한의 대남 적대정책을 고려해 추진될 수밖에 없었다. 북핵문제가 악화될 때마다 남북경제협력은 취소되거나 중단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또한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이었기에 남북한 간 접촉이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1998년 2월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1998년~2003년)가 출범하면서 달라진다. 국민의 정부 출범은 ‘햇볕정책’이라는 대북 관여정책(engagement policy)을 통해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는 대통령 취임연설에서 대북정책 3원칙인 ‘무력도발 불용’, ‘평화적 상호공존’, ‘교류협력 적극추진’을 선언한다.<sup>97)</sup>

김대중 정부가 과거 정부들과 가장 큰 차이를 보였던 점은 대북관여에 대한 강한 의지와 추진의 일관성이었다. 사실 민족분단 현실에서 한국 정부의 공통된 도전이자 딜레마는 남북 간에 평화적 상호공존을 지켜내면서 민족통일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화해협력 정책’으로 명명된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 이니셔티브는 다방면의 접촉과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북한을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민족통일을 현실화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졌으며, 이를 일관되게 추진하여 남북관계를 적대와 대결에서

---

97) 김대중, “국난극복과 재도약의 새 시대를 열시다,” 『김대중 대통령 연설문집 제1권』 (서울: 대통령비서실, 1999), p. 65.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김대중 정부는 ‘정경분리’ 원칙을 표방했고 1998년 4월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남북교류협력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였다.

김대중 정부에게 남북교류협력은 접촉을 위한 ‘기능적 연결’이라는 측면뿐 아니라 변화를 위한 ‘전략적 수단’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sup>98)</sup> 남북교류협력은 ‘북한의 대남정책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었고, 호혜적인 경제이익을 통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이라는 목표를 이루는 수단’이었다.<sup>99)</sup> 즉 교류협력의 확대 및 심화는 햇볕정책 하의 인적, 물적 교류의 ‘과정’을 수반함과 동시에 햇볕정책의 궁극적 목적, 즉 ‘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을 이루어 내고 그 과정을 용의하게 만드는 전략적 ‘수단’이 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교역, 투자, 원조를 통해 경제적 상호작용의 폭과 깊이를 확대, 심화시켜 나감으로 남북이 상호의존관계를 형성해 나간다면, 북한이 경제상황을 개선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북한 내 스스로의 변화를 이끄는 내부적 동력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햇볕정책은 교류협력을 통한 접촉의 확대가 남북 간 신뢰회복과 긴장완화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확산효과(spill-over effect)’에 근거하고 있다. 다방면의 교류협력 활성화는 남북한 간 상호의존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억제하고 북한의 무력도발 위협을 근원적으로 약화시킴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촉진하는 구체적 방안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안보와 화해협력의 병행 추진’ 혹은 ‘북해해결과 남북관계 병행론’ 입장에서 남북관계

---

98) 구영록, 『한국과 햇볕정책: 기능주의와 남북한 관계』 (서울: 법문사, 2000), p. 164; 김학노, “평화통합전략으로서의 햇볕정책,” 『한국정치학회보』, 제39권 5호 (2005), pp. 237~348.

99) 통일부, 『국민의 정부 5년: 평화와 협력의 실천』 (서울: 통일부, 2003), pp. 5~6.

개선이 핵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교류협력과 정치·군사적 문제 해결을 병행하되 실현 가능한 경제, 사회, 문화 등 비군사 분야의 교류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상호 간 접촉을 확대함으로써 동질성을 회복하도록 하며, 정치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로 이어지게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북한은 1990년대 말 햇볕정책의 의도와 목적에 대해 의심을 갖고 남한의 인도적 지원 및 경제교류 확대 제안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1998년 11월 금강산관광을 시작하면서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과 그 결과로 합의한 ‘6·15남북공동선언’은 남북한의 교류협력이 획기적으로 진전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sup>100)</sup> 이는 한국의 대북관여가 본격화되는 계기를 마련했을 뿐 아니라 북한주민들에게 남한과의 접촉면이 확대되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 (2) 적극적 대북관여에서 조건부 대북관여로

남북한의 접촉과 교류의 측면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초반은 매우 역동적인 시기이다. 남북정상회담이 만든 남북관계의 발전 및 교류협력의 동력이 10년도 채 안 되어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교류협력의 전면적 확대에서 제한적 축소로의 급격한 변화에는 한국의 대북 전략과 정책이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2003년 2월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을 통일·외교·안보 정책의 기본구상으로 제시하면서 국민의 정부의 화해협력정책을 계승함과 동시에 발전을 모색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와 마찬가지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및 2000년 남북공동선언에

100) 김연철, 『70년의 대화』 (파주: 창비, 2018), p. 241.

근거,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로 인식하였다. 북한을 정치적 실체로 인정하며, 대화와 협력의 파트너로 간주하였고, 북한의 붕괴는 불가능하며, 흡수통일이나 무력통일 추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동일하게 갖고 있었다.<sup>101)</sup> 또한 보다 많은 접촉과 교류를 통해 남북이 각자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평화공존하며 서로 오고 가고 돕고 나누는 사실상의 통일을 실현한다는 정책 목표도 동일하게 공유되었다.<sup>102)</sup>

평화변영정책은 다른 한편으로 한반도의 평화증진 및 민족변영을 넘어 동북아의 공동변영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화해협력정책보다 진화된 측면이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이 냉전체제의 산물’이며 한반도가 분단의 굴레를 벗지 못하는 것은 동북아의 냉전체제가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sup>103)</sup> 이에 한반도 문제는 동북아시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풀릴 수 있으며 역으로 한반도 문제가 풀려야 동북아시아 문제도 풀릴 수 있다고 보았다.<sup>104)</sup> 따라서 노무현 정부의 평화변영정책은 한반도의 변영을 실천함과 동시에 동북아시아 이웃 국가들의 공동변영도 함께 추구하고자 했다.<sup>105)</sup>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와 마찬가지로 남북관계와 북한 핵문제 해결을 병행해서 진전시켜 나간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교류협력이 진척을 보이자 2003년 8월 투자보

101)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12월 2일 한영정상회담에서 “북한 정권은 무력으로 침공하기 전에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부의 저항세력이 조직화되어 있지도 않습니다.”라고 언급하였다. 국정홍보처, 『참여정부 국정운영 백서 5: 통일·외교·안보』(서울: 국정홍보처, 2008), p. 21.

102) 국가안전보장회의 편, 『평화변영과 국가안보: 참여정부의 안보정책 구상』(서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2004), p. 49.

103) 위의 책, p. 21.

104) 위의 책, p. 22.

105) 통일부, “참여정부의 평화변영정책,”(통일부 통일정책실, 2003.12.), p. 9.

장, 이중과세방지, 상사중재, 청산결제를 포함하는 ‘4대 경협합의서’를 발효하고, 2005년 10월에는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를 개소함으로써 남북경협이 제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2005년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및 2006년 미사일 발사와 1차 핵실험은 남북한의 교류협력을 구조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결정적 제약요인이 되었다. 북한 핵위협이 가중될수록 포용정책에 대한 지지와 반대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고 200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교류협력의 추동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교류협력 확대와 관련해 두 가지 점이 주목된다. 우선 참여정부는 대북정책에서 남북경제협력 확대를 중시하였다.<sup>106)</sup> 햇볕정책의 기본 가정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실질적으로 협력 가능한 비정치적 영역의 협력은 그 과정에서 합의가 어려운 정치·군사 영역에서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간주하였다.<sup>107)</sup> (신)기능주의 방식에 근거하여 경제적 교류와 협력이 정치·군사 영역의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로 이어지는 확산효과를 기대하고 경제적 측면과 안보적 측면의 유기적 연계 혹은 선순환 구조를 모색하였다. 이론적 맥락에서 이는 자본주의(시장) 평화론과 맞닿아있다.<sup>108)</sup>

다음으로 정경분리와 유연한 상호주의는 김대중 정부 하반기와 노무현 정부 기간 남북 간 보다 많은 접촉과 대화, 협력이 실현되는

106) 허문영·오일환·정지웅, 『평화변영정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서울: 통일연구원, 2007), p. 23.

107) 국가안전보장회의 편, 『평화변영과 국가안보: 참여정부의 안보정책 구상』, p. 23.

108) ‘민주국가끼리는 서로 싸우지 않는다’는 민주평화론의 명제를 바탕으로 자본주의 평화론은 개방적인 시장과 경제적 이익 추구를 바탕으로 한 자유시장이 국가 간 갈등과 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이끈다는 주장을 근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조민은 남북교류협력 확대와 발전을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이론적 배경으로 ‘평화경제론’을 제시한다. 조민, “평화경제론: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이론적 틀,”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pp. 183~206.

데 중요한 원칙으로 작동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정치·군사적 문제와 인도적·경제적 문제를 연계하기보다 분리하거나 병행하는 전략을 추구하였다. 즉 북한 핵문제와 군사적 도발과 같은 정치·안보 현안이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이나 경제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며, 거시적으로는 민간의 경제나 사회문화 활동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고자 했다.<sup>109)</sup> 또한 교류협력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맞대응 방식(tit-for-tat)’의 교환은 남북한 정부 대 정부의 협상에서는 적합지 않다고 판단하였다.<sup>110)</sup> 따라서 오랜 분단과 대립으로 인한 낮은 수준의 신뢰와 깊은 적대감을 고려할 때 엄격하고(strict), 세부적인(specific) 상호주의보다는 유연하고(diffuse) 포괄적인(comprehensive) 상호주의가 더 적절하다고 보았다.<sup>111)</sup>

이러한 입장과 전략은 한국 정부의 경제적·사회문화적 교류협력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했을 뿐 아니라 남북 간의 신뢰와 상호의존의 수준을 높일 수 있게 만들었다. 실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이른바 ‘퍼주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확대되었고, 민간 중심의 사회문화교류도 현저히 증가되었다. 특히 2004년 시작된 개성공단 사업은 2006년 북한의 대포동 2호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같은 해 10월의 1차 핵실험으로 북핵문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지속되었고 결과적으로 남북 간 경제적 상호의존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

109)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예정된 비료 제공을 일시적으로 유보하고 10월 1차 핵실험 이후 쌀 지원을 중단한 적이 있으나 2007년 2·13합의 이후 쌀과 비료 지원은 재개되었다.

110) 김대중 정부 초반에도 비교적 엄격한 상호성을 강조하며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지만 후반기에는 상호주의를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111)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한 관계의 조건과 처지가 다르고 생각도 다르기에 엄격한 상호주의 원칙을 지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장기간의 목표를 갖고 신뢰를 확보하며 남북대화의 큰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실용적으로 접근할 것을 강조하였다. 노무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50차 상임위원회 연설,” 『노무현 대통령 연설문집 제4권』 (서울: 대통령비서실, 2007), pp. 479~480.

을 하였다.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은 교류협력 중심의 남북관계 문제를 넘어 군사 및 평화체제 문제까지 논의하면서 이전 정상회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합의사항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sup>112)</sup>

경제협력사업, 대북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교류 등 정부와 민간을 통한 남북한의 교류협력은 이명박 정부 시기 중대한 변화를 겪게 된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2008년부터 급격히 감소하였고 금강산관광은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인해 이명박 정부 취임 5개월 만인 2008년 7월에 중단되었다. 남북한 인적 교류, 사회문화협력사업 역시 2010년대 들면서 급격히 위축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 및 남북관계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상황 인식과 대북정책 기조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이뤄낸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임 정부가 목표로 했던 사실상의 통일 상태를 달성하지 못했고 지난 10년간의 교류협력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실패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sup>113)</sup> 즉 포용정책 하에서 남북교류협력이 확대되고 북한의 대남경제의존이 증가했지만, 남북한의 교류협력은 호혜적이지 못했고 대북지원에도 북한의 식량난은 해소되지 않았으며 북한 핵개발로 인한 군사적 긴장과 안보위기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것이다.

남북관계에 새로운 방향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하고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상생공영정책’을 추진하고

---

112) 김연철, “한반도 평화체제와 경제협력: 쟁점과 과제,” 『역사비평』, 제81권 (2007), pp. 16~33.

113) 통일부,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은 이렇습니다,” 『대북정책 설명자료』 (2008.8.22.), <[http://www.unikorea.go.kr/books/archive/archive/?boardId=bbs\\_0000000000000043&mode=view&cntId=19675&category=&pageIdx=9](http://www.unikorea.go.kr/books/archive/archive/?boardId=bbs_0000000000000043&mode=view&cntId=19675&category=&pageIdx=9)> (검색일: 2018.9.5.).

‘비핵·개방·3000 구상’을 실천 방안으로 제시하였다.<sup>114)</sup> 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며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정상 국가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북한의 개방을 후원하여,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GNI)이 10년 내에 3천 달러에 도달할 수 있도록 북한의 경제성장을 효율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sup>115)</sup>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 및 핵보유가 과거 10년간의 햇볕정책이 막지 못한 과오라 보고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의 공동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해야 한다는 ‘선(先)핵폐기론’을 주장했다.<sup>116)</sup>

북핵 불용과 북한의 비핵화 원칙을 확고히 고수했다는 점은 사실상 노무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은 북핵문제 해결을 당국 간 대화, 남북경제협력, 대북 인도적 지원 등과 병행하여 추진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에 비해 이명박 정부의 상생공영정책은 북핵문제의 해결 없이는 남북교류협력이 확대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sup>117)</sup>

### (3) 제한적 대북관여와 남북교류협력 단절

2010년 천안함 사태 이후 한국 정부가 실시한 ‘5·24조치’에 따라

114)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비핵·개방·3000 구상’으로 제시된 구상이었으나 2008년 통일부 업무보고 이후 7월 11일 18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우리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남과 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과 공영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라고 밝힘으로써 ‘상생공영정책’으로 공식화된다.

115) 여인곤 외,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총괄보고서)』 (서울: 통일연구원, 2009), p. 6.

116) 박중철 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추진환경과 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09), pp. 7, 15.

117) 통일부, “대북정책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2주년 대북정책 설명자료.” (통일부, 2010.2.), p. 13.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교역이 전면 중단되면서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교역이 중단되었다.<sup>118)</sup> 지난 정부의 전면적 대북관여와 남북한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해 열었던 ‘접촉의 시대’가 사실상 종결된 것이다.<sup>119)</sup> 5·24조치는 ‘북한의 어뢰공격’이라는 군사적 도발에 대해 한국 정부가 북한 당국을 징벌하기 위한 제재 수단이었지만 이러한 결정에는 남북관계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상황 인식과 대북정책 기조가 바탕에 깔려있었다.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하여 상생공영정책에서 주목할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명박 정부는 지금까지 남한이 제공한 경제적 이익과 자원이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기보다는 북한이 개혁개방을 추진하지 않고도 정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였다.<sup>120)</sup> 즉, 대북 인도적 지원,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을 통해 유입된 경제적 자원이 북한 체제를 통제하기 위한 정치자금을 획득하는 통로로 활용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대북정책 수단으로서 당근과 채찍, 즉 지원과 제재를 함께 사용하였다. 북한의 행동에 상응하는 ‘원칙 있는 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북한이 비핵화와 개방에 나설 경우 경제지원을 약속하지만, 도발과 군사적 위협을 지속하는 경우에는 경제제재로 대응하고자 했다.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에 대해 북한의 책임을 묻는 5·24조치가 대표적이었다.

셋째, 정경연계 원칙과 함께 엄격한 상호주의를 고수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한이 먼저 완전한 비핵화에 나

---

118) 5·24조치는 남북교역을 중단하고, 남한주민의 방북 및 대북 신규투자를 금지하며, 대북지원사업을 원칙적으로 보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119) 김연철, 『70년의 대화』, p. 272.

120) 서재진, 『남북 상생·공영을 위한 비핵·개방·3000 정책의 이론적 체계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8), p. 18.

서야만 북한의 경제발전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sup>121)</sup>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선(先)핵폐기론에 근거한 ‘조건부 관여’는 정치적 대화 중단, 남북교역 및 민간교류 단절, 인도적 지원 축소로 이어졌고 남북관계 역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오히려 북한이 2012년 4월과 12월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은 더욱 높아졌다. 5·24조치를 통한 남북교역 중단 및 정부와 민간 차원의 북한과의 접촉 단절은 그동안 축적되었던 남북교류협력의 토대를 약화시키며 남북관계 개선의 장애물로 장기간의 남북관계를 대립 상황으로 몰아갔다.

2013년 2월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남북 간의 협력과 갈등이 반복되는 원인을 ‘신뢰의 결여’로 간주하고 남북의 대화, 교류, 협력이 신뢰에 기초할 때 북한의 진정한 변화와 남북관계의 발전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sup>122)</sup> 남북관계의 근본적 문제는 압박과 협상, 강경과 온건 등 정책 수단 선택의 문제가 아닌 남북 간에 신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라는 것이다.<sup>123)</sup>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형성에 입각하여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새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제시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화해협력, 평화번영정책의 유화적 관여와 상생공영정책의 원칙적 관여의 조합과 균형을 찾고자 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정치, 군사 분야 및 경제, 인도,

---

121) 여인곤 외,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총괄보고서)』, p. 22.

122) 통일부, 『2014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14), p. 12; 박근혜 대통령은 2011년 당 대표 시절 *Foreign Affairs*에 기고한 글에서 신뢰의 부족이 남북의 진정한 화해의 시도를 약화시켜왔다고 주장하였다. Geun-hye Park, “A New Kind of Korea: Building Trust Between Seoul and Pyongyang,” *Foreign Affairs*, vol. 90, no. 5 (September/October 2011), p. 14.

123) 최진욱 외,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13), p. ix.

사회문화 분야의 협력을 통해 신뢰구축을 모색하되 이러한 노력이 국민적 동의에 기반하고 상식과 국제규범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서 주목할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류협력은 남북 간 신뢰 및 북한과 주변국의 신뢰를 증진하는 수단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교류협력을 민족적 화해나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목표보다 남북 간 ‘신뢰형성’을 위해 추진한 것은 사실이나 기능주의적 접근이 전제되어 있는 것은 이전 정부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sup>124)</sup>

둘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안보 차원의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협력의 선순환을 모색하고자 했다. 북핵불용 원칙을 천명하고 북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점, 북한 핵포기를 위한 단계적 접근은 이전 정부들의 기초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규범과 의무 준수를 다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이를 적극 견인하고 지원하겠다고 한 점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조건부 관여와 보다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취약계층의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및 경제협력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 진척과 연계되었다.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 및 핵문제와 무관하게 지원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sup>125)</sup> 다만 경제협력의 경우 남북 간의 신뢰

---

124) 개성공단 국제화, 남·북·러 3각 협력방안,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그린 데탕트’, ‘DMZ 세계평화공원’ 등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주요 세부 과제들이 경제협력사업임을 감안 할 때 남북경협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 목표를 이루는 실질적 수단이었다. 남북협력과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해 동북아 역내 협력을 증진을 도모하겠다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또한 국제사회의 관여를 통한 기능주의 접근에 기반하고 있다.

125) 2013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은 미 상하원 연설에서 북핵불용의 원칙과 함께 인도적 지원은 핵문제와 연계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밝힌다; “The Republic of Korea will never accept a nuclear-armed North Korea. Pyongyang’s provocations will be met decisively. At the same time, I will not link humanitarian aid provided to the North Korean people, such as infants and young children,

형성 및 북한의 핵문제 진전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했다.

중요한 점은 2010년대 들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남북한 교류를 중단시키고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는 북핵문제 진전과 남북 간 신뢰 수준에 따라 사회문화교류, 경제협력을 단계별로 확대해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못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남북 간 신뢰형성의 구체적인 전략과 수단을 제시하지 못했고 남북관계의 불안정과 경색국면은 개선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중반, 대북 정책 아젠다로 등장했던 ‘통일대박론’<sup>126)</sup>은 ‘제도 통일’ 또는 ‘흡수 통일’ 시도라는 북한의 반발과 불신을 초래함으로써 남북관계의 긴장국면은 지속되었다. 결국 2016년 1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박근혜 정부가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은 사실상 제로 상태가 되었다.

## 2. 남북교류협력과 정보 유통에 따른 북한의 변화

### 가. 남북교류협력과 북한의 주민의식 변화

한국의 대북정책과 전략의 변화는 남북교류협력의 성격과 수준 그리고 범위를 결정하였고 이는 북한주민들의 의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한국 정부와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 사회문화교류,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북한 당국과 주민과의 실질적인 접촉을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하에서

---

to the political situation,” 박근혜 대통령 미 의회연설 (2013.5.8., Washington D.C.).

126)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월 6일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입니다”라고 밝히면서 남북통일은 한반도 경제가 대도약할 기회라고 주장하였다.

는 1절에서 살펴본 대로 대북 인도적 지원이 시작된 1995년부터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진 2000년까지를 ‘소극적 대북관여’ 시기로, 2001년부터 5·24조치가 시행된 2010년까지를 ‘적극적 대북관여에서 조건부 대북관여로 전환한’ 시기로,<sup>127)</sup> 2011년부터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인 2017년까지를 ‘제한적 대북관여’ 시기로 구분하여 경제협력, 사회문화교류, 대북지원의 주요 변화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경제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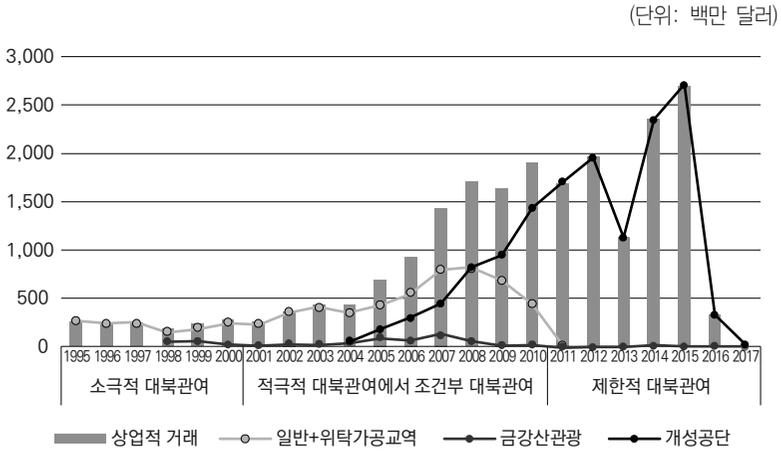
남북한 간 경제 분야의 교류협력은 일반교역, 위탁가공교역의 단순교역과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사업과 같은 직접투자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sup>128)</sup>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교역의 경우 실질적인 남북한 간 접촉 없이 농림수산물 등 거래로 인한 단순 대금결제나 원부자재, 설비, 가공물품 등의 반·출입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남북한 교역당사자 간의 직접교역이라는 점과 교역을 통한 자본주의 거래에 대한 이해 제고, 남한 자재, 상품 및 관련 정보의 확대를 제한적으로나마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상업적인 거래에서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의 반·출입을 합한 교역액과 개성공단 교역액의 비중이 각각 47.2%로 동일해지는 2008년 이전까지, 즉 ‘소극적 대북관여’ 시기와 ‘적극적 대북관여’ 시기까지 일반, 위탁가공교역은 남북교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었다.

127) 이 시기는 2001년~2007년까지를 ‘적극적 대북관여’ 시기로, 2008년~2010년까지를 ‘조건부 대북관여’ 시기로 세분화할 수 있다.

128) 남북경협은 주체별로 크게는 정부 당국과 기업 및 시민단체 중심의 민간으로 나눌 수 있으며 성격별로는 비상업적 성격을 갖는 대북지원, 사회문화협력, 경수로 사업, 중유지원, 에너지 지원 등과 상업적 성격을 갖는 민간 중심의 남북경협으로 분류할 수 있다. 대북지원의 경우 남북한 당국이 지원을 목적으로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정부지원과 남북한 당국 이외의 민간단체 또는 기관 등이 주체가 되는 민간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민간의 남북경협은 일반교역, 위탁가공교역, 그리고 경제협력사업인 직접투자를 포함한다. 대표적인 직접투자는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이다.

〈그림 III-1〉 상업적 거래 유형별 반출입 추이, 1995~2017



출처: 저자 작성.

1998년 11월 시작된 금강산관광사업은 민간 주도로 시작된 경제 협력사업으로 남한주민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한을 직접 여행함으로써 북한주민과 접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98년 11만 명으로 시작된 관광객은 2005년 30만 명으로 증가했고 2008년 7월 관광이 중단되기까지 약 9년 8개월 동안 관광객은 총 195만 6천명에 달했다.

〈표 III-2〉 연도별 금강산 관광객 추이

(단위: 천 명)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관광객	11	147	212	59	87	78	273	302	238	348	201
누적	11	158	370	429	516	594	867	1,169	1,407	1,755	1,956

출처: 통일부.

〈그림 III-1〉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체 남북교역 및 상업적 거래에서 금강산관광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았다. 그렇지

만 금강산관광사업은 2000년대 중후반 단순교역과 소규모 위탁가공교역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남북교역을 관광 및 서비스사업을 통한 민간의 본격적인 투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남북 경제교류의 형태를 확장한 측면이 있다. 시기적으로 볼 때 금강산관광이 시작된 것은 김대중 정부 초기인 1998년이었지만 사업이 안정화된 것은 2001년이며 사업이 활성화되는 것은 육로관광이 시작된 2004년부터이다. 이점에서 금강산관광사업은 ‘적극적 대북관여’ 시기의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에 중요한 밑거름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정치·군사적으로는 민간기업의 사업이 정부 당국 간 채널 유지 및 접촉 확대로 이어졌으며, 남북한 간 긴장완화에 기여하고, 북한이 장전항을 개방하고 북한의 동해 함대를 후방으로 약 100km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sup>129)</sup> 무엇보다 금강산관광은 남북한 주민들 간의 접촉점을 마련하여 민족 동질성 회복의 기회를 조성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sup>130)</sup> 실제 금강산 지역은 이후 이산가족 상봉, 남북당국회담, 지자체와 민간단체들의 교류 등 다양한 접촉과 교류의 장으로도 활용되었다.<sup>131)</sup> 금강산관광사업을 위해 남한의 관광객이 육로, 해로 등 휴전선을 통과하는 문제로 남북 정치군사 회담이 열렸으며 금강산 지역을 민간이 참여하는 사회문화교류의 장으로 제공한 점은 경제협력의 확산효과를 제한적으로나마 보여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남북한주민의 접촉과 의식의 변화 관점에서는 한계도 존재한다. 금강산관광은 남한주민이 북한의 땅을 밟고 북한주민들과

129) 임동원, 『피스메이커』 (서울: 중앙북스, 2008), p. 370.

130) 이해정, “금강산관광 사업의 추진 과정과 향후과제,” 『금강산 관광사업과 남북교류의 새로운 모색』 (강원일보·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주최 2017 평화통일 국제학술 심포지엄, 2017.11.21.), p. 71.

131) 이승렬, “금강산 관광사업의 정치군사적 평가와 과제,” 『금강산 관광사업과 남북교류의 새로운 모색』, pp. 99~100.

접촉할 수 있는 공식적 기회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관광객들이 북한의 군인, 안내원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엄격히 차단되었다. 금강산관광은 남북경협 시발점이자 정경분리 차원의 협력 모델로 분단 이후 최초로 대규모 인적 교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남북 간 관계 개선 및 긴장완화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관광객들이 북한주민과 대면하는 것이 제한적이었던 상황들은 접촉면 확대를 통한 북한주민 의식 변화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2004년 6월 시범단지 첫 입주계약을 통해 시작된 개성공단사업은 2016년 2월 사업이 전면 중단되기까지 남북경협의 대표적인 사례였다. 개성공단은 민간 차원의 직접투자로 시작된 사업이지만 당국 차원의 대북정책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고 ‘경제를 통한 평화’라는 관점에서 지난 ‘적극적 대북관여 및 조건부 대북관여’ 시기 내내 한국 정부의 대북관여의 핵심 전략이기도 하였다.

개성공단의 성장은 개성공단의 입주기업, 생산액, 근로자의 증가로 나타났다. 2005년 18개에 불과했던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2015년 125개로 늘어났다. 2004년 12월 첫 제품 생산을 시작으로 2005년 1,491만 달러를 기록했던 생산액은 2010년 누적생산액 기준 10억 달러를 넘었고 2015년에는 30억 달러를 초과하며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개성공단의 확장과 발전은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 수의 증가로 나타나 2005년 6,013명에 불과했던 북한 근로자는 2015년 5만 4,988명으로 9.1배나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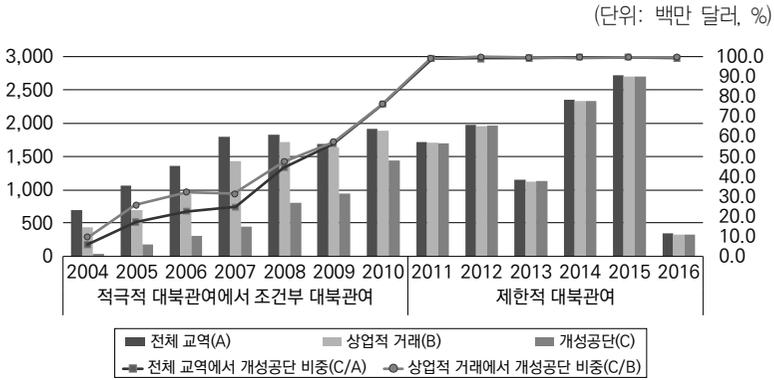
〈표 III-3〉 개성공단 근로자와 생산액 추이, 2005~2015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북한 근로자 (명)	6,013	11,160	22,538	38,931	42,561	46,284	49,866	53,448	52,329	53,947	54,988
남한 근로자 (명)	507	791	785	1,055	935	804	776	786	757	815	820
생산액 (만 달러)	1,491	7,373	18,478	25,142	25,648	32,332	40,185	46,950	22,378	46,997	56,330
누적 생산액 (만 달러)	1,491	8,864	27,342	52,484	78,131	110,463	150,648	197,599	219,977	266,974	323,304
가동 기업수 (개)	18	30	66	93	117	121	123	123	123	125	125

출처: 통일부 주요사업통계, 〈<http://unikorea.go.kr/unikorea/business/statistics>〉, (검색일: 2018. 9.15.).

개성공단의 양적인 성장은 남북 경제교류의 형태를 전환시켰다. 2004년 개성공단이 남북교역과 상업적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0%, 9.6%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에는 56.0%, 57.3%로 절반을 초과하게 되고, 2010년 5·24조치로 인해 2011년에는 그 비중이 각각 99.1%, 99.7%까지 이른다. 즉 〈그림 III-2〉에서 보듯이 개성공단은 2008년을 기점으로 남북교역에서 가장 중요한 형태가 되었으며 2011년부터는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1990년대 중반 단순교역 중심으로 진행된 남북 경제교류가 ‘적극적 대북관여 및 조건부 대북관여’ 시기로 오면서 개성공단 중심으로 구조적인 전환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주목할 점은 개성공단이 가져온 경제적 효과가 사회문화적 효과를 파생시킨 점이다.

〈그림 Ⅲ-2〉 개성공단 교역 및 비중 추이, 2004~2016



출처: 저자 작성

개성공단은 지난 11년간 남북한 사람들의 ‘접촉지대’로서 역할을 하였다.<sup>132)</sup> 우선 5만 명이 넘는 북한 근로자가 한국 기업의 관리자 및 근로자들과 하루 8시간 이상 함께 생활함으로써 남한사회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sup>133)</sup> 북한 근로자가 남한 근로자 및 상주 인력들과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북측의 엄격한 감시와 규율로 힘든 것이 사실이었다.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북한 근로자는 공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남한 기업인에게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북측 근로자와 남측 관리자 간에 업무적인 대화 외에도 일상적인 대화는 가능해졌다.<sup>134)</sup>

접촉지대로서 개성공단이 가져온 중요한 영향은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관리자, 근로자들에게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지식과 이해

132) 양문수·이우영·윤철기, “개성공단에서의 남북한 접촉이 북한 근로자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남한 주민에 대한 북한 근로자의 태도 변화를 중심으로,” p. 131.

133) 안드레이 란코프, “개성공단 사업의 정치·경제적 효과와 중요성,” 『통일경제』, 겨울호 (2008), p. 12.

134) 정은미,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정체성 인식과 행동 양식 메커니즘,” 『북한연구학회보』, 제18권 2호 (2014), p. 132.

를 제공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의식 변화에 기여한 점이다. 북한 근로자들은 남한 근로자들의 외모, 옷차림, 태도와 행동 등을 보게 되었고, 현대화되고 쾌적한 작업 환경, 공단의 규모, 공단 관리 시스템, 선진화된 노동 문화를 통해 남한사회의 발전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었다. 이 점에서 개성공단은 북한 당국자와 북한 관리자 및 근로자들에게 남한의 경제력, 기술력에 대한 호감을 갖게 하며 시장경제 방식을 직접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게 하는 공간이었다.<sup>135)</sup> 북한 근로자들의 개성공단에서의 적응 과정 및 남한 기업인들과 근로자들이 ‘북한 근로자들의 마음을 얻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계 의식 완화, 상호 공감대 및 신뢰 형성은 북한 근로자에게 새로운 자극과 심리적 변화 요인이 될 수 있었다. 특히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 성취감, 물질적 혜택이 근로자 개인 및 가족뿐 아닌 개성에 거주하는 북한주민들에게 미치는 파급력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sup>136)</sup>

## (2) 사회문화교류

남북 사회문화교류의 목적은 다양한 분야의 행위 주체들에 의한 접촉과 교류를 통해 남북한의 이질화를 해소하고 문화적 동질성을 높여 사회문화공동체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sup>137)</sup> 사회문화교류에는 정부의 관련 기관뿐 아니라 민간부분도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교

135) 양문수, “한반도 평화 회복을 위한 국가전략 - 개성공단 사업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19권 2호 (2013), p.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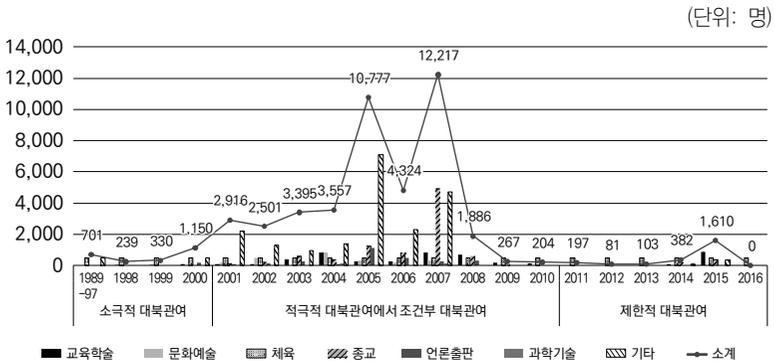
136) 한 탈북민은 5만 명이 넘는 북한 근로자가 개성공단을 통해 남한 기업을 직접 체험하게 된 것은 “충 한 방 쏘지 않고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인식시킨 계기였을 뿐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북한 전역에 전파시킨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하였다. 북한이탈주민 K 인터뷰(2018.7.24., 통일연구원).

137) 박종철·허문영·김보근, 『남북연합 형성 운영의 거버넌스』 (서울: 통일연구원, 2008), pp. 72~80.

류 분야는 교육학술, 문화예술, 종교, 체육, 언론출판, 과학기술 분야 등 점차 다양하게 확대되어왔다.

1990년대부터 종교인, 언론인들의 개별 방북이 허가되면서 남북 간 접촉이 이루어졌지만, 사회문화교류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었다. 초기 학술, 종교 분야에서 간헐적,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던 접촉이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교류의 범주가 확대되고 방북자 수도 급격히 증가하게 된 것이다. 교류의 형태에 있어서도 2000년 이전에는 남북한이 아닌 제3국에서 행사나 접촉이 주로 이루어졌다면, 2000년대 들어 남한과 북한에서 직접교류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분야도 교육, 학술, 체육, 종교, 언론출판, 과학기술 등으로 점차 다양해졌다. 참여 주체도 초기 민간 주도에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협의회, 시민단체 등으로 확대된 점도 주목되는 변화이다. <그림 Ⅲ-3>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문화교류는 2001년을 기점으로 ‘적극적 대북관여’ 시기에 대폭 증가하였지만, 이명박 정부 시작과 함께 급격히 축소되어 ‘제한적 대북관여’ 시기에는 크게 침체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Ⅲ-3> 사회문화 분야 방북인원 추이



출처: 저자 작성.

사회문화교류는 남북한주민 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만들어내어 상호 간의 체제 및 주민들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식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자본주의 문화 유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고 교류와 접촉이 점차 확대될수록 북한주민들에게 사회 심리적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커지게 된다.<sup>138)</sup> 2000년대 들어 활발히 진행되었던 남북공동행사,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접촉은 남한문화에 대한 이질감 및 거부감을 일정 부분 완화시키며 북한 내 ‘한류’ 확산에도 심리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sup>139)</sup> 또한 사회문화교류는 민간 주도, 민관 분리 또는 민관협력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 당국 간 관계와는 별도로 북한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다층적 접근 경로이자 수단이 된 점도 유의미하다.<sup>140)</sup>

그렇지만 사회문화교류는 남북관계의 전반적 상황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구조에 놓여있으며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도 연계되면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지 못하였다. 또한 ‘적극적 대북관여’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이 확대되면서 사회문화교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나 5·24조치 이후인 ‘제한적 대북관여’ 시기에는 사회문화교류가 급속히 위축되었다. 즉 사회문화교류는 민간 중심의 비정치, 비경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군사적 위기에 예속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북한주민 의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으로서는 한계를 보였다.

한편, 사회문화교류 이행 주체의 내부적 한계도 존재한다. 8·15, 6·15 등 남북공동행사를 민간 주도 하에 연례적으로 추진한 것은

138) 이우영·손기웅·임순희,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1), p. 2.

139) 이승환 외, 『민간 교류 경험을 통해서 본 남북관계 발전 전략: 남북교류·협력 발전을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부, 2017), p. 65.

140) 위의 책, p. 66.

중요한 의미가 있으나 북한과의 합의 과정에서 이념적·정치적 논란이 제기되었고,<sup>141)</sup> 단발적 접촉이라는 한계도 드러났다. 또한 사회문화 부분의 다양한 교류가 쌍방향으로 발전해 가기보다는 남측의 방북 행사 위주가 많았다. 외형적 성과와 인적 교류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 구조와 단기 행사 위주의 교류형태는 사회문화협력의 궁극적인 목표인 상호 간의 신뢰 증진, 문화적 동질성 회복을 통해 북한주민 의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는 일정한 한계를 보여주었다.

### (3) 인도적 지원

대북 인도적 지원<sup>142)</sup>은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5년 6월 남북 당국 간 회담을 통해 대북 식량지원에 합의하고 쌀 15만 톤을 무상으로 지원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이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급격히 확대된 것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부터였다. 북한이 지속적인 경제난과 만성적인 식량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식량과 비료지원을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1998년 3월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를 통해 국내 민간단체 등 비정부기구(NGO)를 통한 인도적 지원에 따르는 규제를 완화하고, 1999년 2월 ‘민간 차원 대북지원 창구 다원화 조치’로 민간단체의 독자적인 대북지원을 허용하였다.<sup>143)</sup> 즉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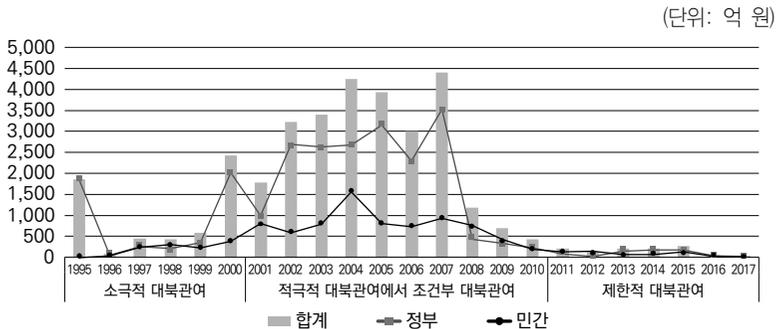
141) 이는 남북공동행사를 주도한 6·15남측위원회와 북측위원회의 구성, 목표, 상호 인식의 차이에서도 기인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승환 외, 『민간 교류 경험을 통해서 본 남북관계 발전 전략: 남북교류·협력 발전을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 pp. 126~129.

142)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지원 주체로 볼 때 정부 차원과 민간 차원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정부 차원의 원조는 크게 무상지원과 식량차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 차원의 무상지원은 다시 정부 직접지원, 민간단체를 통한 기금 지원,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정부 차원의 직접지원은 식량, 비료, 그리고 긴급구호 지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부와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 확대에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 기조 속에서 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민간의 적극적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1995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 총액은 3조 2,870억 원이며 그 가운데 정부 차원으로는 2조 3,898억 원, 민간 차원으로는 8,972억 원이 지원되었다. 시기별로 볼 때 1995년~2000년까지 5,726억 원, 2001년~2007년까지 2조 3,894억 원, 2008년~2010년까지 2,240억 원, 2011년~2017년까지 1,010억 원으로 '적극적 대북관여' 시기 지원금액이 전체의 약 73%를 차지할 정도로 대북 인도적 지원이 김대중 정부 후반과 노무현 정부 때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 증가는 식량 차관을 통한 지원했던 것과 관계가 있으며, 민간 차원의 교류 증가는 정부가 2000년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민간사업을 지원한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정부와 민간을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모두 2007년을 정점으로 축소된다.

〈그림 Ⅲ-4〉 대북 인도적 지원 추이



출처: 저자 작성.

143) 이금순, 『대북인도적 지원의 영향력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3), pp. 47~48.

〈표 Ⅲ-4〉 시기별 대북 인도적 지원

(단위: 억 원, %)

	지원액	비중
소극적 대북관여	5,726	17.4
적극적 대북관여	23,894	72.7
조건부 대북관여	2,240	6.8
제한적 대북관여	1,010	3.1
합계	32,870	100.0

출처: 저자 작성.

한국의 대규모 인도적 지원은 북한의 식량부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체제 존속력에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sup>144)</sup> 외부세계에 대한 북한 당국 및 주민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우선 식량지원을 포함한 인도적 문제는 일정 기간 남북 당국 간 고위급 및 실무급 회담의 대화 의제가 되어왔다. 노동당 통일전선부, 조국통일평화위원회 서기국,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등 북한 내에서 대남사업을 담당하는 기관과의 지속적인 접촉은 북한 고위층의 대남 인식 변화에 기여한 바가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대북 인도적 지원은 남북관계 개선 및 북한 행동 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적 기대와 목적이 결부되어 추진되었다.<sup>145)</sup> 정부는 비료지원과 이산가족 문제를 연계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견지했었고 비료 및 식량지원을 정치 및 군사회담의 성사조건으로 활용하였다.<sup>146)</sup> 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이 당국 간 회담 개최 여부 등과 연계된 부분은 인도적 지원의 정치화 논란을 일으킨 측면도 있지만 북한 당국을 남북대화로 유도하며 접촉의 확대 및 상호 간의 이해를

144) 김정수, “인도적 대북지원과 북한체제의 존속력에 미친 영향,” 『통일정책연구』, 제 19권 1호 (2009), pp. 231~233.

145) 통일부, 『2000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00), p. 6.

146) 임동원, 『피스메이커』, p. 361.

증진시키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의 대규모 지원 및 북한 내 인도적 활동의 증가는 북한주민들의 남한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 대북지원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대북지원 물품이 남한에서 온 것인지 잘 모르는 주민도 있었고 북한 당국이 남한의 지원을 왜곡하여 주민들에게 알리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지만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들이 북한에 거주할 당시 남한의 대북지원에 대해서 대체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sup>147)</sup> 또한 <표 III-5>가 보여주듯이 대북지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응답은 2008년 86.4%로 가장 높았고, 2011년 66.6%로 하락하였으나 대북지원이 위축된 시기에도 70%대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활발했을 당시의 인적, 물적 교류가 북한주민들의 인식과 태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음을 시사한다.

<표 III-5> 대북지원 효용성에 대한 북한주민의 인식

(단위: %)

	2008	2009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매우 긍정	65.7	51.4	49.1	46.9	53.4	45.0	59.6	56.5	56.8
약간 긍정	20.6	29.2	17.5	29.3	24.1	27.5	14.4	21.7	17.4
전체	86.4	80.6	66.6	76.1	77.5	72.5	74.0	78.3	74.2

출처: 정동준 외, 『북한주민 통일의식 2017』, p. 76.

끝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북한의 해당 관계자 및 주민들과의 접촉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인식 전환에 기여했다.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의 장점은 정부 차원에 비해 남북관계의 영향을 덜 받으며

147)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북한주민 의식조사 2017’에 따르면 남한의 대북지원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2008년 78.8%로 가장 높았고 2017년까지도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동준 외, 『북한주민 통일의식 2017』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8), p. 74.

며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sup>148)</sup> 민간단체를 통해 의식주와 결부된 각종 생필품, 의료, 구호품이 지원되고 북한 내 협동농장 사업<sup>149)</sup>이 추진된 것은 북한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초기 긴급구호 위주의 일회적, 단순 물품 지원에서 제한적이지만 기술협력, 농업개발, 보건의료, 환경, 인프라 등 개발지원 사업들로 확대 발전된 점은 남북 간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교류의 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이 취약계층에 집중되었던 만큼 인도적 지원 활동이 남북한주민 간의 직접 접촉을 넓히는 계기를 만들 뿐 아니라 대북지원에 대한 아래로부터의(bottom-up) 인식 전환에 기여한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성과이다.<sup>150)</sup>

## 나. 정보 유통의 실태와 북한의 주민의식 변화

남북교류협력과 함께 북한주민 의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외부정보와 문화의 유입이다. 즉 남북교류협력이 공식적 창구를 통해 북한의 경제사회적 변화에 영향을 주면서 남북 간의 정치, 군사, 안보 현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의 기능을 담당한다면, 외부세계에 대한 지식과 정보 유통은 비공식적

148)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금순,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04); 문경연·이우영·정소민, “대북지원 20년(1995-2015):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성격과 과제,” 『국제관계연구』, 제22권 1호(2017), pp. 35~67; 최용환,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쟁점과 과제,” 『북한토지주택리뷰』, 제2권 1호(2018), pp. 21~43 참조.

149)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남북 공동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한 북한 농촌의 협동농장사업은 북한주민의 실질적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한 점에서 중요한 사례적 의의가 있다. 홍상영, “북한 지역개발협력사업의 과제와 방향: 당곡리 협동농장 현대화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북한토지주택리뷰』, 제2권 1호(2018), pp. 30~43.

150) 임을출, “2000-10년 한국의 인도적 대북지원의 현황과 평가,” 『북한경제리뷰』, 제2월호(2011), p. 29.

채널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일상생활과 행태에 영향을 줌으로 의식과 사회 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sup>151)</sup> 외부정보의 북한 내 유입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은 2004년 미국에서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이 제정된 이후 본격화되었다.<sup>152)</sup>

하지만 공식적인 대북 방송매체나 비공식적 채널을 통한 정보의 유입이, 그리고 이에 따른 의식적 상호작용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북한주민의 관점의 전환과 행동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추적하는 것은 지난한 과정이다. 다만 여기서는 1990년대 이후 북한 내 외부정보 유통의 실태를 파악하고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외부와의 접촉, 교류, 그리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경험되는 정보 및 문화콘텐츠가 북한주민들의 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1) 정보통신기기 이용 실태와 외부 콘텐츠 유입 현황

1990년대 들어 외부정보와 문화콘텐츠의 북한 내 유입이 본격화되면서 북한의 사회 변화에 미칠 영향과 가능성이 새롭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이 ‘고난의 행군’ 시기를 지나면서 식량 확보를 위한 이동의 증가, 접경무역 확대, 국경 월경자들의 왕래, 해외 노동자 파견, 국제사회와의 접촉 증가는 한국을 비롯한 다양한 외부세계로부터의 정보와 문화 유입을 가져왔다. 특히 북한주

151) 강동완, “북한으로의 외래문화 유입 현황과 실태: 제3국에서의 북한주민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pp. 167~202.

152)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 내 정보 유통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할 것을 주요 목적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유아시아방송(Radio Free Asia: RFA)과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VOA)를 통한 대북 라디오방송을 12시간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Sec. 103)을 언급하고 북한 내 정보 유통의 가능성을 높이는 조치들을(Sec. 104) 다루고 있다.

민들 사이에 남한의 드라마, 영화 등의 영상물 시청과 확산이 두드러졌다.<sup>153)</sup>

주목되는 현상은 첫째, 시장의 확산, 기술의 발달, 소득의 증가로 북한주민들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이 확대된 점이다. 통계청의 『2017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에 의하면 2016년 북한의 이동전화 가입자가 360만 명으로 집계되어 북한 전체인구(2천 489만 명)의 14.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54)</sup> 2008년 12월 첫 개통 이래 2010년 가입자가 약 43만 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6년 만에 8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이동전화 이용이 급증한 것이다.<sup>155)</sup> 또한 북한에서는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한 비인가 이동전화 이용도 증가하였다.<sup>156)</sup>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이동전화를 포함한 북한주민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실태는 다음과 같다.<sup>157)</sup>

---

153) 강동완·박정란, “남한 영상매체의 북한 유통경로와 영향: 지역간·대인간 연결 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19권 2호 (2010), pp. 107~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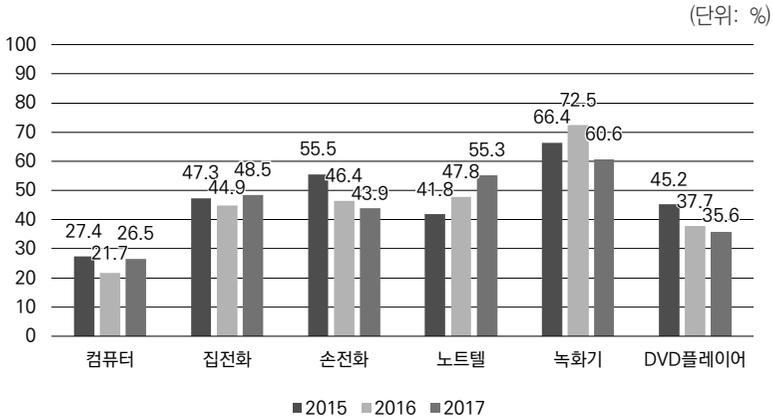
154) 통계청, 『2017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서울: 통계청, 2017), p. 227.

155) 보다 자세한 통계는 ICT Statistics의 Mobile-cellular subscriptions 참조, <<https://www.itu.int/en/ITU-D/Statistics/Pages/stat/default.aspx>> (검색일: 2018.9.1.).

156)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UN doc. A/HRC/25/CRP.1 (February 7, 2014), para. 220.

157) 이 조사는 직전연도에 탈북하여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탈북 직전 직접 소유하고 사용했던 정보통신기기를 질문하였고 중복 선택을 허용하였다. 조사의 유효표본수는 2015년 146명, 2016년 138명, 2017년 132명이었다. 정근식 외, 『북한사회변동 2017』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8) 참조.

〈그림 III-5〉 정보통신기기 이용 실태



출처: 정근식 외, 『북한사회변동』 각 년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III-5〉에서 보듯이 북한주민의 녹화기, 노트텔,<sup>158)</sup> DVD 플레이어 등 영상기기 이용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7년 조사에서 녹화기는 응답자의 60.6%, 노트텔은 55.3%, DVD플레이어는 35.6%가 사용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북한주민들의 정보통신기기 이용 실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남한의 영상물들은 CD, DVD, USB와 같은 저장매체를 통해 유통되기 때문에 이를 시청할 수 있는 영상장치가 함께 보급되고 있다.<sup>159)</sup> 남한 영화와 드라마 시청이 북한 내 중산층과 청소년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현상은 2000년대 들어 이를 판매하는 상인과 조직이 만들어지고 장마당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통해 북한 전국의 시장과 다양한 계층으로 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sup>160)</sup>

158) 노트텔은 북한 내에 보급된 영상 재생기로 중국산 EVD 플레이어를 말하며 CD뿐 아니라 USB에 담긴 영상물도 시청할 수 있다.

159) 장용석 외, 『북한사회변동 2016』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7), p. 76.

160) 초기 북한의 간부를 비롯한 상류층이나 신흥부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남한영상물

둘째, 북한 내 한국산 영상물 시청 및 정보화 기기 이용 경험은 남한제품의 사용 경험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남한제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경우 이동전화 이용률은 60.3%로, 남한제품을 이용한 적이 없다는 사람(28.7%)보다 두 배 이상 높았으며, 녹화기, 노트북, DVD플레이어 등 기타 영상기기 사용빈도 또한 남한제품을 사용해 본 사람들에게서 높게 나타났다.<sup>161)</sup> 즉 남한제품의 사용경험과 북한주민들의 정보화 수준이 상호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남한의 방송매체 역시 북한 내 외부정보 유입의 채널이 되고 있다. 평양 및 황해도, 평안도, 그리고 동해안 일부 지역에서 남한의 공중파 TV가 제한적으로 수신되면서 일부 북한주민들이 단속을 피해 남한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62)</sup> 하지만 북한 내 감시와 지역적 제한으로 인해 북한 내 TV로 남한방송을 시청하는 주민들의 숫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체제인사 및 해외출입이 잦은 상인, 선원들의 경우 방송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디오를 통한 대북방송 역시 북한주민에게는 외부정보의 취득 수단이 된다. 민간단체의 대북방송들은 한국 및 제3국에서 북한 내부 소식 및 국제사회 뉴스, 한국의 상황 등을 송출하고 있다.<sup>163)</sup> 라

---

의 시청과 영상매체 활용은 일반가정으로까지 확대되었고, 과거 30~40대를 중심으로 확산된 남한의 영상매체 유입은 10~20대까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오양렬, “북한 내 외래문화 유입으로 인한 영향과 전망,” 『플랫폼』, 제3권 (2011), pp. 16~17.

161) 정근식 외, 『북한사회변동 2017』, p. 69.

162) 오양렬, “북한 내 외래문화 유입으로 인한 영향과 전망,” p. 19.

163) 공영방송인 KBS 한민족방송과 극동방송 외 북한개혁방송(North Korea Reform Radio), 열린북한방송(Open Radio for North Korea), 자유조선방송(Radio Free Chosun), 자유북한방송(Free North Korea Radio) 등과 같은 민간단체의 대북방송이 있다. 열린북한방송은 자유조선방송과 통합되어 현재는 국민통일방송(Unification

디오 방송은 TV에 비해 통제가 어렵고 단파방송은 간단한 장치가 있을 경우 한국방송을 포함한 외국방송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sup>164)</sup> 라디오 방송을 통한 외부정보 유입의 영향을 가늠하는 것은 북한 내 청취자 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다.<sup>165)</sup> 하지만 최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북한 내부 및 남한의 소식 등을 알기 위해 라디오를 정기적으로 청취하는 주민이 있다는 사실은 북한주민들의 외부정보에 대한 욕구가 현저히 증가했으며 라디오가 외부정보 취득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66)</sup>

넷째, 한국의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대북 전단지(빠라) 살포가 있다. 한국의 민간단체는 대형풍선을 이용해 북한 체제의 비판, 한국사회의 발전상, 해외 민주화 사례 등을 담아 북한에 보내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황해도와 강원도 일대를 중심으로 유포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러한 전단이 실제로 북한주민에게 전달될 때 일종의 심리전 효과가 발생한다.<sup>167)</sup>

하지만 정보 유입의 수단으로서 대북 전단 살포 방식에는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우선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는 남북한이 상호 비방 중상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정신에 위배된다. 남북은 2004년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방송과 게시물, 전광판, 전단 등을 통한 모든 선전

---

Media Group)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외방송을 포함할 경우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자유아시아방송, 미국의 소리가 있다.

164) UN doc. A/HRC/25/CRP.1 (February 7, 2014), para. 201, 202.

165) 민간대북방송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의 2,000만 인구 중 라디오에 관심이 있고 청취 가능한 인구는 500만~800만 명 정도이며 이 중에 10%인 대략 50만 명 정도는 지속적인 라디오 청취자로 예측한다. 대북민간방송대표 K 인터뷰(2018.8.16., 통일연구원).

166) UN doc. A/HRC/34/66 (February 22, 2017), para. 24; UN doc. A/67/370 (September 13, 2012), para. 24.

167) 임석훈, “민간단체 풍선날리기와 분단 번역의 정치,” 『북한학연구』, 제9권 2호 (2013), p. 19.

활동과 풍선, 기구를 이용한 각종 물품 살포를 중지한다”는 데에 합의한 바 있다. 2018년 판문점선언에서도 “군사문계선 일대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그 수단을 절폐한다”는 데에 합의하였다.<sup>168)</sup> 다만 우리 정부가 전단 살포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남북 간 합의를 고려하여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하고 민간에서는 정보유입의 수단과 내용을 다양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대북 전단이 북한주민들에게 실제로 전달될 확률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대북 전단은 풍속의 제한을 받으며 휴전선 인근의 지형적 특징으로 인해 대부분 비무장지대에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실제로 전단을 습득하여 읽어볼 수 있는 북한주민들은 살포되는 전단의 물량에 비해 소수이며 유입된 자료 역시 오래가지 않는다. 최근까지 달러, USB, SD카드를 포함한 대북 전단 살포가 민간단체를 통해 이루어지지만<sup>169)</sup> 대북 전단을 통한 외부정보 유입의 효과는 여전히 논쟁 중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 (2) 북한의 대응과 북한주민 의식 변화

북한은 한국 및 해외 영상 프로그램을 포함한 외부정보를 청취, 보유, 유포하는 행위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북한 「형법」 제184조에서는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그림, 사진, 도서, 노래, 영화 같은 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재현한 자” 그리고 185조에서는 “반국가목적이 없이 적들의 방송을 들었거나 적지물을 수집, 보관하였거나 류포한 자”는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

168) 통일부, 『2005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05), p. 46.

169) 『한겨레』, 2018.5.12.

고 있다. 북한 당국은 비인가 해외 이동전화 사용을 범죄로 간주하며 외부 라디오 청취 역시 통제와 처벌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sup>170)</sup> 라디오의 경우 소지하다가 발각될 경우 기기는 몰수되며 직책이 박탈되고 사상교육을 받게 된다.<sup>171)</sup> 이러한 법 집행은 실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른바 비사회주의 행위를 검열, 통제하는 ‘비사회주의 그루빠’는 김정은 체제 들어 더욱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sup>172)</sup>

북한 정권은 그동안 사회통제의 수단으로 주민들 간의 정보 흐름을 차단하고 정보 확산을 극도로 경계해 왔다.<sup>173)</sup> 그러한 감시와 통제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들에게 이동전화는 더 이상 소수 특권층의 상징이 아니며 일반주민, 장마당 상인들에게도 구매 가능한 물품이 되어가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북한 정권을 거치지 않고 북한주민들 간의 직접 소통이 점차적으로 확대 가능하다는 의미를 갖는다.<sup>174)</sup> 이동통신 기기의 수요와 공급이 계층과 세대에 관계없이 증가함에 따라 정권에 의한 정보 독점 및 통제가 점차적으로 느슨해질 가능성이 있다.

외부의 정보와 문화 유입은 북한 내 시장화, 탈이념화, 탈집단주의적 사고 등과 함께 북한 내에 새롭게 나타난 하나의 현상이자, 북한주민의 인식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집단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

170) 북한 당국은 일반(FM, AM)라디오 주파수 조절 장치를 고정하는 형태로 외부 라디오 청취를 제한하고 있다.

171) UN doc. A/HRC/25/CRP.1 (February 7, 2014), para., 203.

172) 최대석·박희진, “비사회주의적 행위유형으로 본 북한사회 변화,” 『통일문제연구』, 제23권 2호 (2011), p. 19.

173) 김연호, 『북한의 휴대전화 이용 실태: 북한의 통신혁명은 시작됐는가』 (Washington D.C.: US-Korea Institute at SAIS and Voice of America, 2014), p. 12.

174) 김책공대 출신의 한 탈북민에 의하면 장마당에서 달러 및 위안화가 유통됨으로 인해 환율 및 각 지역 간 물가 시세를 참고하기 위해 상인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보편화되었지만 정치적 주제나 외부정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꺼리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2018.6.25.,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사회적 의미를 갖는다.<sup>175)</sup> 1990년대 이후 북한사회의 변화는 시장화를 통해 진행되었고 계획경제의 실패, 계층의 분화 및 외부정보의 유입은 사상의 이완을 가져오며 북한 사회변동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논리가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북한주민들의 외부정보와 미디어에 대한 노출, USB, MP3, DVD, 이동전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보 유입은 북한주민의 사상 체계의 이완, 반체제 세력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으로서는 경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상호합의로 중단된 대북 전단 살포가 2000년대 중반 남한의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재개되자 북한 당국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였다.<sup>176)</sup> 북한은 2004년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에 대한 합의 이후 남한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합의 위반이라 규정하며 사과와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sup>177)</sup> 북한을 향한 대북 전단 살포가 단순히 정보 전달의 수준을 넘어 심리전 및 정보침투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주목할 점은 1990년대 이후 북한사회 내의 시장화, 정보화, 사회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북한 당국의 통제와 장악력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비사회주의 행위를 통제해야 하는 보위부, 안전부, 당 간부, 군 장교들은 역설적으로 외부정보나 한국산 상품과 문화콘텐츠에 대한 노출이나 접근성이 더 높은 상황이다. 일례로 현지 간부 및 보위부원들이 남한의 영상매체를 직접 판매하고 유포하는 일에 관여된 바 있고,<sup>178)</sup> 남한영상물 시청은 북한 군대 내

175) 이우영, “김정은 체제 북한 사회의 과제와 변화 전망,” pp. 71~72.

176) “‘빠라’의 정치학, ‘심리전’ 산물 결국 南南 충돌,” 『국민일보』, 2014.10.27.,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825353>> (검색일: 2018.9.13.).

177) 통일부, 『2009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09), p. 171.

다양한 계급과 보직자들에게 공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된다.<sup>179)</sup> 이러한 상황에서 남한의 물품 및 문화에 대한 북한주민의 긍정적 인식 확대, 대남 적대의식의 완화, 남한의 말투, 외모를 모방하는 일종의 행위양식 변화는 향후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정보와 문화 유입이 북한사회의 집단행동 촉발과 같은 사회 변화의 결정적 요인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하지만 북한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장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외부 이동 및 정보기기 활용은 앞으로도 더욱 일상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수단과 매체를 통한 지식과 정보 유통은 장기적으로 기존 가치관과 규범을 재고, 부인하게 하며 사상의 이완과 이탈 가능성을 높게 함으로써 북한체제와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sup>180)</sup>

### 3. 소결

지금까지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외부정보의 유통실태를 중심으로 북한주민의 의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이를 통해 북한사회의 광범위한 변화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경제난과 시장화 현상에 대한 북한 내부의 대응 과정에 의해 촉발되었을 뿐 아니라 남북관계를 포함한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함께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의 관점에서 본다면 냉전 붕괴 이후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

178) UN doc. A/HRC/25/CRP.1 (February 7, 2014), para. 214.

179) 강동완·김현정, “북한 군대 내 남한 영상물 시청 실태 및 북한 정권의 대응,” 『통일과 평화』, 제7권 1호 (2015), pp. 95~134.

180) 장인숙·최대석, “김정은 시대 정치사회 변화와 북한주민 의식: 탈북민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제10권 1호 (2014), p. 20.

된 극심한 식량난과 경제위기가 남한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수용하는 계기가 되었고 김정일의 선군노선 하에서 남한과의 교류협력을 국가이익 차원에서 확대하거나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북한의 정책 변화를 주도면밀하게 관찰하면서 변화의 진전을 유도하거나 촉진하기 위한 대북 관여정책의 설계와 이행을 위해 노력했다. 북한의 생존과 번영, 외부와의 교류 및 이질적 문화의 접촉, 북한 내 지식과 정보 유통 차원에서 한국은 가장 중요한 행위자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한국 정부의 대북 관여정책도 북한의 전략적 태도 및 남한 내의 대북여론 등을 반영하여 일정한 변화의 양상을 보여주었다. II장에서 검토한 시기 구분과 관련하여 본다면 1990년대 중반 이후 20여년간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은 대체로 소극적 대북관여(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적극적 대북관여에서 조건부 대북관여로의 전환(2000년대 초반~2010년대 초반), 제한적 대북관여(2010년대 초반 이후) 등의 시기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대북전략과 정책의 결과로 나타난 남북교류협력사업 역시 이러한 시기를 거치면서 확대, 발전하거나 정체되고 제한되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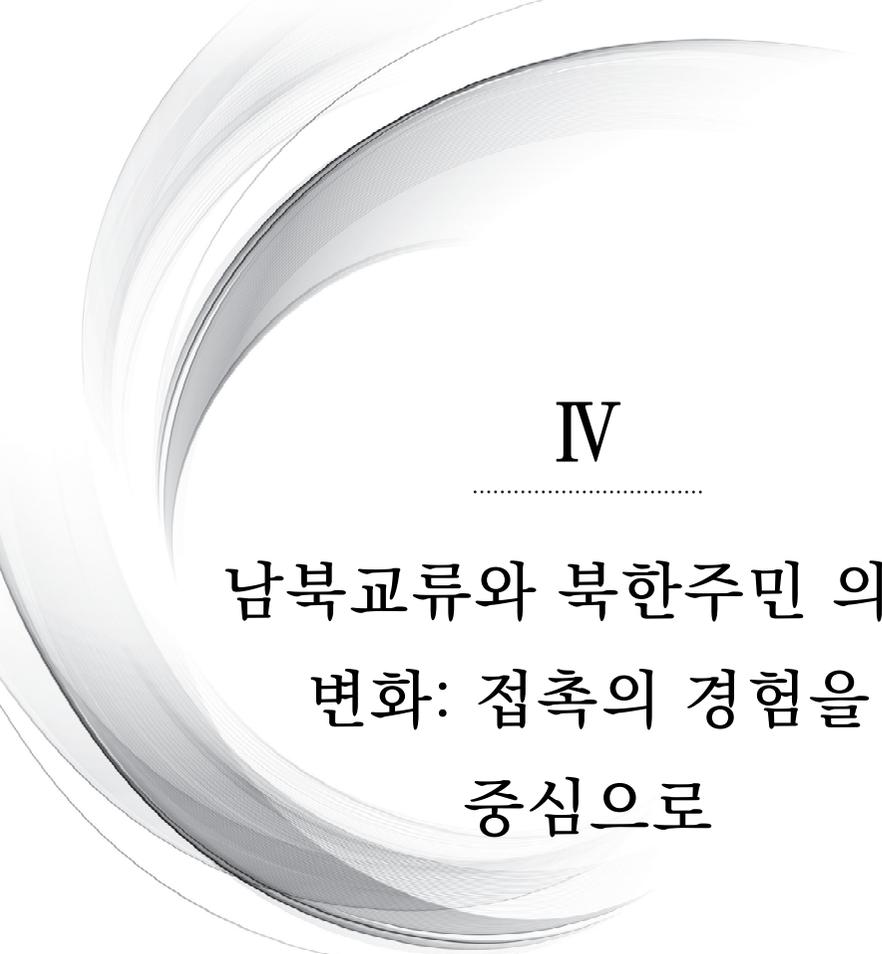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북한주민들이 외부와의 접촉을 확대하는 데 있어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 사회문화교류, 인도적 지원 등 남북관계가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진행과정에서는 정부뿐만이 아니라 민간의 참여 역시 남북한주민들 간 접촉을 확대하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 다만 민간단체의 활동이 정부의 교체와 남북관계의 부침에 따른 대북정책 변화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다. 이를 반영하듯 남북 간 직접 접촉과 다방면의 교류협력은 2010년 5·24조치와 2016년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장기간 정체상태를 면치 못했다. 그러나 2018년

들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비핵화 논의의 진전은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과 교류협력의 확대를 예고하고 있다.

외부와의 접촉을 통한 북한주민의 의식 변화를 가로막는 최대요인은 잇따른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으로 안보위기를 조성하며 자력갱생 노선을 고수해 온 북한 당국의 태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완전한 비핵화’ 선언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진전으로 인해 대북제재가 완화된다면 남북교류협력은 전면적으로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교류협력사업 확대와 정보 유통량의 증가가 북한주민들의 의식 변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남북한주민 간의 접촉면과 접촉 수준을 확대할 수 있는 창의적인 협력 분야 발굴이 매우 필요하다.

동시에 그동안 정부와 민간이 벌여온 남북교류협력사업과 1990년대 이후 북한 내에서도 중요성이 확대되어 온 외부정보의 유통이 주민들의 의식과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해보는 작업이 중요하다. 북한주민들의 의식 변화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냄으로써 향후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입안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IV장과 V장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여했던 책임자와 실무자, 그리고 남북관계가 진전과 후퇴를 반복하는 동안 북한에 거주했던 탈북민들의 증언을 통해 이러한 영향을 검증해 보게 될 것이다.





# IV

---

## 남북교류와 북한주민 의식 변화: 접촉의 경험을 중심으로



공동체 내에서의 물리적 만남은 의식의 소통을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해, 공간으로서의 접촉시대에서는 가시적인 물리적 과정 및 결과와 비가시적인 의식의 상호작용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 같은 원리는 남북한주민 간 접촉 및 교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IV장에서는 다양한 남북 간 교류협력이 북한주민의 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사례 분석하였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III장에서 살펴본 경제협력, 사회문화교류, 그리고 인도적 지원의 현장에서 북한주민에게 나타난 변화들과 남북한주민 간 상호작용의 양상을 추적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 경제협력, 사회문화교류, 인도적 지원 등 세 가지 범주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여했던 책임자 및 실무 관계자 27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심층면접 대상자는 첫째, 장기적인 경제협력이 진행되어 온 개성공단 기업인 및 관계자, 둘째, 스포츠, 역사, 사전 편찬 등 사회·문화·체육 교류 담당자, 셋째,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진행했던 민간단체 담당자 등의 현장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IV-1>과 같다.

심층면접은 사전에 동의를 표시한 교류협력사업 관계자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비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특히 심층면접 대상자가 경제협력, 사회·문화·체육 교류, 대북 인도적 지원 담당자 등 세 집단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 집단에 적용할 수 있도록 3가지 질문지를 별도로 구성하였다. 심층면접 결과를 녹취한 뒤 분석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의문점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에 의해 전화 또는 메일로 재질문하였다.

심층면접 대상은 2명의 외국 국적자(해외동포 1명, 외국인 1명)를 제외하면 모두 남한주민으로, 북한주민의 의식 변화를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심층면접 결과는 남북한 접촉지대를 통해 파악되는 북한주민 의식 변화에 대한 남한 담당자들의 주관적 해석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을 직접 만날 수 없다는 물리적 한계 속에서는 직접 대북 교류, 협력사업, 그리고 인도적 지원을 추진했던 현장 전문가들의 증언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북한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유추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접촉지대에서 만난 북한주민의 태도와 행동 변화, 대화의 내용과 말투 변화 등에 대한 남한주민의 간접적인 증언들을 추적해가는 방법으로 북한주민 의식 변화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IV장은 크게 두 개의 절로 구성하였다. 1절에서는 III장에서 남북간 접촉을 분류한 방식에 근거하여 개성공단으로 대표되는 경제협력, 사회·문화·체육 교류, 인도적 지원과 같은 접촉지대 내에서 북한주민들의 의식이 내용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 변화의 성격은 어떤 방향이었는지를 살펴보았다. 2절에서는 II장에서 제시했던 집단별 요인을 참고하여, 남북한 상호작용을 통한 북한주민 의식 변화를 시기별, 공간별, 집단별(출신 성분별, 성별, 세대별)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표 IV-1〉 심층면접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류	표기	성별	연령	대북사업 분야	기간
경제협력	개성공단 사례1	남	50대	개성공단	약 13년
	개성공단 사례2	남	40대	개성공단	약 8년
	개성공단 사례3	남	30대	개성공단	약 3년
	개성공단 사례4	남	50대	개성공단	약 20년
	개성공단 사례5	남	50대	개성공단	약 13년
	개성공단 사례6	남	50대	개성공단	약 13년
	개성공단 사례7	남	60대	개성공단	약 9년
	개성공단 사례8	남	30대	개성공단	약 4년
	개성공단 사례9	남	50대	개성공단	약 10년
사회문화 교류협력	교류협력 사례1	남	40대	학술 교류	약 9년
	교류협력 사례2	남	50대	언론 교류	약 1년
	교류협력 사례3	남	50대	언론 교류	약 15년
	교류협력 사례4	여	30대	학술 교류	약 2년
	교류협력 사례5	남	50대	사회문화 교류	약 14년
	교류협력 사례6	남	40대	학술 교류	약 10년
	교류협력 사례7	남	40대	학술 교류	약 10년
대북지원	대북지원 사례1	남	40대	기술 교육	약 13년
	대북지원 사례2	남	30대	기술 교육	약 6년
	대북지원 사례3	남	60대	보건의료 지원	약 8년
	대북지원 사례4	남	50대	물자 지원	약 10년
	대북지원 사례5	남	60대	보건의료 지원	약 24년
	대북지원 사례6	여	30대	보건의료 지원	약 7년
	대북지원 사례7	여	40대	보건의료 지원	약 16년
	대북지원 사례8	여	40대	보건의료 지원	약 18년
	대북지원 사례9	남	80대	보건의료 지원	약 8년
	대북지원 사례10	남	50대	보건의료 지원	약 8년
	대북지원 사례11	남	70대	보건의료 지원	약 24년

# 1. 접촉지대 내 북한주민 의식 변화의 특성

## 가. 의식 변화의 내용

### (1) 자본주의적 사고방식 체득

남북한이 함께 교류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북한주민들은 직간접적으로 자본주의적 사고를 학습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본인의 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전에 없던 자본주의적인 태도가 드러나는 것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특히 대표적인 경제협력 공간인 개성공단에서 그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개성공단의 대부분 기업에서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인센티브에 대한 인식의 변화이다.

먼저, ‘인센티브’라는 개념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도 자본주의적 사고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초창기에는 인센티브를 거절하다가 이후 인센티브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인센티브를 요구하기도 한다.<sup>181)</sup> 개성공단 사례1은 개성공단사업이 지속되면서 북한 직원들이 자신들이 열심히 일해서 생산성을 높이면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이 인센티브를 더 받게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다고 증언했다.<sup>182)</sup> 개성공단의 관리자로서 근무하던 사례4와 사례5도 이와 같은 현상을 목격하였다.

‘인센티브’라는 것이 자본주의 논리잖아요. 북한 직원들이 초창

181)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제24조는 ‘노동보수에는 노임, 가급금, 장려금, 상금 등이 포함되며 기업은 종업원의 노동보수를 일한 실적에 따라 정확히 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층면접 결과에 비춰볼 때 이러한 규정은 개성공단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명확하게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2003.9.18.

182) 개성공단 사례1 인터뷰(2018.7.13., 해당 기관).

기에는 남한 기업이 자신들을 잠식하러 온 것 아닌가 하는 적대감과 거부감을 느끼다가 나중에는 자본주의 논리를 이해를 하는 거죠. 왜 법인장이나 공장장, 관리자들이 직원들에게 생산성을 높이자고 계속 요청하는지, 10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북한 직원들이 ‘내가 열심히 안하면 회사에서 이윤이 안 나기 때문에 나와 북한 직원들에게 결국 돌아오는 게 없어지는구나. 회사에서 이윤이 창출되어야 초코파이라도 한 박스 받거나 성과급이나 상금을 받게 되는구나’하고 이해를 한단 말이예요. (개성공단 사례4)

북측 직원들이 처음 회사에 들어올 때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장군님의 명에 의해서 남측 기업에 봉사를 하러 왔다’고 표현을 해요. 결국에는 자본주의적 사고에 의한 취입이 아니라 명령에 의해서 봉사를 온 거예요.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우리같이 생산성이랄지 이런 개념들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급여에 대해 연장근로 수당까지 다 체크를 해요. (개성공단 사례5)

개성공단에서 북측 직원들이 남측 기업에 대한 요구사항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노사갈등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 또한 큰 변화이다. 심지어는 갈등해결 과정에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태업 행태 등 유사 노조의 동학이 나타나기도 한다.

개성공단에서 관리자로 근무한 사례5는 북측 근로자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겪은 경험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자본주의 학습에 대해 기억한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 있는데 북측 근로자들이 남측 기업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2010년 무렵, 북측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자, 일찍 퇴근하고, 특근이나 연장근무를 하지 않음으로써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사실 이들은 시간이 지나

면서 남한 기업에게 생산, 납기 등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학습하고 이를 이용하여 태업과 같은 상황을 조성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하루 100개 생산이 정량이라면 50개 정도만 생산을 하거나, ‘우리 성원들이 너무 힘들어서 연장근무를 못하겠다’는 핑계를 대기도 한다.<sup>183)</sup> 다른 기업들 중에도 마찬가지로의 경험이 있었다.

남측의 관리자들을 비롯한 실장, 공장장이 북측의 관리자들과 충돌해서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고 앞마당에 짐 싸가지고 나와서 앉아있고, 거의 스트라이크 수준의 대응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북측 직원들이 남측 기업에 대해 자기들의 최대한의 방식으로 의사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초창기엔 작업을 거부하는 일까지는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개성공단 사례1)

남측 관리자들에게 임금, 성과급은 물론 노동보호물자, 식자재 지원 등을 요구하고나서 들어주지 않으면 태업을 하거나 연장근무를 안 하고 간다거나 해요. (개성공단 사례2)

북한주민들이 자본주의적 방식을 학습하고 있다는 방증은 경제협력의 영역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의 교류나 인도적 지원사업 중에도 나타난다. 기술 교육을 주 사업으로 해온 대북지원 사례1은 북한주민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하던 북한주민들로부터 나중에는 시장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된다.

처음에는 “우리가 먹는 게 약간 어려운 거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먹는 문제 해결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하다가 최근에는 “이게

---

183) 개성공단 사례5 인터뷰(2018.8.8., 해당업체).

돈이 됩니까? 시장가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이거 포장은 어떻게 합니까? 판매하려면 마케팅이나 홍보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해요. (대북지원 사례1)

## (2) 지식 및 기술 습득을 위한 적극적 태도

남북 간 교류협력 및 인도적 지원사업 중에는 그 특성상 지식공유(Knowledge Sharing Program)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개성공단에서는 제조 및 연구개발에 대한 지식이 교육되고, 사회문화교류 분야에서는 ‘만월대 공동발굴 사업’이나 ‘겨레말큰사전 남북 공동 편찬 사업’과 같이 그 과정에서 남한의 축적된 전문 지식이 전달되거나, 방송, 공연, 촬영, 대중문화교류 등의 과정에서 남한의 발전된 노하우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진다. 인도적 지원사업에서도 농업, 보건의료, 건축 등 분야에서 남한의 선진화된 자재 및 장비와 함께 해당 기술이 전달된다.

이 때, 북한주민들 중 관련 분야 종사자 또는 전문가들은 남한의 지식과 기술 등을 배워 자신의 역량을 높이고, 새로운 기술을 북한 사회에 적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이는 남한의 지식 및 기술을 전달하는 기회가 주어지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교류협력 및 인도적 지원사업을 통해 익힌 부분에 대해 성실하게 복습하는 태도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험이 축적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업무능력 및 숙련도가 향상되고 전문 영역에서의 지식 및 기술 활용 능력도 높아진다.

기술자들 같은 경우는 기계 사용법을 하나 알려주면 더 궁금해하고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기계를 다 뜯어보고 직접 해보려는 호기심이 있어요.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자 하는 의욕이 높기 때문에 저희와 상의하지 않고 분해하지 말아야 할 기계를 분해해서 고장을

내기도 할 정도로. 그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태도입니다.  
(개성공단 사례1)

만월대 공동발굴 사업을 진행했던 교류협력 사례1은 초창기 북한 담당자들에게 발굴 작업에 대해 가르치는 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협업을 지속하면서 100% 남쪽 방식이나 100% 북쪽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닌, ‘만월대 식’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 그는 이를 두고 “이제 ‘만월대 발굴 시즌1’은 끝났다. 이제 작업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시즌2’가 시작되었다”고 표현했다.<sup>184)</sup>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해온 대북지원 사례6과 대북지원 사례8은 북한에 건축 및 의료 기술과 장비를 지원하였다. 그런데 북한주민들이 이러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모습과 열정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북한사람들이 새로운 기계들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매뉴얼을 보면서 다 작동해봅니다. 북한사람들이 우리가 전해준 매뉴얼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부속품 중 어떤 것은 왜 지원 물자에 없냐고 먼저 묻는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남쪽 관계자들이 대답을 못할 정도로 디테일한 질문을 해요. 북한사람들은 저희가 갔을 때 묻지 않으면 그거 어디 가서 알 수가 없으니까 모르는 부분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해요. (대북지원 사례8)

기술 이전을 할 때 북한 분들의 적극성을 보고 정말 감탄했어요. 저희가 설계를 여러 장 출력해서 분야마다 드리면, 북한 분들은 엄청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예요. 연필 자국이 정말 깨알같이 남아 있어요. 모르는 부분을 잘 배워서 실수하지 않고 잘 활용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분들의 노력이 비단

---

184) 교류협력 사례1 인터뷰(2018.8.21., 해당 기관).

이게 내 일이니까 한다는 것을 넘어서는 영역이란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사명감 같은 것일 수도 있고,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하기 위한 것도 있고, 또 북한 어른들이 북한 아이들(미래)에 대한 감정이 좀 특별하다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대북지원 사례6)

### (3) 남한에 대한 인식 변화

북한주민들은 남한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남한에 대한 정보 획득과 수정을 반복하면서 남한에 대해 보다 정확히 알게 된다. 교류협력의 파트너인 북한주민들은 대부분 남한에 대해 사전 지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접촉 과정을 통해 정보의 폭을 넓히거나 기존 정보를 최신 정보로 수정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대남사업에 종사하는 참가들은 남한 정보 입수 자체가 일상적 과업이며, 남한에 대한 정보를 끊임없이 학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파트너인 남측 관계자에게 질문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남한에 대한 정보를 더 얻고자 노력한다.

남한의 경제적 수준은 북한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가장 쉽게 체감하는 부분이다. 예컨대 남한이 상대적으로 더 잘산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남측의 법인장을 비롯해 주재원 모두가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모습을 보면서 경제적 수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사무실이나 국내에서 쓰는 사무기기들, PC 등이 국산이 짱아요.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북측 직원들은 처음에 사무기기들이 한국산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남측 회사 제품이라고 설명을 하면 처음에는 안 믿어요. 삼성이나 LG브랜드 로고가 한글로 쓰여 있는 것이 아니짱아요. 영어로 쓰여 있지. 그러면 이것이

남측 회사인지, 미국 회사인지 알게 뭐예요. 영어를 잘 모르는데, 중국 기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나라 제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알면서도 모르는 체 하는 사람들도 있고. (개성공단 사례2)

일반 노동자들과 일을 하다보면 저희 집이 아파트인지, 몇 평인지, TV가 있는지, 집에 난방은 어떻게 하는지 등 살림에 대한 것도 물어보고 일상생활에 대한 내용도 자주 물어보죠. (대북지원 사례10)

정치적인 문제는 통제와 감시가 이루어지는 영역이므로 드물게 남측 관계자들에게 질문과 대화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북한주민들은 노동신문 등을 통해 남한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도 비교적 많이 알고 있는데, 남북한주민 간 대화가 통제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남한의 정치적 상황과 여론에 대해 궁금해 하거나 남북관계에 대한 북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언급을 하기도 하는 것이다.

남한 정권에 대해서 남쪽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죠. (교류협력 사례6)

남한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아요. 최근에 남쪽에서 일어난 정치적인 이슈들이 다 노동신문에 나오잖아요. 물론 보도하는 관점은 다르지만. 정치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기는 한데 가끔 기회가 생기면 남한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먼저 묻기도 하고, 우리가 먼저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오해가 없도록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개성공단 사례2)

현장에 있으면 북한 직원들이 큰 구애를 받지 않고 저에게 얘기해요. 만약 이번에 남한 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했다면 거기에 대

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봐요. 또 “이번 선거 결과는 개성공단 발전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의견도 얘기하죠. (개성공단 사례6)

때때로 북한의 입장에서, 또는 특정 북한주민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바가 사실과 다른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정치적 대화를 피하지만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사실 관계를 설명하기도 한다. 일종의 토론처럼 이어지는 대화들을 통해 남한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관심이 해소되거나 재생산되는 것이다.

#### (4) 남한에 대한 관심 확대

대남 접촉을 담당하는 대부분의 북한주민들은 남한의 전반적인 상황과 남한 관계자에 대한 정보 등을 얻어내는 임무를 기본적으로 수행하려고 한다. 민족화해협의회<sup>185)</sup> 등에서 나온 북한 참사들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그러다가 남북한주민 간 접촉이 반복, 장기화 되면 당국에서 부여받은 임무로써의 정보수집이 개인적인 관심과 궁금증으로 확대되는 양상도 나타난다. 특히 정치적인 영역보다는 비정치적 영역에 대한 관심이 쉽게 드러난다.

정치 얘기는 안 하는 것이 서로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하지 않아요. 대신 스포츠 같이 비정치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어요. 북한에서는 국제 경기에서 북한 여자 축구가 몇 위를 했는지 등의 정보를 2~3일 뒤에 알게 되니까 그런 결과를 남한사람들이 미리 알려주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개성공단 사례5)

---

185)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북한 당국 내 대남 조직과 함께 추진하게 되며, 경제 분야에서는 민족경제협력연합회(이하 민경련),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이하 대경추), 교류협력 및 기타 분야에서는 민족화해협의회(이하 민화협),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이하 아태) 정도가 있다.

북한주민들이 남한의 사회상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경우도 있다. 개성공단 사례3은 북한 직원들이 사무실에 걸려있는 회사 달력 속의 남한 연예인 사진을 보고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인지 물어보거나 연예인에 대해서 궁금해 한다고 증언했다. 또 젊은 직원들의 경우, 개성공단에서 생산하는 옷을 보면서 ‘남자 수트가 왜 이렇게 통이 좁은지’, ‘여성들이 이렇게 다 비치는 블라우스를 진짜 입고 다니는지’ 물어보는 등 한국에서 유행하는 패션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며 일부 북한주민들은 외국의 유명 브랜드를 알아보기도 한다.

또 남한에서 주말을 보내고 돌아오면 북한 직원들이 여자친구와 찍은 사진을 보여 달라고 하기도 하고, 데이트 장소나 데이트 방법, 남한의 음식에 대해서도 궁금해 한다. 개성공단 사례3은 북한 직원들의 관심어린 모습과 호기심을 ‘시골에 있는 소녀들 같다’고 표현했다.

데이트 코스가 ○○○이라는 곳이라고 얘기하면 나중에 통일되면 꼭 같이 가보자고 하면서 약간 부러워하듯이 봤던 것 같아요. 제가 나가서 자유롭게 데이트를 하고 이곳저곳을 다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개성공단 사례3)

제주도는 북한주민들 대부분이 꼭 한 번 가보고 싶어하는 곳들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 제주도에서 회의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하고. 그런데 서울에 오는 건 굉장히 꺼려해요. (교류협력 사례7)

## (5) 성 역할의 차이 인식

“남한에서는 남자가 설거지 안 하면 혼나요.”

학술 교류에 참여했던 교류협력 사례6이 남북한 학자들과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자 여성 학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남성 학자들은 남한 남성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보며 대꾸했다.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sup>186)</sup>

북한은 가부장적인 사회이다.<sup>187)</sup> 가정, 직장 등 사회 내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유교적으로 뚜렷하게 구분된다. 그러나 남북교류 협력을 통해 남성도 집안일에 참여하고 여성도 비교적 동등한 대우를 받는 등 비교적 유연한 남한의 성 역할 가치관을 목격하게 된다. 그 결과, 당장 태도가 바뀌거나 모든 이들이 남한식 사고방식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북한의 성 역할 차이를 인식하고, 성 역할에 대한 문제의식을 처음으로 경험하며, 이에 대해 사유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가족관계라는 차원에서 보면, 북한 사람들은 아직도 굉장히 가부장적입니다. 아내는 당연히 남편한테 복종을 해야 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우리가 ‘남쪽에서는 요즘 시부모님 모시고 살지 않는다’고 말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하죠. (교류협력 사례7)

북측 여성들이 특히 남측 남성들에게 우호적이예요. 왜냐하면 남측 남성들이 친절하니까.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집에 가서 집안일 도와주냐’고 직접 물어보기도 해요. 제가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가끔 청소도 한다’고 하면 그럼 ‘아내는 뭐하냐’고 되물어요. 그러면 ‘제가 빨래할 땐 아내가 청소하고 아내가 청소할 땐 제가 빨래하고, 집안일은 부부가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면 북한 여직원들이 많이 놀라죠. (개성공단 사례8)

186) 교류협력 사례6 인터뷰(2018.9.7., 통일연구원).

187) 전영선, 『북한에서 여자로 산다는 것』 (서울: 경진출판사, 2017) 참조.

## 나. 접촉지대 내 의식 변화의 성격

### (1) '관계'의 재설정

관계 재설정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상호 신뢰, 즉, '라포(rapport)'가 만들어진다. 물론 처음부터 일상적인 친근함이 형성되지는 않는다. 사업 초기에는 남북한주민 모두 남북관계의 바탕 위에 만나 경직된 모습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서로 익숙해지면 사적 영역에 대한 대화가 이루어진다.

“우리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잘못 들어왔어요.”

“당신 아들놈이 문제라 그런 거죠.”

“그러게 내가 아들놈을 잘못 키우다보니까 집안 꼴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 할망구랑 맨날 싸워요. 아들놈을 셋을 키웠는데, 이놈들이 아빠 따라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다 딴따라야. 한 놈은 카메라 들고서 영화 찍는다 그러고, 한 놈은 노래 부르고 다니고.”

“남쪽에서는 그런 일이 돈 버는 일이에요.”

“돈이 중요한가, 농사 지어야지.” (대북지원 사례1)

대북지원 사례1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된 대화 분위기를 이렇게 묘사했다. 남북한 학자들도 초기에는 서로 긴장 속에서 만나 일 얘기만 하다가 15년이 지나면 일보다는 관계 중심적인 대화가 가능해지고, 지극히 사적인 농담까지 주고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간이 흐르면서 북한주민들이 친밀감을 표현하는 태도는 심층면접을 통해 만난 대부분 관계자들의 증언에서 나타난다.

아무래도 직원들과 직접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 개인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요. 집안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등 이런 대화는 얼마든지 하죠. 가끔 돌잔치 사진 가져와서 북측 직원들끼리 돌려보다가

저에게 자녀 이름을 알려줘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직원을 ‘누구 엄마’ 이런 식으로 불러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거죠. (개성공단 사례2)

북한 직원들도 저희의 가정사를 물어봐요. 큰 집에 사느냐, 작은 집에 사느냐, 자기 집이냐, 경제적인 것까지. 나중에는 사소한 것까지 다 물어봐요. 그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얘기도 하죠. 딸이 둘 있고, 아들이 하나 있고,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다 하는 가정사를 얘기해요. (개성공단 사례6)

또 남북 간 접촉지대에서는 상호 기본적인 신뢰가 쌓이는 동시에 남북한의 체제, 이데올로기, 분단이라는 필연적 긴장 관계가 벌어지고, 전혀 ‘새로운 관계’가 재설정된다. 예컨대 개성공단의 경우, 노사 관계, 관리자와 직원의 관계, 경영자와 감시자의 관계가 형성된다. 또 교류협력의 경우, 교류협력사업의 파트너 관계가 되고, 대북지원의 경우, 지원사업의 파트너(실제로는 지원기관과 수혜집단)의 관계, 사제관계 등이 형성된다.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보면 자투리 천들이 바닥에 떨어져서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청소를 하면서 작업해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지시를 안 따르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는 종업원 대표 역할을 하는 직장장 지시가 아니면 따르지 않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남쪽 주재원이 하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한 주재원이 지적해주면 바로 알아서 해요. 남측 주재원이 직접 얘기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있었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는 그것이 제조 현장에서는 관리자와 직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남측 주재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없어졌죠. (개성공단 사례5)

학술 교류가 지속되면 동등한 학자 대 학자로 만난다는 느낌이 지, 남북한이 만난다는 느낌은 별로 없어요. 학술 교류 파트너로서 만나는 거예요. 내가 북한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의식을 하지 않게 되죠. (교류협력 사례7)

대북지원 사례1은 다년간의 기술 교육 지원사업 도중, 남북한주민들이 만들어내는 ‘당연하지만 특별한 관계’에 대해 소개해 주었다. 남한의 교수에게 교육을 받던 북한 청년이 수업 중에 자신의 말에 집중하지 않고 딴짓을 했다. 그러자 가르치던 교수가 그 학생을 가리키며 나가라고 했고, 자신도 숙소로 돌아가 버렸다. 이 사업을 관리하던 사례1은 일촉즉발의 상황에 당황하고 있었다. 한 시간쯤 뒤에 북한 담당자가 와서 ‘직접 뵙고 드릴 말씀이 있다’며 교수님의 소재를 물었다. 남측 담당자는 교육을 받던 6명의 북한 청년들을 모두 데리고 남측 교수님이 묵고 있는 숙소로 갔다. 교수님이 문을 열자, 북한 청년들이 허리를 숙이며 사과했고, 교수님 역시 곧바로 제자리로 돌아와 교육을 마쳤다. 남북한주민들이 접촉지대에서 이데올로기를 넘어서는 새로운 관계로서 유사 사제관계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 (2) 행위의 변주<sup>188)</sup>

자기통제의 행위 규범이 느슨해지면서 개인의 행위에도 변주가 일어난다. 남북한주민 간 관계가 지속되는 시간에 따라, 혹은 당사자들의 개인적인 성향(character 또는 personality)에 따라 사회에서 통제된 언급, 또는 행위를 시도하는 것이다. 특히 다음과 같은

---

188) 변주(變奏)는 음악에서 어떤 주제를 바탕으로, 선율·리듬·화성 따위를 여러 가지로 변형하여 연주하는 것, 또는 그런 연주를 의미하며, 사회학에서 기존 방식으로부터의 변형, 변환, 변화 등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쓰인다.

행위의 변주가 두드러진다.

첫째, 자신의 이익과 필요에 의해 편법이나 불법이 일상화된다. 북한은 전력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어두워진 후 퇴근을 하려면 손전등이 필요했다. 그런데 초기 개성공단에서는 북한 직원들이 자신의 손전등을 가져와 회사의 콘센트에 충전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북한주민들은 건전지를 사용하지 않는 충전식 손전등을 주로 사용하는데, 북한 직원들이 손전등 배터리를 회사에 와서 충전한 것이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 손전등을 갖고 와 충전하다가, 모든 직원이 충전을 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손전등뿐만 아니라 다른 기계들까지 갖고 와 충전하게 되었고,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의 특성상 수많은 직원들이 한꺼번에 콘센트를 사용하면서 회사 전력망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었다.

회사에서는 북한 직원들을 설득해 개인용품의 충전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지만 콘센트에 꽂는 기계들은 늘어났고 실제로 화재가 나타나 위험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결국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남한 기업들은 별도의 공간에 북한 직원들을 위한 충전실을 만들었다. 혹시나 화재가 나더라도 충전실 외 공간까지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충전실이 만들어진 이후, 일부 직원들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대용량 배터리를 갖고 와서 충전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또 다른 예로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진 물건이나 초코파이가 시장으로 흘러나오는 경우도 있다.

보통 우리도 돈 모아서 계를 하잖아요. 들은 얘기로는 북한 직원들이 초코파이를 모아서 일정 기간마다 돌아가며 한 사람씩 주는 ‘초코파이 계’를 한다고 들었어요. 돈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초코파이를 시장에 팔면 생활에 도움이 되니까요.  
(개성공단 사례6)

저희와 같은 봉제업체는 원단회사에서 원단을 줄 때, 여유분을 줘요. 왜냐하면 원단이 오염되어 있거나 상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못 쓰니까요. 그래서 항상 생산을 마치면 원단의 2~3% 정도 여유분이 생겨요. 그걸 잔단이라 해요. 처음에는 저희가 잔단 모은 걸 가지고 직원들의 자녀가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어서 나눠줬어요. 그런데 언젠가 그게 시장에서 팔리기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죠.  
(개성공단 사례1)

둘째, 남한주민들에게 개인적인 부탁이나 청탁 등을 시도하며, 때로는 남북한주민들이 필요에 의해 상호 협력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개인 간 일탈 역시 처음부터 나타나지는 않으며 남북한주민 간 접촉의 경험이 축적되었을 때 나타난다. 또한 당국 간 관계, 실무진 간 관계에서 각각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로 비슷한 지위에서 비교적 편하게 사적 영역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제가 북측 직원들이 안쓰러워서 몰래 무좀약을 사서 갖다 준 적이 있어요. 현장에서선 안전화를 신으니까 무좀이 생기면 발이 엄청나게 상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북한 직원들이 와서 USB 있으면 좀 구해 달라고 먼저 요청하기도 하더라고요. (개성공단 사례6)

어떤 참사들은 대놓고 얘기를 해요. 한국드라마 같은 거 USB에 넣어달라고. 처음에는 MP3를 요구하다가 나중에 MP4가 나왔잖아요. 그것도 달래요. (개성공단 사례5)

북쪽 분들도 저희 단체 대표에게 하시는 이야기와 저한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다르고, 제 앞에서 하는 이야기와 남측 건설 관련 기술진들과, 흔히 말하는 기름밥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달라요. 지하, 천장, 벽 틈이나 외진 곳, 건설하는 기술자들만 들어 갈 수 있는 곳에서 그분들끼리 일하시다 보면 훨씬 더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술진들께 그런 행동은 하시면 안 된다고 부탁드립니다 해요. (대북지원 사례6)

### (3) 외형적 변화

외형적 변화는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외모의 변화이다. 개성공단 직원들의 신체적 건강이 보다 증진되고, 개인 청결 상태가 개선되었다. 특히 옷차림, 화장법, 헤어스타일은 시간이 흐르면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인 부분 중 하나이다. 그러나 외모의 변화에 대해서는 변수가 많다. 즉, 단순히 시대적인 변화인지, 북한사회 내 유행의 변화인지, 아니면 개성공단과 같이 남북한교류협력의 결과인지 명확하게 증명하기 어렵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북측 직원들이 입고 다니는 옷차림이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 시범단지에 있을 때 북측 직원들이 치마 저고리를 많이 입었어요. 검정색이나 파란색 치마에 흰색 저고리였는데 사실 저희 눈에는 예뻐요. 그런데 아무래도 관리하기도 불편하고 일하기도 불편하니까 옷차림이 바뀌더라고요. 우리 기준에서 보면 입는 것이 부족하기야 하죠.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어요. 겨울에 패딩 같은 옷을 잘 입고 다녀요. 옷뿐만 아니라 파마도 하고, 화장도 달라지고, 성형수술도 하고. (개성공단 사례2)

2007년 겨울 처음 개성공단에 들어가서 북한 직원들을 교육시키는데, 여직원들은 개털 같은 걸로 만든 똑같은 밉크코트를 입고,

남자 직원들은 똑같은 패딩 점퍼를 입고 출근을 하더라고요.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옷이었나 봐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북측 직원들이 외형적으로 많이 바뀌는 것을 느껴요. 옷의 색이 컬러풀해지면서, 하지만 입다가 무릎 위로 올라오는 치마도 한번씩 입고. (개성공단 사례4)

북한 직원들의 외모 변화는 엄청났죠. 2006년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는 남자는 인민복, 여자들은 흰 저고리에 검정 치마를 입는 경우가 90%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청바지를 입고 다니더라고요. 또 초창기에는 몸매가 드러나는 옷은 거의 안 입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여성 직원들이 완전히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고 다닐 정도로 옷차림이 바뀌었죠. (개성공단 사례6)

둘째, 말투와 어휘 등 언어적인 변화이다. 북한주민들은 대체로 ‘하십시오체(격식체 중 아주높임 존댓말)’를 쓰는데, 남북한주민 간 접촉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말투가 비교적 부드러워지거나 남한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해요체(비격식체 중 두루높임말)’를 따라 쓰는 경우도 있다. 어휘에서도 절충이 일어난다. 특히 남북한의 일상 언어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외래어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또는 자연스럽게 학습된다.

(처음에는) 된소리 같은 어투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점점 뭐랄까 좀 부드러운 어투로 바뀐 거죠. (개성공단 사례5)

처음에 개성공단에 갔을 때에는 제 나름대로 북측 직원들에게 성의를 표시하고 친해지려고 노력했는데, 북측 직원들의 말투 때문에 당황했었죠. 남북한사람들이 쓰는 말투 자체가 서로 차이가 나요. 북한 분들도 나쁜 마음은 아닌데 조금씩 말끝이 올라가거나 하

면 처음에는 상처가 났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북측 직원들과 웃으면서 농담도 하고 많이 친해졌어요. 말투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친해지고 그러다보니까 높은 톤으로 시비를 거는 듯한 처음 말투보다 약간은 부드러워졌어요. (개성공단 사례3)

저희 회사 북측 직원들 몇 명이 서울 말투를 좋아했어요. 서울 말투가 부드럽고, 억양이 없고, 사근사근하잖아요. 예를 들면 북한에서는 ‘○○동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동무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언니라고 부르라고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언니라고 부르더라고요. (개성공단 사례4)

#### (4) 통제된 감정의 표현

북한사회의 특성상 대남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감정 표현이 경직되어 있다. 북한주민들은 남북한 교류사업을 진행할 때, 남한의 지원이나 물자에 대해 감사를 표하지 않거나 북한 측 입장을 강하게 관철시킬 것을 당국으로부터 요구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사업에 대해 상호 신뢰가 형성되면 감사와 미안함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한다.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했을 때, 북한사람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진 거예요. 그 때, 직장장이 나이가 나보다 많았는데 많이 울더라고요. 제가 안아주면서 위로를 하니깐 나중에 많이 고마워했죠. (개성공단 사례1)

북한 친구가 교육 마지막 날, 저한테 “선생,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생각할 때마다 기억나는 게, 우리 앞에서 가끔 연설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웬지 모르게 가슴이 막 아파옵니다. 선생은 말을 정말 잘합니다.” (대북지원 사례1)

저희 기관이 지원하는 병원에 대기실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젊은 부부가 아주 깨끗한 인민 복장을 하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 어머니가 오늘 개안 수술을 했습니다. 간호사로부터 어머니 수술이 잘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손을 덥석 잡으며) 선생님, 남조선 의사선생님께 꼭 전해주시시오. 우리 어머니 눈 찾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북지원 사례3)

직접적으로 감정을 드러내거나 표현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교류협력의 현장에서 공감(sympathy)을 경험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개성공단 사례1은 함께 일하던 A부서 반장이 간암으로 사망하고 난 후 인사 기록카드를 통해 그에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딸이 한 명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보위부 참사에게 그 아이가 중학교를 졸업하면 해당 기업에 보내달라고 요청한다. 아빠가 다녔던 회사에 딸이 입사해서 경제적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였다. 사실 그는 인사문제에 대한 북측의 경직성을 알고 있는 터라 큰 기대를 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6개월 후 인사를 담당하는 참사가 그 제안에 감사를 표하며, 잊지 않고 반장의 딸을 데려왔다. 결국 딸은 아빠가 일했던 부서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남한 관리자들은 북한사람들로부터 깊은 정서적 공감을 경험하였다.

## (5) 남북한주민 간 상호작용

처음에 나하고 며칠씩 싸웠던 북한 친구가 있는데 이제는 저한테 돌도 없는 친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대북사업 하는 동안 저를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해줬어요. (대북지원사업이 지속되면서) 저는 북한사람들의 마음이나 태도가 변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변한 거예요. (대북지원 사례1)

남북한주민들이 만나는 공간에서는 북한주민뿐만 아니라 남한주민들 역시 의식과 태도, 외형적 변화를 경험한다. 언어 측면에서 보면 자발적으로 북한에서 통용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고 북한식 어휘와 말투를 저절로 학습하게 된다. 심층면접 대상자인 27명 중에서도 장기간 지속적으로 북한주민을 만나온 사람들의 경우 북한식 표현을 일부 사용하고 있었다. 물론 이들 스스로도 본인이 북한식 표현을 쓴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의식하지 못하고 익숙해진 표현들도 많은 것으로 보였다. 즉, 남한주민 역시 북한주민과의 만남과 대화 속에서 어휘나 관용적 표현 등이 자연스럽게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업무상 직원들과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데, 북측 사람들이 다수니까 저희가 북한 어휘를 사용하죠. 사무실 업무를 할 때에도 우리가 쓰는 말이 북측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휘로 많이 바뀌죠. 일부러는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요. 가령 우리가 종이상자를 ‘박스(box)’라고 부르잖아요. 북측 사람들은 한자로 ‘지함(紙函)’이라고 해요. 그러면 박스라고 얘기해도 알아듣고 지함이라고 얘기해도 알아듣는 거죠. (개성공단 사례2)

아울러 북한주민들이 남한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듯, 남한 담당자들은 북한 체제의 특성과 사회문화를 이해하게 된다. 또한 북한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기회가 닿을 때마다 질문을 하기도 한다.

북한주민들을 만나면 오히려 우리가 묻습니다. 가끔가다 을밀대 지나가다보면 거기서 결혼식 사진을 찍고 있거든요. 그러면 궁금하니까 북한은 결혼식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남한에서 <남북의 창>, <이제 만나러 갑니다> 같은 프로그램도 보니까 북한은 약혼도 한다는데 진짜 그런지 물어보기도 하고요. (대북지원 사례1)

## 2. 요인별 북한주민 의식 변화

지금까지 남북한의 접촉 경험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의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았다면, 2절에서는 남북교류의 현장 내에서도 시기, 공간, 출신 성분, 성별, 세대 등의 요인에 따라 북한주민의 의식 변화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만약 그렇다면 요인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2절의 분석 내용은 남북 간 접촉을 전제로 교류협력 및 인도적 지원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목격되는 북한주민 의식 변화이므로 본 절에서 제시하는 요인들 하나하나가 북한주민 의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라고 확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심층면접 대상자들이 접촉지대 내 관찰자로서 경험했던 시기, 공간, 출신 성분, 성별, 세대별 의식 변화의 다양성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 가. 시기별 의식 변화

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북한 내부의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충격기(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조정기(200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 ‘전환기(2010년대 중반~현재까지)’의 세 시기로 나누었다. 이와 같은 구분은 남북관계의 변화, 정치적 상황 등 다양한 내외부적 요인을 반영하고 있으며, 남북한교류협력과 인도적 지원사업에도 영향을 미쳐왔다.

‘충격기’로 규정한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의 기간은 남북교류협력 및 대북 인도적 지원 준비가 이루어진 시기이자 대북 사업이 시작된 시기이다. ‘조정기’는 노무현 정부 시절 남한의 대북 정책과 북한의 필요가 맞아떨어지면서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지원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상당

수 사업이 중단되었던 시기이다. ‘전환기’에 들어서는 남북한교류협력과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이 진행과 중단, 재개를 반복한다.

그러나 남북한 내외부 요인들이 남북 간 사업의 안정성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해서 북한주민들의 의식에도 반드시 영향을 미쳤던 것은 아니다. 2절에서는 남북한주민의 접촉지대에서 북한주민 의식이 ‘시기’라는 조절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만약 그렇다면 시기별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먼저 본 연구에서 충격기(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로 규정된 시기이다. 김대중 정부는 정경분리 원칙을 통해 경제협력사업과 사회문화교류,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남북관계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으로부터 분리하려고 시도하였다. 북한은 1994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1990년대 중반 두 차례의 대홍수로 인해 극심한 식량난과 경제난에 봉착하면서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을 요청하게 된다. 남북한교류협력 및 인도적 지원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정부 기관 및 민간단체들은 이를 계기로 본격적 대북지원을 시작하였다.

1999년 후반부터 2000년 초반에는 남북한 모두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한 것은 아니었으며, 북한 입장에서도 이 시기는 남한 당국과 단체들에 대한 경계와 탐색의 시기였다. 대북지원 사례<sup>8</sup>은 이 시기를 다음과 같이 기억한다.

처음에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의 지원단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지 않겠어요? 어느 정도 규모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단체인지 감별을 하는 거죠. 북한도 준비가 안 돼있었던 것은 마찬가지였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희 단체 같은 경우에 초기에 우리가 보건의로 분야를 지원하려고 하니까 민경련으로 물자를 보냈는데 민경련과 사업을 해보니까 규모나 성격이 안 맞는 거죠. 그러면 북한에서 이 사업을 빨리 민화협으로 넘기던가 해줘야 되는데

북측도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간 서신을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대북지원 사례8)

조정기(200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의 초반부 노무현 정부는 남북 간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평화를 추구하겠다는 기조를 갖고 있었다. 북한에서는 2004년 용천역 폭발사건이 발생하였고, 국제적십자연맹(IFRC) 평양사무소에 구호를 요청하였다. 이 사건은 남한 정부와 지자체, 비영리단체(NPO)와 비정부기구(NGO) 등의 인도적 대북지원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sup>189)</sup> 즉,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북한의 필요가 맞아떨어지면서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지원사업의 규모와 분야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었다. 예컨대 2004년 남북경제협력의 일환으로 개성공단사업이 시작되었고,<sup>190)</sup>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도 본격화되었다.<sup>191)</sup>

조정기의 전반부(2001년~2017년)는 남북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만큼, 1절에서 살펴보았던 북한주민 의식의 변화가 비교적 뚜렷하게 관찰되었던 시기이다. 그러나 이 시기 남북관계가 좋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북한은 2006년 7월 장거리미사일 발사, 10월 1차 핵실험, 2009년 5월 2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군사적 도발을 지속했다. 북

---

189) 황수환,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참여형 남북교류협력 추진 방향,” 『새로운 한반도 평화·협력의 시대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3차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 2018.8.28.~8.29.), p. 49.

190) 2000년 8월 9일 남쪽의 현대아산과 북쪽의 아태, 민경련 간 ‘개성공업지구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 이후 북측이 2002년 11월 27일 「개성공업지구법」을 공포하였고, 12월 남측의 한국토지공사, 현대아산과 북측의 아태, 민경련 간 ‘개발업자지정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2003년 6월 개성공단 착공식을 가졌고, 2004년 6월 시범단지 2만 8,000평 부지 조성을 완료했다. 2004년 10월에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사무소를 개소하였고, 2004년 6월 시범단지 18개 입주업체 선정 및 계약을 체결, 2005년 9월 본 단지 1차 24개 입주업체 선정 및 계약으로 본격 가동되었다.

191) 남북한은 2004년 하반기부터 통일국어사전 편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다가 2005년 2월 공동편찬위원회를 결성, 남한에서는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가 만들어지면서 사전 편찬 작업이 본격화되었다.

한주민들은 남북교류의 접촉지대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남한과 다르게 알고 있거나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행태를 보였다.

2006년에 1차 핵실험을 했을 때, 민간단체들이 지원사업 하러 북한에 들어가면 북한사람들이 핵실험에 대해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북한의 기술이 그만큼 발전한 거고, 미국한테 자신들의 힘을 보여준 것이라고. 2009년에 2차 핵실험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방북을 계속 했었는데 핵실험에 대해 매우 자랑스러워했어요. (대북지원 사례8)

유엔 등 국제사회 대북제재와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남한 정부의 5·24조치에 대해서도 개성공단 내 북한 직원들은 남한 측 분위기와 상반되는 인식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남한이나 미국을 공격하려고 핵이나 미사일을 만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공격을 받으면 자위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건데 그것도 못 만들게 하고 제재를 합니까?” (개성공단 사례1)

일부 단체의 대북사업은 북한의 도발, 남한 정권의 대북정책 변화 등 정치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했다. 예를 들어,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던 2007년에 만들어 놓았던 남북합의서에 근거하여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북측에 물자를 보내려고 하면, 통일부에서는 새로운 합의서를 갖고 오라고 요구하였다. 북한의 민화협 같은 기관은 남한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이러한 요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북한이 물자를 지원받기 위해 합의서를 새로 만들어주는 등 남한의 요구를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남한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조정기를 거치면서 남한 기업과 단체들이 쌍

아놓은 신뢰 관계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2011년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면서 북한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어요. 2011년 11월에 평양 이외에 지방을 지원하는 계획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했었는데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에 만나니까 지방은 안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지도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에 얘기한 것을 그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북한도 지도자가 바뀌면 남한과의 협력사업 방침이 바뀔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대북지원 사례8)

조정기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2008년 금강산 관광객 사망 사건으로 사업이 중단되었고, 2009년에는 개성공단 근로자 억류 사건도 발생하였다.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5·24조치가 시행되었다.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남측의 민간인까지 희생당하면서 남북교류에 대한 여론도 악화되었다. 5·24조치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을 제외한 방북 불허, 남북 간 교역과 교류 전면 중단, 북한 선박의 남한 해역 항행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모든 지원 차단 등으로 이어졌고 기존에 진행해왔던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지원사업의 대부분이 중단되거나 축소되었다.

이 시기 가장 큰 사건은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이다. 이때 일시적으로 개성공단 내 분위기가 사뭇 조심스러워졌다.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했을 때 북측 직원들이 우리에게도 조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어요. 우리는 애도는 표하지만 조문을 할 수는 없다는 상황을 설명하고 안 되면 피하기도 했어요. 그 후 김정일 위원장의 기일에는 공장을 쉬거나 회식을 취소합니다. 그럴 때는 남측 사람들이 밖에서 운동을 하거나 떠들면 북한 총국에서 못

하게 해요. 애도의 분위기에 동참은 해주지 못할망정 웃고 떠들면 되겠냐고요. (개성공단 사례2)

‘전환기’는 2010년대 초반 이후의 기간으로, 2013년 3차 핵실험, 2015년 DMZ 목함지뢰 도발, 2016년 4차, 5차 핵실험, 2017년 6차 핵실험 등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이에 대한 남한 정권의 대응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지원사업 역시 중단과 재개 등 진통이 계속 되어온 시기였다.

예컨대, 개성공단의 경우, 2013년에 북한에 의해 약 6개월간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바 있으며, 2016년에는 박근혜 정부에 의해 전면 가동중단 조치가 이루어졌다.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은 2005년부터 1년에 4차례씩 만나 단어 하나하나를 합의하였고, 2009년까지 20차례 회의를 진행해오다가 5·24조치 이후 4년 반 동안 중단, 2014년 하반기부터 두 차례, 2015년에는 세 차례의 회의를 진행, 2016년부터 다시 중단된 상태이다.

2013년도에 개성공단이 잠깐 막혔었잖아요. 그 전에 북측에서는 막힐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지 2~3일 전에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성 못 들어올 수도 있다고. 개성공단 중단된 지 6개월 지나고 다시 재개되어서 들어갔을 때 북측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가워했죠. (개성공단 사례6)

10여 년 가까이를 함께 지내면서 북측 직원들에게 나타나는 변화 중 하나가 처음 봤을 때에는 까맣고, 몸매가 말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얼굴이 하얘지고 배나온 중년 아저씨가 되는 거였어요. 여성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2013년 잠시 중단되었을 때 중간에 점검차 들어가 3개월 만에 북한 직원들을 봤는데 처음 만났을 때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까맣고 마르고. 개성공단 재개되고 몇 개

월 지나니까 다시 원상회복은 되더라고요. (개성공단 사례5)

이처럼 시기별 변화를 살펴본 결과, 시기에 따라 남북관계가 변화되어 왔으며, 이와 함께 교류협력 및 인도적 지원의 환경 또한 변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남북한 접촉지대 내 북한주민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에는 한계가 있었다. 개성공단 사례2는 남북관계가 나빠진다고 해서 친하게 지내던 북측 직원들이 갑자기 말이 없어지거나 적대적으로 대하지는 않았으며, 북한 직원들은 남북관계의 변화와 개성공단 가동을 별개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설명한다.<sup>192)</sup>

## 나. 공간별 의식 변화

공간의 구분은 중국 및 접경지역과 같은 외부 접촉지역, 사업이 주로 진행되었던 주요 도시 지역, 기타 지역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심층면접 결과를 토대로 공간에 따른 주민의식 변화 양상을 구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교류협력 담당자들이 접경지역과 주요 도시, 기타 지방을 모두 경험한 것이 아니므로 관찰 내용의 공간별 비교 분석이 어렵기 때문이다.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종사해 온 관계자들은 접촉 공간의 제약을 지적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교류협력 사례1은 10년 동안 민화협 버스를 타고 개성을 지나다녔지만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중간에 다른 지역에서 한 번도 내려 본 적이 없으며, 매번 가는 곳만 갈 수 있었다고 한다.<sup>193)</sup> 남북교류에서도 북한에는 보여줄 수 있는 곳과 보여줄 수 없는 곳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사례는 두 가지 이상의 공간에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증언한 바, 이를 토대로 공간에 따른 북한주민 의식

192) 개성공단 사례2 인터뷰(2018.7.13., 해당 업체).

193) 교류협력 사례1 인터뷰(2018.8.21., 해당 기관).

의 차이를 추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교류협력 사례7은 학술 교류를 위해 북한 학자들과 중국과 북한을 번갈아 가며 방문하였고, 대북지원 사례2는 북한주민들과 중국과 북한에서 대북지원에 대한 협의, 학술 교류 등을 해왔다. 이들에 따르면, 공간에 따라 북한주민의 태도에 미세한 차이를 느꼈다고 한다.

북한 학자들이나 참사들과 북한에서 만나는 것보다 중국에서 만났을 때 그분들이 더 편하게 생각해요. 평양에서 회의할 때와 중국에서 회의가 열릴 때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확실히 평양에서 할 때는 더 딱딱하게 행동해요. 회의에 관련된 얘기, 업무에 관련된 얘기 외에 다른 얘기를 잘 안 해요. 중국에서는 가끔 업무에 관련된 얘기가 아닌 사적인 얘기. 농담도 주고받는데, 북한에 들어갔을 때는 그런 게 확실히 줄어요. 말하는 태도가 더 형식적이고. (교류협력 사례7)

북한 분들이 저희와 북한에서 만날 때 조금 더 조심하는 거 같아요. 중국에서 볼 땐 상부나 감시에 대한 눈치를 덜 본다면 북한에서는 보는 눈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 조금 더 업무적으로 대한다고나 할까요? 체면 차리는 그런 느낌? 비유를 하자면 중국에서는 서로 형 동생 느낌이 난다면, 북한에서는 서로가 북한을 대표하고 남한을 대표하는 사람들끼리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그게 뭐 만찬이나 (공식적인) 행사 장소에서 그렇지 또 사적인 자리에서 일대일로 대화할 때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대북지원 사례2)

## 다. 집단별 의식 변화

### (1) 계층에 따른 차이

북한사회의 특성상 ‘출신 성분’은 정치·경제·사회적 계층을 구분

짓는 중요한 잣대이며, 출신 성분으로 인한 북한사회 내에서의 지위는 역전이 어렵다. 남북한주민들 간 접촉지대에서도 출신 성분 자체에 대해 심리적 경계를 갖고 있으며, 출신 성분에 따른 행태의 차이가 나타난다.

북한 분들 중에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들은 말이나 행동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일을 할 때 눈치를 별로 안 봐요. 가령 북한의 윗사람이 움직이면 북한사람들은 뒤에서 따라가면서 깎듯이 모셔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아주 자유스럽게 행동해요. (교류협력 사례7)

개성공단 규정상 남한사람과 북한사람이 일대일로 대화하는 것은 마지막에도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북한 직원들 사이에도 우리가 모르는 지위 차이가 있어요. 출신 성분이 좋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스스럼없이 일대일 대화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출신 성분이 낮은 사람들은 마지막까지도 저희와 얘기할 때 경계했어요. 눈치를 보고 항상 조심했어요. (개성공단 사례5)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은 상당한 엘리트들이라 외국 나오면 굉장히 자유스럽고요. 출신 성분도 굉장히 좋고 북한 내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는 전혀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접촉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주체사상 등 근원이 흔들리지는 않아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교류협력 사례7)

가끔은 평양에서 사람들이 올 때가 있어요. 공장 방문을 한다든가 그럴 때 여직원들에게 ‘저 남자 키 크고 잘생겼다’고 칭찬하면서 호감이 있는지 물어보면, ‘평양사람들과 자신들은 서로 다르다’는 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양에서 온 사람들은 쳐다볼 수도 없는 것처럼. 이미 본인들을 더 낮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북한 문화 자체가 출신 성분을 굉장히 중요시하다 보니까 대학까지 나온

사람들도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면 ‘북한 내에 계층에 따른  
구분이 확실하구나’하는 생각을 했었죠. (개성공단 사례3)

## (2) 성별 차이

북한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여성과 남성은 그 역할부터 뚜렷한  
차이를 갖고 있다. 남북한 접촉지대에서도 성 역할의 양태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남자분들 사상이 철저하게 가부장적이죠. 개성공단을 나올 때까  
지도 많은 변화는 없었어요. 남존여비 사상이 그대로 있었고. 마지  
막까지도 북측 직원 식당을 가보면 남자들은 생산 현장직이든 아니  
든 다 앉아있고, 여직원들이 다 밥을 차려줬어요. ‘남정네가 어디  
설거지하고 청소를 하냐’고 생각해요. 미화공, 조리공들은 100%  
여성들이 배정되고. (개성공단 사례5)

반면, 외형적 변화를 비롯하여 북한주민의 태도와 의식의 변화 과  
정 및 정도에는 성별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 남자들은 거의 다 인민복 입었었죠. 시범단지 때에도. 그  
런데 2009년과 2010년 이후에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인민복을  
입고 다니는 남자들이 여전히 많았어요. 남자들은 솔직히 입는 것  
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고 무디니까. (개성공단 사례2)

보통 가족 얘기, 집안 얘기는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더 많이 하  
는 거 같아요. (교류협력 사례7)

### (3) 세대 분화

세대 간 상호 불신은 어느 시대에나, 어느 사회에나 있었다. 북한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만, 남북한주민이 만나는 공간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상호 불신을 표현하는 세대 간 차이이다.

20~30대 젊은 친구들은 평양에 앉아있는 늙은이들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평양에 앉아있는 늙은이들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안위만 생각하면서 딱리 틀고 앉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어린 놈들에게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맡기겠냐고 하시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요즘 젊은이들’에 대한 불만은 다 있겠지만, 저희와 일하면서 세대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나눠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대북지원 사례1)

또 다른 세대 간 차이점은 자신을 표현하는 정도가 젊은 세대에서도 과감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외형적 트렌드에 민감한 것은 물론이고, 업무 이후나 주말 등 자신의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한다. 또 남북한 상호 관계가 친밀해지면, 자신의 일상을 비교적 편하게 공유한다는 점이다.

제가 개성공단에서 나올 때까지 북한 직원들의 외형적인 변화는 30~40% 정도에만 해당되었던 것 같아요. 젊은이들 위주로. 엄마나 아줌마들은 아마 자식들 먹이고 키우느라고 자기 자신의 외모 변화에는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아요. (개성공단 사례1)

저와 친했던 북한 직원들은 아무래도 젊다 보니까 정치적 문제에는 큰 관심이 없고, 남한의 연예 이야기나 데이트, 남한에 어떤 음식이 있는지 등에 대해 굉장히 궁금해 했어요. 말하자면 문화적인 관심이죠. 특히 젊은 직원들은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하

고 그런 느낌은 크게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하고 싶은 것 하고 놀아요. (개성공단 사례3)

북한의 성인 세대는 북한 체제의 단점을 잘 알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주의국가건설기부터 경험한 세대로 북한 체제에 대한 자부심과 소속감도 강하다. 반면 새 세대로 불리는 현재의 젊은이들은 1990년대 경제난 이전의 강력한 계획경제나 배급 시스템의 혜택을 덜 받은 세대로, 오히려 경제난 이후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해야 했던 현실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남북한 접촉지대에서도 느낄 수 있다.

북한의 60~70대들은 옛날부터 여기 살았던 사람들이라 북한 체제의 단점을 다 알고 있지만 자기 사상을 스스로 북한에 맞춰서 사는 거고요, 젊은 사람들은 북한의 실정에 대해 불만이 많죠. (교류협력 사례7)

### 3. 소결

본 장에서는 교류협력 및 인도적 지원이 북한주민 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한주민들이 물리적으로 만나는 공간에서 이뤄지는 북한주민 의식 변화는 그 내용과 성격이 다양하며, 요인별로도 차이가 나타난다. 그러나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을 통한 북한주민 의식 변화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도 있다.

첫째, 내연과 외연의 중층성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남북한교류협력 및 인도적 지원 과정에서 일어나는 ‘의식’의 변화가 즉각

적인 '태도'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예컨대 교류협력 과정에서 북한주민들은 남북한 간 경제적 격차를 더욱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지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와 같은 인식 변화를 표현하지도, 북한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언행을 하지도 않는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신변에 대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이유는, 북한주민들의 경우 체제 내 통제와 자기검열을 완전히 벗어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즉, 남한 경제의 우월성을 인지하고 있더라도 외연적으로는 스스로의 체제에 자발적으로 순응하는 의식의 중층적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주민 의식의 중층성은 남북교류를 통한 북한주민 의식 변화를 제약하는 한계이기도 하지만 남북관계의 변곡점이 될 만한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동안 축적되어온 남북한교류협력의 경험이 남한에 긍정적인 태도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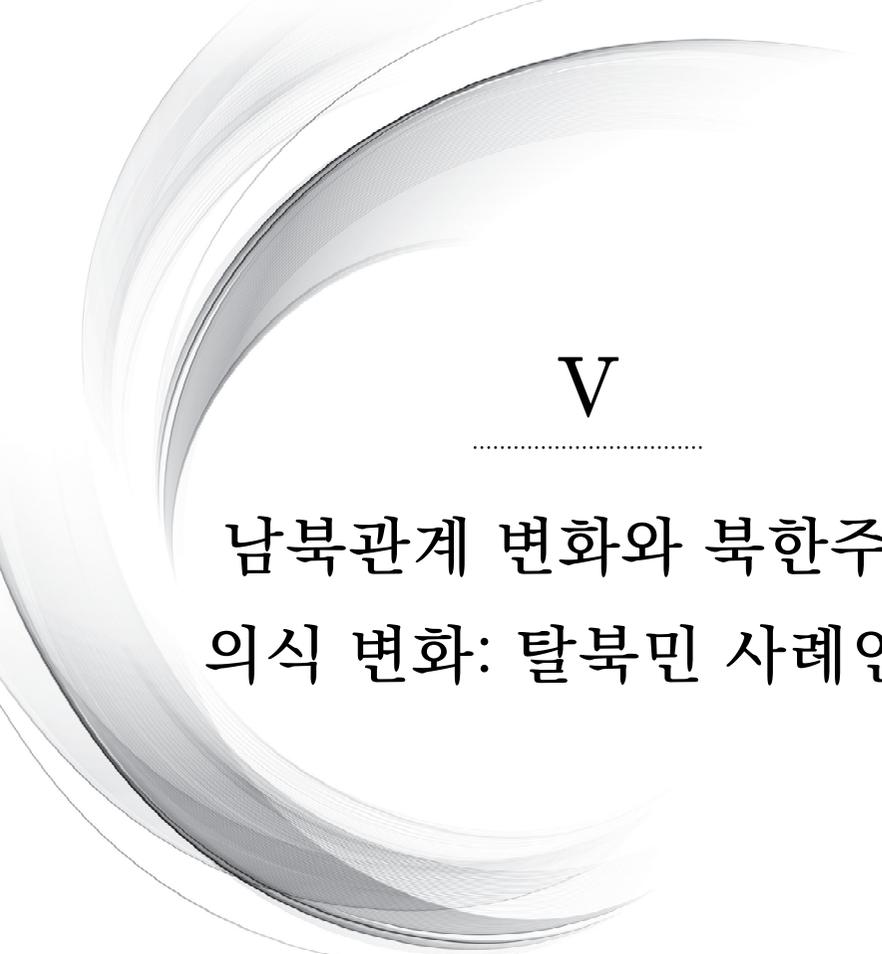
둘째, 변화의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접촉지대에서는 남북한주민들이 시공간과 일상을 공유하며, 그 속에서 의식의 변화를 경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에는 한계가 있다. 먼저 남북한 접촉지대가 형성되면서 상호 '이해'와 '인정'의 정도가 확대되지만, 사업 지속 기간이나 신뢰 정도와는 별개로 태생적으로 강요된 체제의 경직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영역이 존재한다. 남한주민도 역시 학습된 가치관과 남북한문화의 상호 이질감을 해소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음을 인정한다.

셋째, 이해, 공감, 진심 등 보다 높은 '심리적 통합' 단계의 정서들이 나타난다.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 불필요한 대립이 소멸된 상태의 마음, 즉 '진심'이 드러나게 된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남북한주민 간 통합을 논의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남북한이 역사 문화적으로 공유하는 정(情)의 문화이

자, 배려의 정서를 반영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남북한교류협력 및 대북 인도적 지원의 현장에서 관찰되는 북한주민 의식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비록 대북사업에 참여했던 남한 측 관계자들과의 심층면접을 토대로 북한주민 의식 변화를 분석해볼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으나, 한편으로는 공급자이자 관찰자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현상을 관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IV장에서 남북관계와 북한주민 의식 변화와의 상관관계를 남한주민의 시각에서 살펴보았다면 V장에서는 북한주민의 관점에서 남북교류협력 및 외부정보의 유입이 주민들의 의식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V장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를 활용하게 될 것이다.





V

---

남북관계 변화와 북한주민  
의식 변화: 탈북민 사례연구



남북교류협력 및 외부정보의 유입은 북한사회를 구성하는 문화적 맥락 안에서 주민들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수용된다. 물론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러한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활용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남북교류협력을 바라보고 유입된 정보를 해석하는 개별적 주체들의 사고를 탐색하는 질적 사례연구를 통해 북한주민의 의식 변화가 보여주는 구체적 방향과 성격의 실체를 조명해볼 수 있다.

V장은 남북교류협력과 정보 유입에 따른 북한주민의 의식 변화를 기술하고 해석하는 질적 사례분석에 해당한다. 이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탐색적인 연구질문을 제기하였다. 어떤 외부문화를 경험하였는가? 그것에 대한 반응을 공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을 접한 이후 나타난 반응의 주제는 무엇인가?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과 사고방식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기 위해 2018년 7월과 8월 중 32명의 탈북민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에 앞서 피면담자의 선정기준과 면담내용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첫 번째 단계로 남북교류협력 사례와 유입된 정보를 접해본 경험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줄 수 있는 탈북민을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사례 중 하나 이상의 경험을 한 사람으로 정보제공자를 제한하였다. (정보와 정보원의 유형에 대해서 <표 V-1> 참조)

1. 한국 정부 또는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물품을 수령하였거나 수령한 주민을 알고 있었다.
2. 한국 정부 또는 민간단체와 북측 상대방 간의 교류 또는 협력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주민을 알고 있었다.
3. 한국드라마, 영화, 가요 등을 유통(밀수 포함)하는 데 관여하였

거나 그런 사람을 알고 있었다.

4. 외부정보단속반(109그루빠, 비사그루빠) 출신이었다.
5. 선전선동 분야, 고등중학교, 혹은 대학에서 학생지도를 했던 교수 및 선생님 출신이었다.
6. 남북한교류 및 협력사업, 드라마나 가요 등 대중문화 접촉이 실제로 북한주민들의 의식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증언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로 남북교류협력과 정보 유입에 따른 주민의식의 변화를 탐색하기 위해 교류협력사업의 대상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회문화교류, 인도적 지원에 국한하였고 외부정보 유입은 영상과 음악, 책 그리고 뉴스와 라디오, 전단지(빠라)에 대한 반응으로 분석대상을 설정하였다.

심층면접은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공간에서 진행되었으며, 매회 인터뷰를 녹음하여 이후에 다시 기록하였다. 남북교류협력과 정보 유입에 대한 주제로 한정하기는 하였지만, 탈북민 자신이 생각하는 교류협력 및 정보 유입에 대해서도 공유할 수 있도록 인터뷰 일부를 충분히 비구조화된 채로 남겨두었다.

또한 인터뷰는 편안한 환경에서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게 함으로써 풍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시간제한 없이 가족, 고향 선후배, 친구, 지인, 남한에서 같은 대학을 다니는 동문과 같은 소규모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또한 개별인터뷰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3명은 1:1 면담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은 인터뷰 이후 연구에 필요한 후속 질문이 생길 때마다 연구자의 확인 요청에 응해주었다. 그룹 인터뷰를 통해 같은 연령대, 같은 고향에서 온 사람들끼리도 경험의 유무와 시기가 다르며 외부정보를 접촉했을

때에도 각자 다른 방식으로 해석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사례연구를 통해 북한주민이 갖는 정보접촉 경험의 계층별, 성별, 세대별, 공간별 특징과 경향을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다. 각자가 경험한 이야기들을 통해 부분적 실재를 기술하는 방식으로 북한주민의 경험을 분석하는 것이 사례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뷰 대상이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 중에서도 외부정보를 경험한 사람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외부정보에 대한 문제의식에 대해서 탐색할 수 있었으며 북한 문화권에서 성장한 사람이 남북관계와 새로운 문물을 해석하는 방식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이 사례연구의 의미가 있다.

자료수집의 주요 관심은 북한주민이 체험한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외부정보를 그들의 경험과 해석을 통해 듣고, 그의 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추론해 보는 것이다. 심층면접 대상자들의 이야기는 그 자신이 직접 경험했거나 가족 또는 가까운 지인이 겪은 일로 한정했으며 세부사항을 기술하고, 각각 주제별로 통합했다.

〈표 V-1〉 탈북민 심층면접 대상자의 특성과 경험의 유형

표기	성별	나이	탈북 이전 거주지	탈북 이전 직업	탈북	입국	1. 한교 정부 또는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 물품을 수령 하였거나, 수령한 주민을 알고 있었다.	2. 한교 정부 또는 민간단체의 상대방 2인 1박 또는 합력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주민을 알고 있었다.	3. 함포드래미, 영화 기요 등을 포함 유망업종 포함 하는 데 관여 하였거나, 그런 사업을 알고 있었다.	4. 외부장모다섯남 (109 그루빠, 비사 그루빠) 이었다.	5. 신전선동 분야, 고등중학교, 혹은 대학에서 학생 지도를 했던 교수 및 선생님 출신이었다.	6. 남북한교류 및 합력사업, 드래미나 기요 등 대중문화 접촉이 실제론 북한주민들의 의식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증명할 수 있다.
탈북민 사례1	여	50	함경북도 회령시	선동원	탈북	2003.10, 2009.2	●				●	
탈북민 사례2	여	52	함경북도 경원군	자영업	탈북	2000.8	●		●		●	
탈북민 사례3	여	40	양강도 해산시	교사	탈북	2008.1	●					●
탈북민 사례4	여	45	강원도 원산시	병원	탈북	2004.4	●					●
탈북민 사례5	여	48	함경북도 청진시	교양원	탈북	2002.11, 2008.11	●		●		●	●
탈북민 사례6	여	45	양강도 감항직군	교사	탈북	2015.10, 2016.1	●		●		●	●
탈북민 사례7	여	43	함경북도 청진시	식당 관리자	탈북	2010.6	●		●		●	●
탈북민 사례8	여	44	함경북도 무신군	주부	탈북	2010.6	●		●		●	●

표기	성별	나이	탈북 이전 거주지	탈북 이전 직업	탈북	입국	1. 한국 정부 또는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 물품을 수령 하였거나, 수령한 주관을 알고 있었다.	2. 한국 정부 또는 민간단체와 복종 상대방 간의 교류 또는 협력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주관을 알고 있었다.	3. 한국드라마, 영화, 기요 등을 유통(일수 포함) 하는 데 관여 하였거나, 그런 사람을 알고 있었다.	4. 외부장보단속반 (109 그룹별 비서 그룹별) 이었다.	5. 선산노동 분야, 고등중학교, 혹은 대학에서 학생 지도를 했던 교수 및 선생님이 출신이었다.	6. 남북학교류 및 협력사업, 드라마나 기요 등 대중문화 접촉이 상대적으로 빈번하였거나, 북한주민들의 의식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증언할 수 있다.
탈북민 사례9	남	48	함경북도 청진시	군인	2008.12.	2008.12.	●	●	●	●	●	●
탈북민 사례10	여	53	평안남도 개천시	주부	2004.12.	2007.7.	●	●				●
탈북민 사례11	남	48	황해남도 남포	경찰	2008.4.	2008.4.	●	●	●	●	●	●
탈북민 사례12	여	52	함경북도 회령시	교사	2005.4.	2010.6.					●	●
탈북민 사례13	여	39	함경북도 회령시	회사원	2008.10.	2009.3.						●
탈북민 사례14	남	38	함경북도 온성군	관계관리	2010.1.	2010.3.			●			●
탈북민 사례15	여	60	양강도 해산시	지영업	2007.11.	2008.3.	●	●	●	●	●	●
탈북민 사례16	남	53	평양시	정보관	2002.11.	2003.9.	●	●	●	●	●	●

표기	성별	나이	탈북 이전 거주지	탈북 이전 직업	탈북	입국	1. 한국 정부 또는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 물품을 수령 하였거나, 수령한 주관을 알고 있었다.	2. 한국 정부 또는 민간단체의 복종 상대방 간의 교류 또는 협력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주관을 알고 있었다.	3. 한국드라마, 영화, 기요 등을 유통(일수 포함) 하는 데 관여 하였거나, 그런 사람을 알고 있었다.	4. 외부장보단속반 (109 그루빠 비사 그루빠) 이었다.	5. 선전선동 분야: 고등중학교, 혹은 대학에서 학생 지도를 했던 교수 및 선전팀 출신이었다.	6. 남북교류 및 협력사업, 드라마나 기요 등 대중문화 접촉이 식재료, 북한주민들의 의식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증언할 수 있다.
탈북민 사례17	남	56	강원도 원산시	지도원	2004.8.	2005.7.	●	●				
탈북민 사례18	남	48	평안남도 남포시	관료	2006.6.	2006.6.	●	●				●
탈북민 사례19	여	48	황해도 남포시	주부	2004.8.	2004.8.	●	●				●
탈북민 사례20	여	43	함경북도 청진시	교수	2011.1.	2011.7.	●	●				●
탈북민 사례21	남	48	양강도 해산시	무역일꾼	2010.6.	2010.7.	●	●				●
탈북민 사례22	여	35	황해남도 신천군	농장원	2010.8.	2011.11.	●	●				
탈북민 사례23	여	50	함경북도 청진시	도서관	2009.11.	2010.10.	●	●				●
탈북민 사례24	남	32	양강도 해산시	교수	2015.11.	2016.1.	●	●				●

표기	성별	나이	탈북 이전 거주지	탈북 이전 직업	탈북	입국	1. 한국 정부 또는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 물품을 수령 하였거나, 수령한 주관을 알고 있었다.	2. 한국 정부 또는 민간단체와 북측 상대방 간의 교류 또는 합작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주관을 알고 있었다.	3. 한국드라마, 영화, 기요 등을 유통(일수 포함) 하는 데 관여 하였거나, 그런 사람을 알고 있었다.	4. 외부장모단숙반 (109 그룹별 비사 그룹)에 있었다.	5. 선전선동 분야: 고등중학교, 혹은 대학에서 학생 지도를 했던 교수 및 선생님 출신이었다.	6. 남북학교류 및 합력사업, 드라마나 기요 등 대중문화 접촉이 상대적으로 북관주민들의 의식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증언할 수 있다.
탈북민 사례25	여	50	평안남도 순천시	외화별이	2008.4.	2011.5.	●	●			●	
탈북민 사례26	남	55	황해남도 해주	과학원	2008.1.	2008.4.	●	●			●	
탈북민 사례27	여	35	함경북도 무산	상업 관리소	2012.9.	2012.10.	●	●			●	
탈북민 사례28	여	39	자강도 강계시	교수	2008.6.	2013.7.	●	●		●	●	
탈북민 사례29	여	45	함경북도 경성군	통계원	2003.1.	2005.7.	●	●			●	
탈북민 사례30	여	26	강원도 원산시	대학생	2014.2.	2014.4.	●	●			●	
탈북민 사례31	여	22	함경남도 함흥시	대학생	2015.12.	2016.1.	●	●			●	
탈북민 사례32	여	29	함경북도 무산군	고등학교생	2008.2.	2008.6.	●	●			1 ●	

# 1. 북한 내 주민의식 변화의 특성

## 가. 시장화와 인센티브

### (1) 시장 생존 방식의 학습교재

배급제는 북한주민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한다. 특권층과 일반주민을 구분하여 물품의 종류와 수량에 차등을 두고, 특별공급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이용해 영도자는 주민을 조련한다. 주민은 식량을 비롯한 생필품을 구하려면 지시에 순응해야 하고 자신이 배치받은 직장에 빠짐없이 출근함으로써 생존을 지속해야 한다.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교육받은 내용에 어긋남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배급체계는 무너졌다. 북한은 조직생활을 더욱 철저하게 지도함으로써 훼손된 국가위신이 초래한 주민의 불만과 욕구의 분출을 통제했다. ‘외부세계의 사상문화에 오염되면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또다시 미제의 식민지가 된다’는 논리를 내세워 각종 지침을 통해 생활양식을 규제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영도자는, 비록 지금 가난하지만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 고난의 상황을 견뎌내는 아버지로 구현된다. 배급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도 주민은 숙명적으로 자식된 도리를 해야 하는 존재인 것이다. 그러나 감정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중단된 배급을 해결할 수 없다. 주민은 각자의 방법으로 시장에 적응한다. 탈북민 사례25는 남한영상물이 시장에서의 생존교재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북한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일이 절대 쉽지 않다. 이 말을 뒤집으면 결국 약육강식이지요. 승냥이 하고 여우만 살아남았다는 말이에요. 약육강식의 수직구조에서 내가 어느 계열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살아남느냐 죽느냐가 결정된다는 뜻이죠. 95년부터 99년까지 굶어 죽을 때잖아요. 처음에는 95년 전까지는 북한 당국이 만들어놓은 수직구조만 있었어요. 권력 구조만. 그런데 장마당이 생기면서 또다른 수직구조가 생겼잖아요. 돈이 (이러한 구조를) 만들어 놓았잖아요. 이 수직구조에 누가 빨리 적응하는가. 빨리 돌아가야지 순서가 되거든요. 북한에 두 가지 구조가 생겼잖아요. 정책 구조하고 시장 구조하고 다르거든요. 서로 완전 달랐어요. 이럴 때 한국영화를 보고 배우는 거죠. 한국영화를 보면 약육강식의 구조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할 방법같은 것이 굉장히 잘 그려져 있어요. (탈북민 사례25)

고난의 행군을 거치며 어머니 당과 아버지 수령은 더 이상 북한주민에게 배급을 통한 생존을 지켜주지 못했다. 평안남도 순천에 살았던 사례25는 시장계급의 탄생을 ‘장사로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라고 설명했다. 주민은 장마당에 나가 물건을 사고팔아 이윤을 남기는 것이 무엇인지 몸으로 배웠다.

그러나 더이상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는 수령과 북한사회의 구조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럴 여유가 없었고 비교대상도 없었다. 그저 오늘의 생존을 위해 돈을 벌 뿐 정치에는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그러나 남한영상물을 보면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사례25는 자신과 같은 말을 쓰고, 별도로 다를 것 없어 감정이 이입되는 주인공이 살고 있는 남한사회와 더이상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는 북한사회의 구조를 비교하며 평가했다.

북한의 사회통제체제는 주민을 핵심계층, 기본계층, 복잡계층 등 3계층 51개 부류로 구분하여 엄격하게 관리한다. 그러나 국가가 만

들어 놓은 계급구조와 다른 새로운 계급구조가 탄생한다. 돈이 만들어 놓은 시장의 계급이다. 이 시장계급에 빨리 적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시장계급에서의 생존 방식은 국가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자본주의 약육강식이나 다름없다.

사례25와 그의 친구들은 남한영상을 보며 살아남는 방식을 습득했다. 사례25는 남한영상물뿐만 아니라 인도나 미국 영화도 본 적이 있지만, 그 영상 속 주인공에는 자기 자신이 겹쳐지지 않는다. 같은 말을 쓰고 나와 전혀 다를 것 같지 않은 주인공에게 감정이 이입되고 그들의 성공담이 곧 나의 현실에서도 실현 가능할 법한 이야기로 다가오는 것이다. 남한영상물 속 주인공은 자신이 처한 비참한 가난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개인의 능력으로 성공한다. 사례25는 자신이 속한 계급의 굴레를 시장에서 성공하는 방식으로 타개하기 위한 교재로서 남한영상을 보았다.

## (2) 개성공단과 인센티브

계획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인력관리 계획에 따라 북한주민은 당이 배치하는 직장에서 근무한다.<sup>194)</sup> 북한에서 노동에 대한 보수가 생활비 형태를 취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와 같이 단순히 노동력의 가치를 화폐로 표현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물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추가적으로 상금제와 장려금제, 가급금제가 있지만 북한에서 노동의 대가로 지불되는 임금은 생활비가 기준이다.<sup>195)</sup>

---

194) 북한 「사회주의로동법」 제15조, 제74조.

195) 황철,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에서 생활비등급제의 지위와 그의 역할,” 『경제연구』, 제88권 3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5), pp. 38~40.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노동자가 사회를 위한 공동노동에 참여하여 공정한 보수를 받고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사회주의 내에서 물질적 관심은 자본주의의 착취계급이 가지고 있는 개인 이기주의와 근본적으로 구별된다고 주장한다.<sup>196)</sup> 그러나 배급제의 붕괴와 함께 공식노동만으로는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게 되었다. 탈북민 사례26은 더 이상 권리가 아닌 의무일 뿐인 공식노동을 대하는 북한주민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제는 예전 주민들 같지를 않아요. 시장 활동에 워낙 익숙해진 사람들이라. 뭐가 됐든 좋으니까 우리에게 장사할 수 있는 시간만 달라는 거죠. 투잡뿐이에요? 쓰리잡, 포잡 다 하지. 소매업자는 당연히 도매업자에게 예측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본에 의한 계층이 생겨나는 거죠. (탈북민 사례26)

공식노동만으로 생계를 해결할 수 없는 북한주민은 공식노동이 끝난 후 2개, 3개, 4개의 개인사업을 통해 불법과 합법의 경계 사이를 비집으며 돈을 번다. 국가에 바라는 것은 개인사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의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지 말아달라는 것 정도이다.

시장 내 계급구조에 빨리 자리를 잡은 사람은 도매업을 통해 비교적 큰돈을 벌고, 뒤늦게 뛰어들었거나 시장 내 생존에 취약한 사람은 소매업에 종사하며 도매업자에게 예측당한다. 새로 구성된, 자본에 의한 계층 사다리에서 하부에 위치한 사람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만 적은 돈을 버는 것이다. 함께 잘살기 위해 각자의 능력에 맞춰서 일하고 필요한 만큼 나누며 소박하지만 공동이익을 위해 살

---

196) 정영섭, “물질적 자극과 그 적용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경제연구』, 제127권 2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5), pp. 21~24.

자고 배워온 그들에게 자본에 의한 계층구조는 열심히 벌지만 건강하지는 않은 체제로 받아들여진다. 이때 남북한의 성공적인 경제교류는 공식적인 노동을 하면서도 개인의 삶을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바로 개성공단이다.

개성공단에서 실제로 근무하면서 받았다는 월급과 인센티브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는 탈북민들 사이에서도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대를 품고 있다. 양강도 혜산에 살았던 40세 여성 탈북민 사례3은 개성공단 근로자로 선발된 자녀를 둔 사람을 모두가 부러워했다고 전한다. 꼬박꼬박 월급과 간식이 나오는 직장에 선발된 사람이 흔치 않았기 때문이다.<sup>197)</sup> 함경북도 청진에 살았던 50세 여성 탈북민 사례23도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사람을 부러워했다. 동네 사람들도 개성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들을 했다. 개성사람만 공단에서 일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개성으로 시집을 간 사람조차도 부러움의 대상이었다.<sup>198)</sup>

개성공단이 생기면서 그 지역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개성공단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은 유일하게 15달러 정도를 받았어요. 쌀을 살 수 있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성시에서는 어느 자녀가 개성공단에 들어가서 일한다고 하면 부러워할 정도로. 개성공단에 서 꼬박꼬박 돈이 나오고 간식이 나오니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탈북민 사례3)

남한의 기술이 북한에 전달되면 북한 경제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도 드러난다. 함경북도 경원에서 온 52세 여성 탈북민 사례2는 개

---

197) 탈북민 사례3 인터뷰(2018.7.21., 동국대학교).

198) 탈북민 사례23 인터뷰(2018.8.5., 동국대학교).

성공단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남한의 기술력이 대단 하더라고 들었다. 북한보다 더 다양한 사이즈의 기계부품과 탄탄한 공구의 질에 충격을 받았다. 기술자는 더 좋은 도구와 기술을 알아 본다. 남한의 기술력이 탐이 나는 것이다.<sup>199)</sup>

양강도 김형직군에 거주했던 탈북민 사례6은 개성공단에서 몰래 빼왔다는 양말을 중국 돈 40위안에 구매한 경험이 있다. 그녀는 북한 양말은 하루 이틀 신으면 앞인지 뒤인지 구분할 수 없게 고무줄이 늘어나고 사흘만 신어도 구멍이 나지만 개성공단 양말은 5년을 신어도 그대로여서 역시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물건은 질이 좋다고 느꼈다.<sup>200)</sup>

북한주민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고난을 겪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구조를 탈피하고 싶어 한다. 북한주민은 개성공단의 경험을 통해 남한과의 경제교류는 북한에게 더 좋은 기술을 전달해서 더 좋은 상품을 많이 생산할 수 있게 하고 그럼으로써 주민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는다. 그리고 장마당에서 접한 개성공단 물건의 품질은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켜준다.

개성에서 근무했던 사람은 남한사람과 함께 일한 경험을 북한사회 내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없다. 탈북민 사례27은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친척의 집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 개성공단에서 일해 보니 어떠한 질문에 친척은 같은 조선말을 하고 다 같은 사람이더라는 감상을 전했다. 남한남자들이 상냥하다는 인상도 전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말은 하지 않으려고 했다. 친척 간에도 남한사람과 함께 일해 본 경험에 대해 함부로 말을 나누기는 어렵다는 것을 사례27

---

199) 탈북민 사례2 인터뷰(2018.7.21., 동국대학교).

200) 탈북민 사례6 인터뷰(2018.7.21., 동국대학교).

도, 그의 친척도 이미 알고 있었다.<sup>201)</sup>

황해도 해주에서 외부정보단속반으로 근무했던 탈북민 사례11은 개성공단에서 일했던 사람 중에 남한사람과 함께 일해 본 경험을 이야기한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개성공단 근무자들 중 3분의 1은 감시자일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감시에 도청까지 동원되는 상황에서 남한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sup>202)</sup>

그러나 말을 하지 않아도 그들의 생활이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외양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1년 차 노동자와 2년 차, 3년 차 노동자의 안색은 시간이 가면서 달라진다. 달라지는 것은 걸모습과 체력뿐만이 아니다. 생각에도 체력이 필요하다. 생각도 당연히 변할 것이다.

북한회사에서 근무했을 때는 도로공사나 토지정리 같은 노동에 동원되어 배낭에 메고 나간 쌀로 밥을 지어먹으며 노력에 대한 대가도 없이 일해야 했는데 남한회사에서 일하고 나서부터는 월급도 받고 인센티브로 간식도 받고 도시락도 먹으니 비교가 될 것이다. 개성공단에서의 경험은 개성공단 근로자와 그의 가족들만 알 수 있고 대다수 북한주민은 알 수 없다. 그러나 말을 하지 않아도 향상되어 가는 노동자의 체력과 그들 가족의 생활상은 볼 수 있다.

그런 거 다 알죠. 김대중, 노무현 왔다 간 거야. 6·15, 10·4선언 모를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인식을 변화시키려면 장기적 차원에서 계속 끌고 나가야 된다고요. 영양실조 걸려 비실비실하는 사람이 누구하고 싸우겠어요. 장사해서 먹고 살 생각만 하지. 한국 정부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남쪽 사람들 들여보내고 북쪽 사람들 돈 벌러 왔다 갔다 하게 할 때 인식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한국

201) 탈북민 사례27 인터뷰(2018.8.12., 동국대학교).

202) 탈북민 사례11 인터뷰(2018.7.25., 동국대학교).

사람은 자유롭게 사는데 우리는 왜 못살까 하는 것을 피부로 느껴야 되는데 지금은 못 느끼잖아요. 개성공단 같은 것이 몇 개만 더 있어도... 개성공단 빨리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원산, 사리원, 남포, 청진 등에서 남쪽 물건이 막 생산돼서 옛날처럼 무슨 상표 가위로 잘라라 이런 말 할 형편이 안 되게 만들어 버려야 한단 말이에요. (탈북민 사례9)

함경북도 청진에서 외부정보단속반으로 근무했던 탈북민 사례9는 개성공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당장 먹을거리에 급급한 사람은 내일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없다. 그저 오늘 당장이 급할 뿐이다. 자신의 삶에도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 말만 왔다 갔다 하는 만남과 선언은 북한주민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이 있어야 한다.

사례9의 증언에 따르면 먼 곳에서 그저 나누기만 하는 대화는 북한주민에게 자신의 힘든 현실과 상관없는 언어유희로만 받아들여질 것이다. 사례9는 실천보다 말이 앞서는 정상회담에 대해 비웃는 북한주민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했다. 외부정보를 단속하며 얻은 경험을 통해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시절 지속된 교류협력이 북한주민의 일상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주었는지 다시 설명한다.

먹을거리도 부족해서 생각할 여유도 없는 북한주민에게 교류협력을 통한 지원은 그들에게 생각할 체력과 경험을 준다. 개성공단은 적어도 그곳에서 일한 사람에게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임금과 노동체계를 제공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근로자들과 이들을 바라보는 북한주민에게는 매우 구체적인 경험의 계기를 부여했다.

사례9는 개성공단과 같은 사업이 각 지역으로 분산되어 실시되고 남한의 문물이 주민의 일상으로 쏟아져 들어가면 예전처럼 눈 가리

고 아용하듯 남한 상표만 제거하는 것으로 검열을 피해 나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sup>203)</sup> 일부에게만 전달되면 그 일부는 검열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남한의 문물을 먹고 입고 쓰고 경험하면 그 모두를 감시할 수는 없다. 드라마와 음악, 뉴스 등 남한 정보의 유입과 예술 공연과 같은 사회문화교류는 그들의 실제 일상에서 너무나 멀다. 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써볼 수 없는 온갖 좋은 물건은 그저 ‘그림의 떡’일 뿐이다. 그러나 실제로 만질 수 있는 남한 물건이 내 수중에 들어온다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다.

개성공단에서 일한 경험이 없는 북한주민들도 개성공단에서 흘러나온 물건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수준을 보고, 직접 구매한 물건을 체험할 수 있다. 개성공단과 함께 연상되는 상징, 초코파이를 먹음으로써 자신도 그런 노동체계에서 일하면 어떨까 상상하며 기대를 갖기도 한다.

탈북민 사례25는 개성공단에서 일한다는 것은 얼마간 나누어 주고 끝나는 시혜적 지원을 뛰어넘어 근로자 가족마다 당장 오늘이 아닌 한 달, 그리고 일 년의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한 기회였다고 해석한다. 남한의 기업과 사람들이 들어가서 남한의 기업 경영방식을 보여주었고 초코파이와 같은 간식을 제공함으로써 남한을 맛보게 했다. 사례25는 남한을 맛본 개성 민심은 이미 남한에 기울어져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sup>204)</sup>

## 나. 사회적 다양성 인식과 이해관계의 다원화

### (1) 규범의 파괴와 개성의 표현

북한은 사회주의 이상향의 새로운 삶의 기준으로 모두 다 낡은 사

203) 탈북민 사례9 인터뷰(2018.7.22., 동국대학교).

204) 탈북민 사례25 인터뷰(2018.8.11., 동국대학교).

회의 봉건적 유물에서 벗어나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맞게 살아야 한다며 ‘사회주의 생활문화’를 북한주민의 삶의 양식으로 규격화했다. 고난의 선군시대 옷차림은 검소하고 소박하게 입는 것이 고상하고, 식생활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아끼고 자그마한 비판과 실망도 없이 각자가 노력하는 것이 모범적인 삶이라는 것이다.<sup>205)</sup>

그러나 모범적인 삶의 양태를 벗어나 살아도 괜찮은 사회가 있다는 것을 접하게 된 북한주민은 그 사회에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상상하며 관찰한다. 2010년 함경북도 무산에 살았던 탈북민 사례8은 남한드라마 <에덴의 동쪽><sup>206)</sup>을 보았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몰래몰래 영상을 공유하며 남자 주인공 송승헌을 좋아했다. 북한영상에서 사랑이란 그다지 낭만적이지 않고 정해진 틀에 갇혀있는데 남한영상물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상상의 범위를 초월하는 감정으로 자유롭게 사랑했다.

이 드라마를 다섯 번을 되풀이해 보며 그녀는 자신의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다는 점을 깨달았다.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같이 장사하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남한은 주말에 쉬는데 우리는 왜 매일 힘들게 장사를 해도 먹고 살기 힘든지 비교했다.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통제가 자유로운 삶을 보여주는 남한영상물을 통해 드러나게 된 것이다. 또 다른 드라마 <내 사랑 못난이><sup>207)</sup>에서는 가난한 사람도 부자와 사랑을 나눈다. 그런데 북한에서 결혼할 수 있는 대상은 비슷한 계층의 사람이다. 북한 안에서 자

205) 백옥련 외, 『사회주의생활문화사연구』, 제2판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0), pp. 229~252.

206) 김진만·최병길 연출, <에덴의 동쪽>, MBC 드라마, 2008.8.26.~2009.3.10., 56부작, 송승헌·연정훈 주연, 동시에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두 남자의 엇갈린 운명과 복수를 다룬 드라마.

207) 신유섭 연출, <내 사랑 못난이>, SBS 드라마, 2006.8.11.~2006.10.13., 20부작, 김지영·김유석 주연, 서른이 넘도록 행복의 그림자도 밝아보지 못한 지지리 복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

신은 수직상승할 기회가 없다.<sup>208)</sup>

사회적 규범으로 알고 있던 생활양식이 깨어지는 데는 충격과 불편함이 따른다. 1999년 평양 봉화예술극장에서 열린 <2000년 평화친선무대>에 남한의 핑클과 잭스키스가 초대되어 <나의 왕자님께><sup>209)</sup>와 <예감><sup>210)</sup>을 불렀다. 당시 평양에 거주했던 탈북민 사례26은 이 공연을 직접 보았다. 그는 자신이 남성이기 때문에 날라리풍 옷차림을 한 핑클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고 이야기했다.<sup>211)</sup> 평양에 살았던 사례16은 2002년 조용필의 콘서트를 관람했다. 조용필의 노래는 생각보다 실망스러웠다. 북한은 맑고 또박또박한 음성을 아름다운 것이라고 교육한다. 조용필이 등장하자 21세기 최고의 가수라고 사회자가 소개했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고 들었는데 막상 그의 음성은 ‘코맹맹이’처럼 들렸다.<sup>212)</sup>

2003년 7월 11일, 평양 모란봉에서 <전국노래자랑: 평양편>이 녹화되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북한주민 20여 명이 민요 등으로 노래자랑을 펼쳤고, 남한의 가수 중에는 송대관과 주현미가 초대되어 <해뜰날><sup>213)</sup>과 <또 만났네요><sup>214)</sup>를 불렀다.

탈북민 사례29는 조선중앙TV로 이 영상을 보며 남한에서 온 가수들이 옷을 각자 제멋대로 입고 있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북한에서 참가한 사람은 집단주의 정신에 맞게 조직적으로 단체복을 입었는데 남한 가수는 옷차림도 제각각이고 노래도 이상하게 부르고 생김새도 못 생겨서 남한은 별난 사람이 가수를 한다고 생각했다.<sup>215)</sup>

---

208) 탈북민 사례8 인터뷰(2018.7.22., 동국대학교).

209) 핑클, <2.5집 Special>, (서울: 로엔엔터테인먼트, 1999).

210) 잭스키스, <Blue Note>, (서울: 로엔엔터테인먼트, 2000).

211) 탈북민 사례26 인터뷰(2018.8.12., 동국대학교).

212) 탈북민 사례16 인터뷰(2018.7.29., 동국대학교).

213) 송대관, <송대관>, (서울: 오아시스레코드사, 1990).

214) 주현미, <13집 92 주현미 - 너를사랑해>, (서울: 한국음반산업협회, 1992).

215) 탈북민 사례29 인터뷰(2018.8.12., 동국대학교).

2018년 ‘남북평화협력기원 남측예술단 평양공연: 봄이 온다’가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2005년 조용필 콘서트 이후 13년 만이다. 탈북민 사례11은 강산에의 노래 <라구요>는 갈 수 없는 고향 생각이 날 때마다 소주를 마시고 눈물을 흘렸던 아버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북한주민의 심금을 울렸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자신의 심금을 울렸기 때문이다. 외부정보단속반이었던 사례11은 평양 공연을 관람한 사람에게는 공연 내용과 감상에 대해 발설하지 않도록 각서를 다 받았을 것이고 앞으로 공연은 TV 등을 통해 방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sup>216)</sup>

하지만 공연은 USB에 담겨서 북한주민 사이를 돌아다니며 모범적으로 부르지 않는 음악과 제각각 입은 옷차림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발성 규범인 맑고 또박또박한 음성과는 다른 발성의 노래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탈북민 사례32의 경우는 이러한 창법에 대해 “북한에는 성악 발성을 하는 가수들만 있는데 그 허스키한 목소리가 너무 매력적이다”라고 평가했다.<sup>217)</sup>

## (2) 처세술의 학습과 남한 방식의 모방

평안남도 순천에서 사업을 한 50세 여성 탈북민 사례25에게 남한 영상물은 자신이 적응하고 있는 새로운 사회구조인 약육강식의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는 교재로서의 역할을 했다. 남한영상물을 공부하듯이 보다 보면 출신이 비천한 여성이 사장의 아들과 결혼하게 되는 이야기가 많았다. 그녀는 그 여성이 단지 외모가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특별한 재능이 있기 때문에 비천

216) 탈북민 사례11 인터뷰((2018.7.25., 동국대학교).

217) 탈북민 사례32 인터뷰(2018.8.15., 동국대학교).

한 신분에서 수직상승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귀여운 여인><sup>218)</sup>을 예로 들었다. 사례25가 해석하기에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 못한 주인공 여성은 가방을 만드는 데 특별한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재를 필요로 했던 사장의 아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것이다.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만 자신이 처한 신분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녀는 남한영상물에서 약육강식의 자본주의 사회를 배웠고 역전의 기회가 보장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반드시 개인의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사례25는 신분이 역전되는 순간과 그렇게 되기까지의 방법을 눈여겨보면서 북한의 시장구조에서 살아가는 수단에 적용시켜볼 수 있었다. 주민들은 등짐장사에서 출발해 점차 다른 지역으로 물자를 유통시켜 이익을 얻는 되거리장사, 달리기장사, 차판장사로 규모를 넓혀가며 비공식 영역에서 활동한다.

사례25는 국가에서 엄격하게 단속하는 약품을 불법 제조하며 유통망을 넓혀갔고, 거래 상대방을 온전히 신뢰할 수 없는 순간에 남한영상물에 등장하는 언어를 통해 우회적으로 신뢰를 저버리지 않을 것을 약속 받았다. “이 말 못 들은 거로 할게”라는 말은 그녀가 사업했던 시장에서 통용된 새로운 언어이다. 그것은 내가 하는 불법 사업의 약점을 상대방이 쉽사리 이용하지 못하도록, 그의 약점을 잡아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거래 후에 상대방이 단속에 걸리더라도 자신의 책임은 없다는 함의를 가지고 있다.

사례25는 새로 생성된 시장에서의 계층은 출신 성분과 당성에 기초해서 분류된 공식 계층구분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 모자를 쓰고 실제로는 자본주의 거래를 시도하는 위험한 줄

---

218) 최이섭 연출, <귀여운 여인>, MBC 드라마, 2003.11.10.~2004.6.4., 145부작, 장신영·정보석 주연, 가난과 고난에 좌절하지 않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두 여자가 사회적 편견과 장벽을 뛰어넘는 사랑과 성공 이야기.

타기에서 남한영상물이 교재의 역할을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힘없는 개인이 시장에서의 계층 사다리에 애써 올라가도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단속과 동시에 모든 재산을 몰수 당한다. 북한에서는 감시체계가 촘촘하고 눈에 띄게 돈을 많이 벌면 법기관의 표적이 되었다. 그녀는 2002년 그동안 모은 재산을 몰수 당하면서 북한사회에서 아무리 개인이 노력해도 기득권 세력을 당해낼 수는 없다고 깨달았다. 돈보다 권력의 힘이 센 것이다. 카멜레온처럼 자신을 숨기는 처세술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남한영상물에서는 배울 내용이 많다. 대기업 회장 밑에서 30년 동안 복종하고 굽실거리며 살아왔던 비서의 가슴에는 숨긴 속내가 있다. 그리고 기회가 포착되는 순간 회장을 내쫓고 회사를 가로챈다. 북한은 생활총화 시간에 어머니당 앞에 자신의 심정을 다 말할 것을 교육한다. 그러나 새로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북한주민은 자신의 내심을 모두 말로 표현해서 말의 증거를 남기는 대신 남한영상물에 등장하는 몸의 대화를 모방한다.

한국영화 이런 거 많잖아요. 누구를 무시할 때 “나 너 같은 거 상대 안 한다”라고 말은 안 하고 지나가면서 어깨를 치는 장면이 많아요. 북한영화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이런 장면을 보면서 ‘엄청난 고수로구나’하고 생각했어요. 아무 말도 안하고 어깨를 치고 지나갈 때 먼저 친 사람은 아주 도도한 인상이지만 주도권을 잡은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 말을 해요? 그냥 지나가면서 툭 친 건데. 그런 걸 캡처를 해서 하나씩 보죠. 그런 게 재밌어요. (탈북민 사례25)

제스처는 사회적 행위 조직의 일부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감정 표현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다. 동일한 사회적 행위 안에 있는 다

른 대상을 자극하고, 반응을 나누는 여러 단계의 행위이다.<sup>219)</sup> 다른 사회에서 쓰이는 언어와 제스처라는 상징을 상상하는 데 개인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 그가 알고 있는 것과 무관한 다른 사회에서 온 것이기 때문이다.

심층면접 대상으로 선정한 탈북민 32명 중 27명이 남한의 드라마, 영화, 가요 등을 유통하는 데 관여했거나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알고 있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시장에는 남한영상물에 등장한 언어와 제스처가 통용되었다. 이것은 남한영상물에서 등장한 몸의 언어를 북한의 시장 참여자가 모방하며 습득하고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돈만 많이 벌어서는 다시 공식 권력에 재산을 몰수 당할 것이다. 따라서 나를 숨기는 전략이 필요하다. 남한영상물에서 상대를 위협할 때 쓰는 방법인 도청을 보고나서 사례25는 거래처와 서로의 약점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배신하거나 배신당하지 않는 전략을 사용했다. 또한 단속에 걸리면 도저히 출처를 말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구타를 당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물건을 산 사람이 단속에 걸렸을 때를 대비해서 희생양이 될 것 같은 도매상에게서 얼마간의 물건을 사게 했다.<sup>220)</sup> 향후 더 많은 이윤을 남겨줄 수 있는 자신을 보호해주는 대신 다른 도매상을 고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남한영상물에서 생존할 수 있는 수단과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처세술 그리고 사업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방법을 배워나감과 동시에 공식권력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이 됨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확보해야겠다는 아이디어를 얻는다. 거부할 수 없는 뇌물을 주고 자신은 더 큰 이득을 취하는 방법이다.

---

219) 조지 미드 지음, 나은영 옮김, 『정신·자아·사회: 사회적 행동주의자가 분석하는 개인과 사회』(파주: 한길사, 2010), pp. 119~128.

220) 탈북민 사례25 인터뷰(2018. 8. 11., 동국대학교).

## 다. 외부정보에 대한 개방적 태도

### (1) 숨겨진 감정의 재발견

북한주민은 외부정보로부터 다른 양태의 삶과 감정을 보게 되고 그럼으로써 자신도 몰랐던 내 안의 감정을 발견한다. 탈북민 사례24는 17살이었던 2005년 미국 작가 시드니 셸던의 추리소설 『내일이 오면』을 보았다. 도서관 앞 골목길에는 책을 파는 아주머니들이 있고, 교육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외국서적은 국가에서 허가되기 때문에 도서관이나 도서관 앞 책방에서 빌려보았다.

책방에는 국가에서 발행된 것이 아닌 남한 문체로 번역된 불법도서도 있었다. 북한의 소설에서는 무조건 선이 악을 이기는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런데 외국소설은 도둑이 이기는 것으로 끝나기도 했다. 북한에서 국가는 옳은 것이고 개인의 일탈은 나쁜 것이어서 결국 개인의 일탈을 국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내용으로 끝나는데 외국소설은 그렇지 않았다.

사례24는 2003년 새로운 경제관리체계가 도입되며 화폐가치가 혼란스러웠던 시기 부모가 겪는 어려움을 보면서 자랐다. 북한사회도 변했다. 자신의 계급성분보다 시장 내 지위가 더욱 중요해지기도 했다.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대학에 갈 수 없는 성분이었음에도 뇌물을 주며 대학에 갔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없었던 성분이었던 사람도 뇌물을 주면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그는 공부를 잘하는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바라볼 수 있는 미래에 분명한 한계를 느꼈다.<sup>221)</sup> 한계 밖으로 탈출할 수 없는 그들은 금지된 소설과 영상을 보면서 다른 방법을 찾기도 한다. 미국의 추리소설을 읽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221) 탈북민 사례24 인터뷰(2018.8.5., 동국대학교).

것인지 탐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소설 안에는 돈을 버는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들의 환상적인 삶과 감정도 들어 있다.

현실에서 꿈꿀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환상적인 작품을 찾는 거죠. 도서면 도서, 영화면 영화 닥치는 대로 보려고 하죠. 누구든지 사람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좀 더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고 북한 선전매체에 나오는 내용보다 훨씬 흥미진진한 이야기도 보고 싶어 하죠. 북한 당국이 영화는 엄격하게 단속하지만, 도서는 그렇게 심하게 안 보더라고요. (탈북민 사례24)

함경북도 온성에 살았던 38세 남성 탈북민 사례14는 친구와 손풍금, 기타, 피리를 반주 삼아 노래를 부르며 놀았다. 사례14가 좋아하는 노래는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sup>222)</sup>이다. ‘사랑을 하다가 상처를 받으면 지워버리면 되기 때문에 연필로 써야 한다’는 가사가 마음에 와 닿았다. 사례14는 빠른 노래보다 느린 노래가 좋았다. 사랑하는 여자는 끝까지 사랑해야 하고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속으로도 외우고 가끔 노래도 불러보았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성과의 못 다 이룬 사랑에 대한 아쉬움은 가슴 깊이 각인 되어 있기 때문에 괴롭지만, 남한의 노래는 그럴 때는 연필로 쓴 것처럼 지우라고 조언해준다.<sup>223)</sup>

그 노래가 이상하게 듣기 좋더라고요. <총 맞은 것처럼>도 있고 다른 노래도 있었는데. 그 노래를 들으면 뭔가 좀 이상하게. (질문: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었어요?) 저는 숫기가 없어서 나이 먹어서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아무튼 그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이 들뜨기도

222) 전영록, <83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서울: 지구레코드, 1983).

223) 탈북민 사례14 인터뷰(2018. 7. 28., 동국대학교).

하고, 사람은 상상할 때가 제일 즐겁다고 하잖아요. 정작 여자친구를 사귀어 보고 나니까 ‘별 거 아니네’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때는 (노래를 들으면서) 굉장히 신기하고 그랬어요. (탈북민 사례24)

양강도 혜산에서 온 32세 남성 탈북민 사례24는 안재욱의 노래 〈친구〉<sup>224</sup>와 〈찰랑찰랑〉,<sup>225</sup> 〈강남스타일〉<sup>226</sup>을 친구들과 부르며 놀곤 했다. 20명 정도 누군가의 집에 모여 한 그룹이 남한노래를 합창하면서 춤을 추면 다른 그룹은 이에 질세라 다른 남한노래를 합창하고 춤을 추며 놀았다. 남한노래는 감성적이고 북한에는 없는 사랑 이야기가 담겨있다. 사춘기가 지나가던 시절 사례24는 이성에 대한 노래를 들으면 싱숭생숭 가슴이 짜릿하고 남몰래 들으면 기분이 이상해졌다. 특히 백지영의 노래가 좋았다.

탈북민 사례16도 백지영의 〈충 맞은 것처럼〉<sup>227</sup>과 같은, 심금을 울리는 음악을 북한주민이 좋아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문화예술 작품에 등장하는 남녀간의 사랑은 조국을 향한 헌신에서 싹트는 형식이다. 주민들이 고민을 해야 할 대상은 연인과 헤어진 자신의 지극히 개인적인 아픔이 아니라 ‘당에서 준 혁명과업을 올바르게 수행하고 있는가’이다.<sup>228</sup>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없지만, 당연히 내 안에 담겨있는 사랑에 대한 감정을 시원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구이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생김새를 가진 백지영의 노래는 마치 자기가 부르는 것 같은 만족감을 준다. 그리고 자신도 몰랐던 내 안의 상처와 응어리처럼 해소할 수 없는 감정을 대신 건드려 줌으로써 북한주민의 인

224) 안재욱, 〈Reds In Anjaewook 4〉, (서울: 한국음반산업협회, 2003).

225) 이자연, 〈찰랑찰랑, 서울에서〉, (서울: Sewon Recording Co., Ltd, 1995).

226) 싸이, 〈6집 싸이6甲 part 1〉, (서울: YG PLUS, 2012).

227) 백지영, 〈Sensibility〉, (서울: (주)카카오M, 2008).

228) 탈북민 사례16 인터뷰(2018.7.29., 동국대학교).

간적 정념을 발산시킨다.

## (2) 일상에 스며든 남한의 춤과 노래

배급제의 붕괴와 함께 감정에 호소하는 것만으로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없었던 북한 당국은 선군정치를 기반으로 ‘혁명적 군인정신’을 인민들에게 요구했다.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살며 투쟁한다면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이겨내고 당이 맡겨준 혁명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모두가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낙천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독려한다. 이른바 ‘혁명적 낭만’으로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sup>229)</sup>

북한주민은 어렸을 때부터 ‘노래와 춤’ 등의 과목에서 집단주의 정신과 애국주의 사상을 교육받는다.<sup>230)</sup> 유치원에서부터 군중무용과 집단체조를 배우기 때문에 북한주민에게 노래와 춤은 일상이나 다름없다. 북한 당국은 노동 현장에서도 근로자가 윤택한 노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흥겨운 군중무용을 장려한다. 작업 중 쉬는 시간에 한바탕 춤을 추고 나면 노동하면서 쌓인 긴장과 피로가 금방 풀리고 작업능률도 더욱 오른다. 여러 사람이 함께 추는 군중무용은 사람들 사이의 우애를 도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탈북민 사례<sup>2)</sup>는 북한에서 음악과 체육은 일부만 향유하는 예술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대중음악과 대중체육으로 교육받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서든지 사람들이 자유롭게 노래하고

---

229) 김정일,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 1996년 1월 14일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과 한 담화,” 『김정일 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 137.

230) 이경란, “북한 유치원 교육과정의 성격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p. 43.

춤을 춘다고 설명했다. 그녀가 본 모든 북한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춤도 잘 춘다.

그러나 남한사람은 그렇지 않다. 노래방에 가야만 노래하고 춤을 추는 남한사람들이 그녀에겐 좀 답답해 보인다.<sup>231)</sup> 함경북도 회령에 살았던 탈북민 사례1도 북한에 전기도 공급되지 않고 구경거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누군가 기타를 치면 함께 노래를 하며 오락회를 즐겼다.<sup>232)</sup>

그러나 북한에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장려하는 노래와 춤에도 금기는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북한의 사회주의 문화에 반동적인 사상을 침투시키기 위해 퍼뜨린 퇴폐적인 날라리풍 노래와 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퇴폐적인 노래와 춤은 자본주의 사회의 패륜을 담고 있기 때문에 북한주민의 건전한 생각과 건강한 육체를 병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sup>233)</sup>

비사회주의의 검열로 대표되는 사회통제시스템은 북한주민을 강력하게 통제한다. 조직생활을 더욱 철저하게 지도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욕구 분출을 통제하고자 여러 가지 시도를 해 왔다. ‘비사회주의의 그루빠’를 구성하여 주민이 당의 지도를 따르지 않고 자유주의적 사상에 빠져가는 것을 단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주민은 비사회주의적 춤을 춘다.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디스코와 재즈는 그냥 춤이 아니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북한의 정신을 타락시키기 위해 침투시킨 침략의 무기이다.

북한주민들에게 가장 익숙한 남한노래는 가수 최진희가 1984년 발표한 <사랑의 미로><sup>234)</sup>이다. 외부정보단속반으로 활동한 탈북민

---

231) 탈북민 사례2 인터뷰(2018.7.21., 동국대학교).

232) 탈북민 사례1 인터뷰(2018.7.21., 동국대학교).

233) 김정일, 『무용예술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 47~50.

234) 최진희, <2집/솔로 1집 사랑의 미로/물보라>, (서울: 한국음반, 1984).

사례9는 〈사랑의 미로〉가 지금도 북한주민에게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조차도 부를 수 있다고 했다. 북한 노래에는 인민을 교양하는 가사가 들어간다. 그러나 남한노래에는 정치적으로 자신을 교양하려는 목적을 담은 가사가 없다. 북한의 수령이나 북한의 체제를 비난하는 내용도 담겨있지 않다. 그저 노래를 만든 개인의 심경이 담겨 있을 뿐이다.<sup>235)</sup>

1987년 김포 애기봉을 마주한 황해북도 개풍군 전방에서 군 생활을 했던 탈북민 사례16은 바람이 부는 새벽에 보초를 설 때면 남한에서 들려오는 노래를 들었다. 새벽 5시부터 6시 사이였다. 이 시간에는 보통 졸병이 보초를 서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상하게도 상급자가 등장하여 졸병에게 들어가 쉬라며 자신이 보초를 섰다.

두 명이 서야 할 초소에 빼곡히 들어와 앉아있어요. 중대장까지.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sup>236)</sup>가 흘러나와요. 그러면 어떤 높은 가사를 받아 적어요. 서로 노는 자리에서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하면서 ‘너는 (남한노래) 두 개 알지? 나는 세 개 안다’, 이런 심리가 생기더라고요. 남한노래를 내가 제일 많이 알고 있으면 앞서있거나 깨어있는 사람으로 느끼는 거죠. (탈북민 사례16)

여성의 외모에서도 남한풍을 따라하면서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사례16은 80년대 북한 여성들을 뒤에서 보면 모두 한 사람처럼 보였다고 털어놓는다.<sup>237)</sup> 이른바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맞춰 부풀린 송이버섯처럼 다듬어진 머리는 당에서 정해진 머리모양이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다들 남과는 다른, 개성 있고 예쁜 머리모양을 하고 싶었을 것이다.

235) 탈북민 사례9 인터뷰(2018.7.22., 동국대학교).

236) 조용필, 〈창밖의 여자〉, (서울: 지구레코드, 1979).

237) 탈북민 사례16 인터뷰(2018.7.29., 동국대학교).

조선중앙TV에서 남한의 대학생들이 시위하는 뉴스를 보여주면 여성들은 젊은 남한 여성들의 옷차림과 머리모양을 따라했다. 이들의 외모는 북한 여성들이 알고 있는 여성스러움과 거리는 멀지만, 얼굴을 붉혀가며 제 할 말을 외치는 시위대 속의 여성은 생머리인 사람도 있고 파마머리를 한 사람도 있으며 제각각 자유로운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장면 앞에서 북한주민은 서로 말은 하지 못하지만 마음속에서 깊은 갈등에 휩싸인다. 갈등은 내가 알고 있던 세계 밖의 무언가 새로운 것을 접했을 때 찾아온다. 왜 나는 저렇게 자유롭지 못하고 금기 안에 갇혀있는 것인가에 대한 번민이다. 번민은 금기를 부수고 싶다는 욕망을 동반한다. 욕망은 당에서 정해진 머리모양을 바꿔가며, 남한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어가며 분출되고 그런 시도를 한 사람은 남한노래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역시 깨어있는 사람으로 보인다.

북한 체제를 비난하는 의도를 담고 있지 않은 음악은 북한주민에게 위협적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남한음악을 들어도 죄의식을 동반하지 않는다. 그리고 노래에는 춤이 빠질 수 없다. 춤은 자기도 모르게 몸이 저절로 흔들려지는 것이다. 집안에서 몰래 남한노래를 틀어놓고 춤을 추면 밖에 나가서도 흥얼흥얼 콧노래가 나오고 남한의 춤을 추게 된다.<sup>238)</sup>

단속 나오는 사람들이 가서 한참 지켜보거든요. ‘지금 식당에서 퇴폐적인 춤을 춘다’고 해서 가보면 단속을 할 형편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애들이 너무 약아 빠져서 단속반원이 돌아설 때마다 남한 춤을 추거나 적당히 반반씩 추기 때문에 결국 그냥 흥이 나는 춤일 뿐이지 남한춤이라고 딱 꼬집을 수 없는 거죠. (탈북민 사례9)

238) 탈북민 사례17 인터뷰(2018.7.29., 동국대학교).

북한에서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 수령과 북한 체제에 대한 비난은 절대로 할 수 없다. 그러나 음악은 비교적 자유롭다. 북한에서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모이면 노래도 부르고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춘다. 북한 내 자본주의 문화 유통을 막는 외부정보단속반은 비디오테이프나 불법 채널이 잡히는 라디오를 소지하고 있는 주민을 단속할 수 있다. 그러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주민을 만났다고 해서 그가 남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연변(延邊)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를 당장 구별하기는 어렵다. 설령 남한노래를 듣고 부르고 있는 사람들을 단속하더라도 단속반 역시 남한노래를 듣고 알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해질 수도 있다.

외부정보단속반이었던 48세 남성 탈북민 사례9는 증거가 남지 않는 춤에 대해 이야기한다. 영상이나 음악, 그리고 책은 증거를 남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강남스타일 춤과 브레이크 댄스를 추는 현장을 찾아내 ‘왜 날라리 춤을 추냐’고 단속하면, 주민들은 ‘빨리 추면 날라리 춤이고 천천히 추면 민속춤이냐’며 항의한다. 영상으로 녹화하고 있지 않다면 춤은 행위와 동시에 사라진다. 단속 나온 사람이 지켜보고 있어도 북한음악에 남한춤을 섞어서 추면 그저 흥이 나는 춤일 뿐이지 남한춤이라고 단속할 근거가 없다.<sup>239)</sup>

### (3) ‘삐라’의 유희과 죄의식

황해남도 신천에서 온 35세 여성 탈북민 사례22는 김일성의 얼굴에 낙서를 한 삐라를 보면 왜 우리 아버지 장군님을 이렇게 욕하는지 기분이 좋지 않았고 남조선은 무서운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sup>240)</sup> 황해남도 해주로 장사를 하러 갔던 52세 여성 탈북민 사례12는 산길

239) 탈북민 사례9 인터뷰(2018.7.22., 동국대학교).

240) 탈북민 사례22 인터뷰(2018.8.4., 동국대학교).

을 가던 중 남한으로 탈출한 북한 고위급 간부와 김정일이 천연색 사진으로 담겨있는 뼈라를 보고 고위급 간부도 남한에 간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뼈라를 보았다는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할 수 없었다. 무서웠기 때문이다.<sup>241)</sup> 남한의 개성 장풍군 건너편에 있는 황해남도 해주에서 군복무를 했던 탈북민 사례9는 남한에 귀순하면 한 사람당 4,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준다는 뼈라를 본 적이 있지만 속지 않았다.<sup>242)</sup>

남북 접경지역인 황해남도 해주에서 외부정보단속반으로 근무를 했던 탈북민 사례11은 1987년 처음 뼈라를 보았다. 남한의 뼈라가 발견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사례11은 공장과 기업소에 비상소집을 통지하고 모인 사람들과 산에 올라가서 뼈라를 수거했다. 사람들은 수거하면서 하나씩 주머니에 넣었다. 뼈라에는 일가족 11명과 함께 탈북한 김만철이 남한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는 내용과 김일성과 김정일의 세습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 그리고 김정일의 부인이 여러 명이라는 내용 등이 담겨있었다.<sup>243)</sup>

깜짝 놀랐죠. ‘저들은 사람이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김일성 부자에 대해서 원망 섞인 생각들도 하게 되죠. 북한에서는 이혼만 하면 감옥행이잖아요.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는 몇 명씩 부인을 가졌다는 소식을 접하다 보니까 ‘참 이중성을 가진 놈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탈북민 사례11)

뼈라에 담긴 내용 중에는 20대의 북한 병사들을 심리적으로 자극하는 내용도 적지 않았다. 탈북민 사례16은 강릉 해수욕장의 모습이

241) 탈북민 사례12 인터뷰(2018.7.28., 동국대학교).

242) 탈북민 사례9 인터뷰(2018.7.22., 동국대학교).

243) 탈북민 사례11 인터뷰(2018.7.25., 동국대학교).

담긴 뼈라를 보기 전까지는 속옷과 다름없는 작은 수영복을 입은 여성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 뼈라에는 비키니를 입은 여성과 팬티와 다름없어 보이는 반바지 수영복을 입은 남성이 어울려 놓고 있는 사진이 담겨있었다.

그는 군 생활 7년 내내 뼈라를 보았다. 처음 뼈라를 접했을 때에는 대북심리전에 동원된 선전원들이 일부러 거짓 사진을 찍어 보냈다고 생각했지만 7년 동안 남한에서 송출하는 음악을 듣고 남한영상을 볼 때 점점 이것이 진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 여자를 가질 거야.’ 이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9mm 9연발 권총 한 정을 갖고 오면 이런 미인과 당신이 함께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앞뒤 안 재는 경우도 있죠. 나는 많이 참았어요. (탈북민 사례16)

북한의 20대 군인들은 대부분 연애를 해본 적이 없다. 사례16은 서른 두 살 제대할 때까지 여성의 손을 만져본 적도 없다. 몇 년에 한번 행군 길에 지나가는 여성을 보게 되면 행운이라고 생각했다. 밤에 누워있으면 낮에 본 뼈라 속 여성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남한으로 오면 영웅대접을 받고 사진 속 예쁜 여성과 만날 수 있다는 뼈라의 내용도 자꾸 생각났다.<sup>244)</sup>

북한에서 조국은 수령이며 수령은 곧 조국이다.<sup>245)</sup> 조국은 어머니와 같다. 자식이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바로 육체적 생명을 준 은인이기 때문이다. 조국은 자신에게 사회정치적 생명을 주었다. 어머니와 같은 조국을 위해 돌도 없는 목숨을 서슴없이 바

244) 탈북민 사례16 인터뷰(2018.7.29., 동국대학교).

245) 김정일,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는 철저히 보장 되어야 한다,” 김정숙 편, 『공산주의 생활윤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0), p. 157.

쳐야 고귀한 생명, 아름다운 희망, 위대한 행복을 지닐 수 있다. 왜냐하면 바로 조국의 운명에 의하여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sup>246)</sup>

그런데 빠라는 그 조국과 어머니를 동시에 배반하라고 유혹한다. 불온한 목적을 담은 빠라의 유혹을 밤새 떨치지 못한 채 청년은 불온한 생각을 계속한다. 배신은 죄의식과 두려움을 낳고, 죄의식과 두려움은 고통으로 이어진다.

주로 남북 접경지역을 통해 들어오는 빠라에 대해 북한은 ‘만지면 손이 썩고 병에 걸리는 치명적인 독극물’이라고 교육한다. 그러나 일단 빠라를 접한 사람들은 신격화된 수령이 알고 보니 부정한 축첩을 거듭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에 분노하고,<sup>247)</sup> 비판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수령을 비판하는 빠라로부터 자신과 동격인, 비판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수령을 발견하기도 한다.<sup>248)</sup> 빠라에 들어있는 내용은 보지 않더라도 달려만 모아서 식품을 구매하며 더 많은 빠라가 오기를 기대하기도 한다. 그러나 발각되면 위협에 처하기 때문에 빠라라는 존재 자체에는 여전히 두려움을 갖고,<sup>249)</sup> 빠라에 등장하는 북한의 실상을 읽은 북한주민은 충격과 함께 무서움을 느낀다.<sup>250)</sup> 남한으로 오면 아름다운 여성과 결혼할 수 있고 좋은 차와 집을 소유할 수 있다는 유혹의 메시지는 청년들의 마음에 번민을 안겨주지만, 자신의 귀순이 가족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괴로워한다.<sup>251)</sup>

---

246) 김경숙 편, 『공산주의 생활론리』, pp. 136~154.

247) 탈북민 사례11 인터뷰(2018.7.25., 동국대학교).

248) 탈북민 사례25 인터뷰(2018.8.11., 동국대학교).

249) 탈북민 사례15 인터뷰(2018.7.28., 동국대학교).

250) 탈북민 사례12 인터뷰(2018.7.28., 동국대학교); 탈북민 사례22 인터뷰(2018.8.4., 동국대학교).

251) 탈북민 사례16 인터뷰(2018.7.29., 동국대학교).

한편으로는 남북한이 공생하며 발전할 것을 생각해도 부족한 시기에 불필요한 심리전 도발을 한다는 것에 분노하는 경우도 있다. 어차피 북한주민 대다수가 남한이 더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뼈라를 대량 살포한다는 것은 결국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인 행위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들은 공식경로를 통한 인도적 지원을 통해 의약품이나 식품을 보내는 것이 훨씬 긍정적인 의식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한다.<sup>252)</sup>

## 라. 국가주도 사회구조에 대한 비판적 이해

모든 북한주민이 남한이 잘 살고 있는 것을 몰라서 고통을 감내하며 당과 수령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양강도 혜산에 살았던 32세 남성 탈북민 사례<sup>24</sup>는 북한주민 10명 중 7~8명은 자신들이 교육받은 것과 달리 남한이 훨씬 부유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한다. 몰라서 그저 속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sup>253)</sup> 함경북도 청진에서 중국을 오가며 장사했던 50세 여성 탈북민 사례<sup>23</sup>의 언니는 남한영상물을 보여주려고 하면 ‘당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왜 하냐’며 보지 않을 정도로 당에 대해 높은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다. 언니는 김정일이 주먹밥을 먹고 쪽잠을 자며 인민들을 걱정한다는 뉴스나 노래를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 언니한테 왜 우냐고 물어보면 장군님이 쪽잠을 자고 주먹밥을 먹으니까 눈물이 난다고 했다. 사례<sup>23</sup>은 북한에는 자신의 언니처럼 당과 수령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체제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sup>254)</sup>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의 식량난 이후 외부에서 지원된 물자를 접

252) 탈북민 사례9 인터뷰(2018.7.22., 동국대학교).

253) 탈북민 사례24 인터뷰(2018.8.5., 동국대학교).

254) 탈북민 사례23 인터뷰(2018.8.5., 동국대학교).

한 북한주민은 제한적 공간에서나마 지원식량의 분배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 외부인들을 만날 수 있었다. 함경북도 회령에 살았던 탈북민 사례12는 남편이 군인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표시가 찍힌 자루에 들은 쌀을 배급받았었지만 그것이 남한에서 왔다는 것은 몰랐다. 동생이 ‘대한민국’이 ‘남한’이라고 말해주었을 때 비로소 남한의 식량지원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순간 어렸을 때 배운 노래가 생각이 났다. “뚝뚝뚝뚝 내 동생 신바람 나서 승리호 자동차 몰고 간대요. 무엇을 실었느냐 물어봤더니 헐벗고 굶주리는 남녘의 어린이를 구원하러 쌀이랑 구호물자 실어간대요.”<sup>255)</sup> 구원의 대상이었던 남한에게 식량을 지원받는 뒤바뀐 처지를 절감하게 하는 노래였다.

함경북도 청진의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했던 탈북민 사례23은 2004년 ‘대한민국’이 표시된 40kg짜리 쌀포대를 받았다. 동시에 유엔에서 모니터링을 나오면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하라고 교육받았다. 그렇게 해야 지원이 계속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쌀포대와 쌀의 질이 좋은 것은 남한이 잘산다는 것을 의미했다.<sup>256)</sup>

양강도 혜산에 살았던 탈북민 사례15는 2006년 주민들에게 직접 옥수수가 지원되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해 유엔에서 나온 5명을 본 경험이 있다. 인민반에서 옥수수 24kg씩을 집집마다 나눠주고 나서는 학생과 민주여성동맹원을 모아놓고 삽과 들것을 안겨주며 일하는 모습을 연출하라고 했다. 유엔에서 모니터링 나온 사람들은 이들의 모습을 촬영했다.

그들이 떠나고 3일 후 옥수수를 다시 걷어갔다. 인민반에서는 식량난에 대해 미국이 북한의 경제를 봉쇄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

---

255) 탈북민 사례12 인터뷰(2018.7.28., 동국대학교).

256) 탈북민 사례23 인터뷰(2018.8.25., 동국대학교).

했다. 미국 때문에 우리 경제가 어려우니까 미국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이야기는 평생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식량난도 미국의 탓으로 생각했다. 깊이 생각할 여유도 없었다. 옥수수는 탁아소와 유치원으로 간다고 했지만 탁아소와 유치원에서는 옥수수가 오지 않았다고 했다.<sup>257)</sup>

26세 여성 탈북민 사례30의 어머니는 남한에서 온 쌀과 분유 등을 주민에게 나눠주는 배급소장이었다. 사례30의 가족은 어머니의 지위 덕분에 비교적 풍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대한민국이라는 표기를 지우고 주민들에게 배급했지만 분배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의 증언으로 동네사람들은 이 쌀이 남한에서 온 식량이라는 것을 알았다. ‘햅쌀이 아니라 묵은 쌀이 오히려 더 낫다’ ‘쌀이 얼마나 남아돌면 묵히기까지 할까’ 상상하기도 했다.

2000년대 중반 유엔 모니터링 요원이 배급소를 방문했을 때에는 미리 주민에게 배급받으러 나올 때 옷을 잘 입고 오라고 안내한 후 빵과 밥을 나눠주었다. 모니터링 요원들이 사진촬영을 마치고 돌아가면 다시 이를 걸어서 주민들에게 1kg씩만 나눠주었다. 그리고 걸어 들인 것은 직급이 높은 사람끼리 나누었다. 이런 일이 벌어져도 주민들은 불평할 생각을 못했다.<sup>258)</sup>

황해북도 해주에서 경찰로 근무했던 탈북민 사례11은 2002년 해주항으로 들어온 남한 선박에서 물건을 하역했던 경험이 있다.<sup>259)</sup> 탈북민 사례11은 배에서 내리지 않고 지켜보고 있던 남한사람을 관

257) 탈북민 사례15 인터뷰(2018.7.28., 동국대학교).

258) 탈북민 사례30 인터뷰(2018.8.15., 동국대학교).

259) 2002년 10월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위해 자재 33개 품목(유상공여), 장비 45개 품목(유상공여: 20, 유상임대: 25) 총 78개 품목을 장전항과 해주항을 통하여 전달한 바 있다. 통일부, 『남북대화 제68호』 (서울: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2001.5.~2002.11.), p. 43, <[http://www.unikorea.go.kr/books/archive/archive/?boardId=bbs\\_00000000000043&mode=view&cntId=19753&category=&pageIdx=1](http://www.unikorea.go.kr/books/archive/archive/?boardId=bbs_00000000000043&mode=view&cntId=19753&category=&pageIdx=1)> (검색일: 2018.9.10.).

잘했다. 그는 옷을 잘 입었고, 종이에 말아 피우는 담배가 아닌 필터 담배를 태우며 음료를 마시고 있었다. 사례11은 자신을 숨겨주던 저 배를 타고 남한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남한이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산다는 것은 사람들이 다 알아요. 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북한에서 집단시위가 벌어질 수 없잖아요? 상호비판 제도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분리시켜 놓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단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로따로 혼자 시위해 가지고는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탈북민 사례11)

그는 해주까지 송출되는 남한방송을 통해 2부작 다큐멘터리 <정적의 땅, 북한><sup>260)</sup>을 보며, 고난의 행군이 한창일 때 김정일은 와인 과 양주를 마시며 파티를 열었다는 내용에 분노했다.<sup>261)</sup> 이러한 프로그램은 북한 TV에서도 송신할 수 있는 주파수대를 통해 방송되었기 때문에 접경지역 주민들 중 상당수가 보았을 것이다. 노동당원에 다 경찰로 근무하는 자신도 비루하게 종이에 담배를 말아 피우면서 노동을 해야 하는 형편이다. 이미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는 실패했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북한 체제의 실패에 대한 사례11의 분노에는 노력했는데도 구겨진 체면에 대한 굴욕, 죄책감, 당황, 유감, 양심의 가책, 후회, 치욕, 회한 등의 감정과 수치심이 담겨있다.<sup>262)</sup> 수치심은 다른 사람을 볼

---

260) <정적의 땅, 북한>은 미국 히스토리(History) 채널이 2003년 제작한 다큐멘터리 중 2부로 중앙일보의 케이블 PP인 중앙방송이 방송했다. 제1부 <국제사회가 본 김정일>(2004년 7월 8일 오전·오후 8시 방영)은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집권과 권력 세습 과정 등을 조명했다. 핵개발을 무기로 한 북한의 외교전략과 김정일이 '대부', '007 시리즈', '13일의 금요일', '글래디에이터' 등의 영화를 좋아한다는 김 위원장의 취미생활도 엿볼 수 있다. 제2부 <정적의 땅, 북한>(8일 오전·오후 9시 방영)에서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북한의 생활상을 탈북자들이 증명했다.

261) 탈북민 사례11 인터뷰(2018.7.25., 동국대학교).

262) 김찬호, 『모멸감: 굴욕과 존엄의 감정사회학』(서울: 문학과지성사, 2014), p. 56.

낮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할 때 등장한다. 만약 그가 북한과 자신을 분리해서 생각한다면 열등한 타인에 대한 감정인 경멸을 느낄 것이다. 북한의 실패에 탈북민들이 수치심을 느끼는 이유는 이들이 북한에 강한 소속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실패가 곧 나의 실패로 느껴지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것이다.

정부가 개혁개방을 하더라도 큰 변화를 가져오리라는 기대도 없다. 예를 들어 금강산관광은 주민과는 유리된 사업이었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북한주민에게 금강산은 노래로나 접할 수 있는 곳이지 직접 가볼 수는 없는 곳이다. 심층면접 대상자 32명 중 금강산관광이 지속되었던 1998년부터 2008년까지 현지에 관광을 다녀온 사람은 없었다. 금강산은 수령님이나 외국인이 구경하는 곳일 뿐 일반주민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관광이 아닌 장사를 위해 금강산을 방문했던 탈북민 사례2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금강산 지역에서 우리 주민들이 다니는 길하고 남한 국민들이 들어와서 구경하는 관광하는 길을 다 나눠 놓았어요. 그리고 들어갈 수 없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보초소에 돈을 주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오후 2시면 남한 버스 두 대가 들어온대요. 그러면 우리는 쫓겨 나가야 돼요. (탈북민 사례2)

사례2는 남한사람만 관광하고 북한사람에게는 관광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사상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만은 가질 수가 없었다”고 답변했다.<sup>263)</sup> 금강산이 남한 관광객에게 개방되어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장사를 위해 방문한 이후에야 알게 된 것이다.

황해남도 해주에서 외부정보단속반으로 근무한 48세 남성 탈북민

---

263) 탈북민 사례2 인터뷰(2018.7.21., 동국대학교).

사례11은 금강산관광이 재개되고 남북한 철도가 연결된다고 해도 북한주민은 별 관심이 없다고 설명했다. 금강산이나 철도는 북한주민이 자유롭게 방문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 철도는 북한의 자원을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유럽 국가들로 싣고 가는 데 활용될 것이다. 북한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금강산관광 역시 마찬가지다. 금강산은 북한주민이 아닌 외국 관광객에게만 개방되었고 관광이 중단되었을 때 북한은 북한 상인들에게 억지로 관광을 하게 함으로써 돈을 갈취했다. 주민들은 국가의 돈벌이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다. 사례11은 북한주민의 삶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개성공단과 같은 경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sup>264)</sup>

## 2. 요인별 북한주민 의식 변화

외부에서 유입되는 정보에 의해 북한주민의 의식이 변화하는 양상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북한주민들은 저마다 다른 나이에 남북교류를 경험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 다른, 그리고 예기치 않은 순간 외부정보와 조우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시간과 공간 그리고 구성원의 특성에 맞춰 일정한 양식으로 분류하는 것은 과도한 일반화를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2절에서는 시기와 공간, 성별의 차이, 새로운 세대의 등장 등 북한주민들의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 중 탈북민들이 외부정보를 수용하는 데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몇 가지 요인들만을 분석하고자 한다.

264) 탈북민 사례11 인터뷰(2018.7.25., 동국대학교).

우선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하여 교류협력에 대한 인식과 남한과 북한 그리고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역에서 처음 접하게 되는 정보의 형태와 내용을 구분한다. 그리고 외부정보를 수용하는 남성과 여성의 인식 및 태도 차이, 장마당에서 돈을 벌기 시작한 세대와 그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의 특징, 외부정보 유통망에서 핵심계층의 역할과 지위 등을 감안하여 기호로서의 남한이 어떻게 북한주민들의 의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추적한다.

### 가. 시기별 의식 변화

II장에서는 북한사회 내부의 변화 양상을 대내환경과 대외환경을 반영하여 충격기(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조정기(200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 전환기(2010년대 중반~현재까지) 등의 세 시기로 분류한 바 있다. 북한주민들이 남북교류와 외부정보를 개별적으로 접하거나 수용해온 시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주민의식 변화를 이러한 시기 구분에 근거하여 일률적으로 범주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외부정보는 적어도 남북교류의 통로가 열리거나 닫히는 추이에 영향을 받으며 북한주민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다.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 남한의 물자와 정보는 공식·비공식 영역을 아우르며 북한주민들에게 흘러 들어가고 남북관계 경색으로 교류협력사업이 중단되면 남한의 정보는 비공식 영역에서만 은밀하게 거래된다. 따라서 교류협력사업이나 인도적 지원에 국한하여 II장의 시기 구분에 따라 북한주민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여 왔는지를 관찰해보는 것은 의식 변화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 및 대북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진 ‘충격기’는 대북사업이 시작된 시기이다. 황해북도 해주에서 경찰로 근무했던 탈북민

사례11은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 이틀 전 “정상회담을 한다고 해서 환상을 가지지 마라. 남한의 그 어떤 대통령이 오든 다 민족반역자들이다”라는 교육을 받았다. 사례11 역시 정상회담은 보여주기 위한 회담일 뿐 진정성은 없다고 생각했다. 김정일의 마음속에도 통일에 대한 의지나 민족애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정상회담 등의 계기를 통해 이미 접하게 된 남한문화에 대한 환상은 교육과 단속을 한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sup>265)</sup>

함경남도 청진에서 외부정보단속반으로 근무했던 탈북민 사례9는 1차 정상회담이 끝나고 남한예술단이 북한을 방문해 공연을 하고 난 이후 남한음악이 북한주민의 일상 속으로 급속히 퍼져나갔다고 설명한다. 북한주민들은 술을 마시면 북한노래 대신 <사랑의 미로><sup>266)</sup>를 불렀다. <사랑의 미로>와 <J에게><sup>267)</sup>로 대표되는 남한노래는 엄숙하고 딱딱한 북한음악보다 편안한 느낌을 주었다.

2000년에 6·15공동선언이 발표되면서 남북관계가 좋아지니까 국경으로 남조선 CD가 들어오는 거예요. CD, USB 들어오기 시작하니깐 수습을 못하는 거예요. 남한드라마 거의 북한에 다 들어갔다고 보면 되요. (남한이) 쌀도 주고 기름도 주고 돈도 줬는데 나는 그게 싫지가 않더라고요. (탈북민 사례9)

사례9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시작된 사회문화교류를 기점으로 북한주민이 남한음악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외부정보단속반은 더욱 강력한 단속을 실시했지만, 이미 물밑듯이 들어온 외부 정보는 북한주민 사이사이를 파고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에서

265) 탈북민 사례11 인터뷰(2018.7.25., 동국대학교).

266) 최진희, <2집/솔로 1집 사랑의 미로/물보라>, (서울: 한국음반, 1984).

267) 이선희, <1집! 옛날이여/소녀의 기도/갈등/나는 사랑에 빠졌어요>, (서울: 지구레코드, 1985).

남한으로부터 인도적 지원 물품이 들어오자 북한주민들은 상상 속에  
만 존재하던 남한에 대한 느낌을 더욱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sup>268)</sup>

‘조정기’는 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지원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상당수 중단된  
시기이다. 양강도 혜산에 살았던 32세 남성 탈북민 사례<sup>24</sup>는 정상  
회담 이후 대북지원 물품이 늘어나면서 남한 정보 유입에 대한 검열  
도 느슨해졌다고 기억한다. 이후에도 남북관계가 좋을 때면 혜산을  
통해 남한영상물과 음악 그리고 책 등이 밀려들어왔다고 한다. CD  
가 들어왔고 이어서 CD 복제기도 들어왔다.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  
기에 이렇게 남한에서 들어온 물품이 북한주민 사이에 확산되고 나  
면 다시 검열이 강화되기도 하지만 이미 많은 주민들이 이러한 문화  
콘텐츠를 접하고 난 다음이라서 단속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sup>269)</sup>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북한주민에게 전달되는 외부정보가 남북관  
계의 퇴보에도 불구하고 북한사회에 지속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평양에서 외부정보단속반으로 근무했던 53세 남성 사례<sup>16</sup>은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북지원,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철도연결, 이  
산가족 상봉과 같은 교류협력사업을 보면서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  
나겠다는 예감에 두려웠었다고 한다.<sup>270)</sup>

큰일 났구나. 변화가 올 조짐이었죠. 정상회담, 개성공단, 남북  
철도연결, 이게 일어났잖아요. 만약 안 일어났으면 나는 아무런 생  
각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일어났으니까, 큰일 났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탈북민 사례<sup>16</sup>)

---

268) 탈북민 사례9 인터뷰(2018.7.22., 동국대학교).

269) 탈북민 사례<sup>24</sup> 인터뷰(2018.8.5., 동국대학교).

270) 탈북민 사례<sup>16</sup> 인터뷰(2018.7.29., 동국대학교).

북한주민 모두 각자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변화를 경험한다.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그리고 철도 분야에서 일하게 된 사람은 남한사람과 만날 것이다. 남한사람을 만난 북한주민은 이러한 경험을 자신의 가족, 친구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과 공유할 것이다. 변화는 어느 단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다. 남북교류는 점점 더 큰 파장을 그리며 폐쇄된 북한사회를 변화시켜왔다. 사례16은 남북교류가 가져올 파장을 예감하고 그 거대한 변화 앞에 준비가 안 된 자신을 마주하며 두려웠던 것이다.

중학교 때 할아버지와 함께 북한으로 온 재일교포 남성 탈북민 사례26은 남북교류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계층은 외화벌이 일꾼들과 경제인들이라고 설명한다. 북한 당국은 중국을 통하지 않고도 남북경협을 통해 직접 이윤을 확보하기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측 기업인들의 방문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당시 사례26은 북한을 방문한 남한 기업가들에게 평양을 안내하는 책임을 맡은 적이 있다. 남한 기업인들과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혹시 정보기관 직원은 아닐까 걱정도 했지만 머지않아 오해는 사라지고 매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그에 따르면 중국 사업가들은 거래 과정에서 이익에 지나치게 급급한 나머지 이리저리 사업 파트너의 진을 빠지게 하는 일이 종종 있었지만 남한 기업인들은 오히려 더 좋은 거래조건을 먼저 제안하기도 했다. 사례26은 남한 기업가의 세련된 매너에 마음이 통한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남한과의 직접 교역이 활발해지면 다른 나라와의 거래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마음을 나누며 이윤을 남길 수 있을 것이고 북한의 경제성장에도 분명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확신을 느낀 것이다.<sup>271)</sup> 그러나 남북교류는 이명박 정부의 등장과 함께 축소되었고 천안함사건과

271) 탈북민 사례26 인터뷰(2018.8.12., 동국대학교).

연평도 포격사건을 거치며 군사적 긴장마저 높아지게 된다.

충격기와 조정기를 거쳐 전환기로 접어들면서 북한주민들은 남북 교류의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2018년 들어 세 차례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탈북민들은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지만 북한 내에서의 관심도는 지역에 따라 반응이 엇갈릴 것이라고 전망한다. 함경북도 회령에서 온 50세 여성 탈북민 사례1은 “정보 유통이 가장 빠른 평양주민들은 정상회담이 자신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대감을 갖고 있겠지만 정보의 유입이 더디고 전기조차 공급되지 않는 지방의 주민들에게는 정상회담도 아마 먼 나라 이야기일 것”이라고 말했다.<sup>272)</sup>

이러한 분위기를 뒷받침하듯 양강도 지역에서 온 40대 중반 여성 탈북민 사례6이 7월 중순 북한 내 가족과 통화했을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시장에서 가격이 치솟고 있는 강냉이와 쌀 가격에만 관심이 있을 뿐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sup>273)</sup>

평안남도 순천에 살았던 50세 여성 탈북민 사례25는 남한에서 기자로 활동하면서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북한주민들 내부의 반응을 취재한 적이 있다. 그녀가 취재를 위해 통화했던 북한주민들 중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가장 호의적인 집단은 무역일꾼들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상을 놓고 ‘인심이 후한 것 같다’거나 ‘선하게 생겼다’라는 식의 평가를 내놓는 사람도 있었다.<sup>274)</sup> 북한주민들 중 경제일꾼들은 과거의 남북경협 경험의 바탕으로 자신들과 교역하는 어느 나라보다도 남한과의 경제교류가 북한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는 말이다.

---

272) 탈북민 사례1 인터뷰(2018.7.21., 동국대학교).

273) 탈북민 사례6 인터뷰(2018.7.21., 동국대학교).

274) 탈북민 사례25 인터뷰(2018.8.11., 동국대학교).

## 나. 공간별 의식 변화

심층면접에 응한 탈북민 32명 중 2명을 제외한 30명이 북한 거주 당시 남한드라마나 영화, 또는 음악과 같은 외부정보를 직접 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남한의 대중문화 작품을 접하게 되는 공간적 특성은 정보의 유입 경로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북중 접경지역의 주민들은 북한과 중국을 왕래하는 사람들을 통해 반입되는 남한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대중문화 프로그램을 주로 경험했고, 남북 접경지역의 주민들은 남한에서 송출한 전파와 배라를 통해 전해지는 뉴스와 정치적 메시지 등에 익숙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 접경지역을 통해 유입되는 정보들은 주로 김일성과 김정일 일가의 실상을 다루는 뉴스와 다큐멘터리, 월남을 유도하는 사진과 선전물 등이었다.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남한의 영상물을 접한 북한주민들의 반응은 남한사회에 대한 관찰과 동경, 모방을 넘어 남한의 생활방식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단계로 나아가기까지 했다. 이른바 ‘긍정적 해석’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그러나 월남 권유, 김정일 비판 등 북한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불온한 정보를 담은 메시지를 접했던 이들의 반응은 충격과 분노, 무서움과 죄의식과 같은 부정적 감정으로 이어졌다.

북중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주민들 사이에서도 남한에 대한 정보격차가 존재한다. 양강도 혜산에 살았던 탈북민 사례<sup>3</sup>은 중국에 거주하는 친척집에 왕래하며 남한영상물을 접하게 되었다.<sup>275)</sup> 이러한 경로를 통해 북한 내부로 은밀하게 전해진 남한의 영상물은 점과 점을 연결하듯이 지인들끼리만 공유되기도 하고 장마당에서

---

275) 탈북민 사례3 인터뷰(2018.7.21., 동국대학교).

암암리에 거래되기도 한다.

그러나 양강도 김형직군 출신의 탈북민 사례6은 2015년 탈북할 때까지 한 번도 남한영상물을 본 적이 없다. 남편이 국경에서 군 복무를 했기 때문에 남한영상물을 보면 안 된다는 교육을 많이 받았고 단속 역시 심했기 때문이다.<sup>276)</sup> 탈북민 사례15는 중국을 통해 남한 프로그램을 접했던 탈북민 사례3과 같은 지역인 양강도 혜산에 거주했지만 한 번도 남한영상물을 본 적이 없다. 그녀는 2007년 탈북할 때까지도 중국이 북한보다 가난하다고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곧 남한이라는 사실조차 몰랐다.<sup>277)</sup>

황해남도 해주는 남한에서 송출하는 전파를 받아 남한의 TV프로그램을 직접 시청할 수 있는 남북 간 해안접경지역이다. 탈북민 사례26은 남한의 전파를 직접 송출 받을 수 있는 텔레비전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남한의 TV프로그램을 보면서 자랐다. 북한 당국이 남한으로부터 송출되는 방송을 막기 위해 전파방해 작업을 벌이기도 했지만 고난의 행군 시기 정전이 잦은 탓에 전파방해 작업 역시 수시로 중단되었다.<sup>278)</sup> 그러나 같은 황해남도라고 하더라도 해주와 같은 해안도시가 아닌 내륙지역은 전기사정이 좋지 못해 남한의 TV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다. 황해남도 신천 출신의 탈북민 사례22는 고향에 전기가 들어오는 날이 적어서 남한의 영상물을 접한 경험이 10번을 넘지 않는다고 했다.<sup>279)</sup>

강원도 지역에서는 원산이 북한방송보다 남한방송의 전파가 더 잘 잡히는 지역으로 꼽힌다. 원산에 살았던 탈북민 사례30은 아홉살 때인 2001년부터 남한영상물을 봤다. 사례30은 학교가 끝나면

---

276) 탈북민 사례6 인터뷰(2018.7.21., 동국대학교).

277) 탈북민 사례15 인터뷰(2018.7.28., 동국대학교).

278) 탈북민 사례26 인터뷰(2018.8.12., 동국대학교).

279) 탈북민 사례22 인터뷰(2018.8.4., 동국대학교).

집에서 문을 잠그고, 창문을 가린 채 가족과 함께 남한의 TV를 시청했다고 했다.<sup>280)</sup>

## 다. 집단별 의식 변화

### (1) 계층에 따른 차이

금기는 핵심계층에서부터 깨어진다. 탈북민 사례16은 1993년 평양의 영화연극대학 연출학과에 입학한 후 강의실에서 선배들과 함께 남한영상물을 보았다. 영화연극대학 학생에게 남한영상물 시청은 일상이나 다름없다. 핵심계층 중에서도 권력층 가정의 자녀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통제하지 않는다. 발각되어 퇴학을 당할지언정 처벌은 받지 않는다.

심지어 퇴학당한 학생들조차 모두 영화수출입상사에 취업했다. 북한의 공식 해외영화 수입을 담당하는 영화수출입상사는 일반주민들이 볼 수 있는 보급용 영화와 사회통제계급만 접근할 수 있는 보급용 영화를 함께 취급한다. 영화수출입상사에서는 일반주민은 볼 수 없는 영화를 복사해서 팔았다. 시장에서 커다란 돈벌이가 되었기 때문이다.<sup>281)</sup>

핵심계층인 보위부 요원과 경제력을 갖춘 무역일꾼들도 남한영상물을 유포하는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강도 강계에서 대학교수로 근무했던 탈북민 사례28이 처음 남한영상물을 접했던 것도 보위부 요원이었던 친구가 검열 과정에서 압수했던 영상을 빌려주었기 때문이다.<sup>282)</sup> 하위계층의 사람들이 접하게 되는 남한영상물의 출처는 주로 ‘법 기관을 든든한 배경으로 둔’ 남편의 부인이

280) 탈북민 사례30 인터뷰(2018.8.15., 동국대학교).

281) 탈북민 사례16 인터뷰(2018.7.29., 동국대학교).

282) 탈북민 사례28 인터뷰(2018.8.12., 동국대학교).

다.<sup>283)</sup> 신의주 도매상에게 CD를 사서 개천에서 판매했던 탈북민 사례10의 거래처도 경찰의 부인이었다.<sup>284)</sup> 경제력을 갖춘 사람이 경제력이 없는 사람보다 먼저 영상을 접한다. 중국을 오가며 무역일꾼으로 일했던 탈북민 사례5가 남한영상물을 접한 것도 무역일꾼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에서였다. 이들은 검열에 걸리더라도 뇌물을 주고 빠져나갈 수 있는 경제력을 가졌기 때문에 외부정보에 접근하기도, 자신을 보호하기에도 하위계층의 사람들보다 용이하다.<sup>285)</sup>

심지어 자신의 계급적 지위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남한의 물건이 등장하기도 한다. 경제력을 나타내는 상징기호처럼 통용되는 남한 초코파이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두 명의 아이가 지나가는데 한 아이는 초코파이를, 다른 아이는 그냥 손가락 과자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초코파이를 손에 든 아이는 당장 ‘부잣집 아이네’ 하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경제적 형편이 넉넉한 아이라는 뜻이에요. (탈북민 사례7)

함경북도 청진에 살았던 탈북민 사례7은 식당을 운영했다. 그녀는 개성공단과 함경북도를 오가며 물건을 파는 장사꾼으로부터 초코파이 5개를 쌀 1kg에 사서, 3개에 쌀 1kg을 받고 식당에서 팔았다. 그는 초코파이야말로 그 식당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설명한다. 경제적 능력과 여유가 있지 않고서는 쌀 1kg을 주고 초코파이 3개를 사먹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얼마나 비싼 담배를 피우고 있는지가 사업가의 지위를 보여주는 것처럼 초코파이를 사먹는다는 것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

---

283) 탈북민 사례26 인터뷰(2018.8.12., 동국대학교).

284) 탈북민 사례10 인터뷰(2018.7.22., 동국대학교).

285) 탈북민 사례5 인터뷰(2018.7.21., 동국대학교).

해주는 상징이다. 계층을 드러내기 위해 남한의 상징이 동원되는 것이다.

또 남한사람이 차려입고 영상물에 등장하는 옷은 패션잡지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 유행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입지 않는 옷에 도전을 해야 한다. 장마당에서 유통되는 남한의류는 대부분 상표를 떼어버린 채 등장하기 때문에 무슨 옷이 유행인지 알기 위해서는 영상을 꼼꼼히 봐야 한다. 평안남도 개천에 살았던 탈북민 사례10은 90년대 평양을 방문해서 관찰한 사촌들의 생활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사촌동생은 평양시 교원대학을 졸업해서 교사를 했어요. 그런데 집에서는 세 식구 모두 죽을 먹으면서도 옷을 사 입으러 외화상점을 가는 거예요. 집에서는 흰쌀밥을 먹든 죽이나 옥수수를 먹든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먹는 것을 아껴서라도 외화상점에서 비싼 옷을 사 입고 예쁘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특히 평양에서는 옷을 예쁘게 안 입고 다니면 못 얻어먹을 수도 있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잘 입어야 하는 거예요. (탈북민 사례10)

옷을 세련되게 입는 것은 단순히 예뻐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다. 공식직업과 비공식 개인사업을 병행하며 사적 관계를 형성하여 위태롭게 돈을 버는 북한주민은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고 싶게 마련이다. 법적 담보가 없는 비공식 개인사업의 신용도는 결국 사업자의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먹더라도 사업상 신용의 상징인 옷만큼은 근사하게 차려입어야 한다. 탄탄한 경제적 여건을 가진 사업가의 거래망 안으로 진입해야 자신도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고 당에서 정해진 계급이 아닌 새로 생성된 시장에서의 계급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 성별 차이

김정일 시대의 선군정치로 체제 전체의 병영화가 이뤄지면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은 명확하게 구분되었다. 남성은 조국을 지키는 전사가 되고 여성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으로 집과 마을, 공장과 일터를 꾸려나가야 하는 것이었다. 자녀 역시 혁명의 후세대로 키워 군대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여성은 헌신적으로 가족의 생존과 사회적 재생산을 책임져야 했다.<sup>286)</sup> 남성은 군대에 있던 직장에 있던 국가가 정해진 장소에서 꼼짝없이 국가를 지키는 전사의 자세로 일해야 했고 여성은 가족의 생활을 책임지기 위해 장마당으로 나서야 했다. 북한 내에서 이러한 남녀의 성 역할 구분은 남한의 영상물을 접하는 북한 남성과 여성들의 태도에 어떠한 방식으로 투영되었을까.

남성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남한영상물로는 드라마 <올인>이 언급된다.<sup>287)</sup> 남자 주인공이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부자가 되어서 성공하는 과정이 멋지게 묘사되어 있다. 남자 주인공은 자유롭게 어디든 갈 수 있으며 도박으로 성공한다. 여자 주인공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멋지게 구해주기도 한다. 남성 탈북민들은 남자로 태어나서 자신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남자 주인공이 부자라는 점에 불편함을 느끼기도 한다. 남한영상물에 등장하는 삼각관계에서 승리자는 무조건 잘생기고 돈 많은 ‘실장님’, 아니면 ‘사장님’이다. 남성 탈북민들은 이러한 드라마를 ‘결국에는 돈 있는 자가 승리하는 자본주의 사회’를 그린 것이라고 비판한다.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남녀 간 애정행각은

286) 박영자, 『북한녀자: 탄생과 굴절의 70년사』 (서울: 엘피, 2017), p. 528.

287) 윤철용 연출, <올인>, SBS 드라마, 2003.1.15.~2004.4.3., 24부작, 이병헌·송혜교 주연, 서로 다른 환경에서 태어난 주인공 두 남자가 마침내 각자 삶의 전부를 걸고 최후의 승부를 벌이는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이들의 시선에는 인간 말종이나 할 법한 짓거리로 비치기도 한다.<sup>288)</sup>

남성 탈북민들이 남한영상물을 보면서 북한사회와 비교하는 수준에 머무른다면 여성들은 좀더 다양한 감정으로 이를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여준다. 평안남도 순천에 살았던 탈북민 사례25는 지난 2000년, 영화 <동감><sup>289)</sup>을 보았다. 30대 초반의 나이였을 때였다. 그녀는 남녀 간의 사랑을 애국을 위한 헌신에서 짝트는 관계로만 다루고 있는 북한영화에서 보지 못했던 남녀관계와 인간의 심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녀는 “충성과 복종만 강요받던 사회에서 살다가 남한드라마를 통해 인간의 감정세계를 처음 본 것”이라고 말했다.<sup>290)</sup> 남한영상물에는 나와 같은 말을 쓰고, 나와 별로 다를 것 같지 않은 여자 주인공이 등장한다. 자연스럽게 주인공에 자신을 비춰보며 감정이 이입되기도 한다.

남녀관계에서 갈등을 느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부장제 문화가 강한 북한에서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정신적으로 해소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노래를 많이 하는 거죠. 자기 마음을 스스로 달래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남편한테 죄짓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진짜 사랑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한국 노래를 부르면서 해소하죠. (탈북민 사례25)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가족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여성은 남편의 위신을 세워주며 내조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북한사회의 규범을 뛰어넘는 생각에 빠져들 때도 있다. 낮에

---

288) 탈북민 사례9 인터뷰(2018.7.22., 동국대학교); 탈북민 사례26 인터뷰(2018.8.12., 동국대학교); 탈북민 사례11 인터뷰(2018.7.25., 동국대학교).

289) 김정권 감독, <동감>, 2000., 김하늘·유지태 주연, 1979년에 살고 있는 여자와 2000년에 살고 있는 남자가 21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무선통신을 통해 나누는 신비한 만남을 다룬 드라마.

290) 탈북민 사례25 인터뷰(2018.8.11., 동국대학교).

켜놓은 전등처럼 쓸모없는 존재라는 뜻에서 ‘낮전등’이라고 불릴 정도로, 의식주는 아내에게 맡긴 채 당에서 정해놓은 일만 고집스럽게 수행하는 남편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 가족의 생계를 위해 장마당으로 나선 여성은 국가에서 정해준 역할을 과감하게 벗어나 사적 경제 활동에 나선 ‘생각이 개인’ 남자와 시장에서 거래할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러면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남자와 사랑을 한다는 것은 어떤 감정인지 상상해 보기도 하다. 이때 나도 몰랐던 나의 감정을 드러내고 투영할 수 있는 노래를 부르며 자신을 표현한다.

남한드라마 속의 남자 주인공은 사랑하는 여자에게 ‘내가 널 지켜 줄게’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에서 인민을 지켜주는 것은 어머니 당과 아버지 수령이다. 당과 수령은 인민을 지켜주고 인민은 당과 수령에 충성해야 하는 혼연일체의 관계가 바로 북한의 지배 이데올로기이다.

그러나 남한영상물에서 여성을 지켜주는 것은 그녀를 사랑하는 한 남자일 뿐이다.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절대적 가치관이 무너지는 것을 느낀다. 어머니 당과 아버지 수령님의 품 안에서 보호받았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영도를 따라야 한다는 공식이 깨지는 것이다. 당과 수령이 지켜주던 세계가 깨어지고 생활을 책임지게 된 여성은 그 무거운 짐이 주는 부담을 어떤 형태로든지 보상받으려는 마음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투영할 노래를 찾아 외도를 정당화하는 동시에 마음 한 구석의 죄책감도 지우고자 하는 것이다.

남한영상물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교제도 쉽게 허락하지 않는 북한사회의 가부장제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함경북도 무산 출신의 20대 여성 탈북민 사례27은 엄격한 아버지에게 매를 맞아가며 남한영상물을 보았다. 사랑하는 남자와의 교제조차

허락하지 않는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했다.

드라마를 보면서 나도 정말 저런 데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완전히 ‘붉은 기’ 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말하자면 ‘장군님만 따라 가면 된다’는 식이었는데 내가 남한영화를 보시면 하면 마구 때리고 그랬어요. (탈북민 사례27)

사례27은 사랑하는 남자와 남한영상을 함께 보며 북한과는 다른 사회에서의 삶을 꿈꾸기도 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녀가 남한영상물을 보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고, 그녀보다 낮은 계층으로 전락한 남자친구와의 교제 또한 끝까지 반대했다. 그녀는 밤새 이불을 뒤집어쓴 채 남한영상을 보고, 낮에는 내내 잠만 자며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것 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영상 속에는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주로 등장하지만 자신을 속박하는 가족의 굴레를 벗어던지는 용감한 여성도 등장한다. 사례27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3개월 만에 영상 속 남한을 향해 탈출했다.<sup>291)</sup>

### (3) 세대 분화

장마당에서 돈을 벌기 시작한 세대와 그 가정 안에서 성장한 자녀 세대는 모두 북한 체제의 이데올로기로부터 독립적인 가치관을 보여준다. 탈북민 사례30, 31, 32는 각각 26세, 22세, 29세로 북한에서 대학과 중학교에 다니던 중 탈북하여 현재 남한의 한 대학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다. 이들의 부모는 공식직업 외에도 개인사업을 병행하며 이들을 양육했다. 다음은 이들의 대화이다.

---

291) 탈북민 사례27 인터뷰(2018.8.12., 동국대학교).

탈북민 사례32: (직업은) 당에서도 정해주는데 입김(뇌물)을 넣는  
거죠.

탈북민 사례30: 돈을 엄청 넣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지려  
면) 당원도 돼야 하거든요.

탈북민 사례32: 그놈의 당원 지켜워.

탈북민 사례31: 지켜워.

탈북민 사례30: 당원 소리.

탈북민 사례32: 당원 지켜워.

탈북민 사례30: 저희 어머니 원래 당원이 아니었는데 (뇌물을  
주고) 당원이 됐어요.

탈북민 사례32: 당원도 요즘 다 돈 주고 사는데요. 뭘.<sup>292)</sup>

공식직업 이외에도 개인사업을 병행하는 이들의 부모는 각자의 방법으로 남한영상을 집에 가져와 가족과 함께 시청하기도 했다. 간혹 자녀들과 함께 보기에 민망한 애정 장면이 등장하면 아버지는 몸으로 가리거나 2배속으로 빨리 재생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제 만나러 갑니다><sup>293)</sup>에 등장하는 탈북민을 보면서 남한에 가면 대학에 다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한뉴스에 등장하는 정치인들이 서로 당을 나눠서 싸우는 것을 보기도 했다.

사례30의 아버지는 김정일의 부인이 3명이라는 걸 이야기해주었고 사례32의 어머니는 남한영상물 <진달래꽃 필 때까지><sup>294)</sup>에 등장

---

292) 탈북민 사례30 인터뷰(2018.8.16., 동국대학교); 탈북민 사례31 인터뷰(2018.8.16., 동국대학교); 탈북민 사례32(2018.8.16., 동국대학교).

293) 이진민 CP, <이제 만나러 갑니다>, 채널A, 2011.12.4.~방영 중, 탈북민이 북한과 탈북 그리고 남한에서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

294) 홍성덕 연출, <진달래꽃 필 때까지>, KBS 드라마, 1998.1.5.~1998.1.26., 염정아·유태웅 주연, 만수대 무용단원 신영희가 1996년에 출간한 수필 『진달래꽃 필 때까지』를 원작으로, 1980년대 초 북한이 처형한 영화배우 우인희와 기쁨조의 삶을 비롯한 북한의 사회 실상을 그리고 있음. 김희애, 심은하 등이 주인공 물망에 올랐으나 살해 위협과 KBS 폭파 위협에 고사함.

한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생활을 이야기해주었다.

탈북민들은 장마당 세대의 가정이, 어머니 당과 아버지 수령의 은 덕으로 성장한 세대가 아니라 장마당에서 돈을 번 부모 세대와 그 부모가 자신을 어떻게 키워냈는지 보면서 자란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독립적이라고 설명한다. 이들은 이전 세대의 북한주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50세 여성 탈북민 사례23은 자신의 조카가 청진 사투리가 아닌 서울 말씨를 쓰고, 김일성 생가가 있는 백두산에 견학을 가서도 친구들과 남한노래를 불렀다고 전하기도 했다. 사례23의 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sup>295)</sup>

### 3. 소결

지금까지 탈북민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살펴본 대로 북한주민은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은 물론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남한의 문화콘텐츠를 다층적 경로를 통해 경험하고 다양한 의식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과거 북한주민들의 남한 미디어 수용태도에 관한 연구는 이들이 수동적으로 메시지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뤄진 것들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시행했던 심층면접 결과 북한주민들은 외부정보를 수용하는 방식이나 태도에서 몇 가지 패턴을 공유하면서도 이를 해석하거나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일정한 차이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목격되는 북한주민의 의식 변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사회에 유입되는 남한의 정보는 시장 메커니즘과 인센

---

295) 탈북민 사례23 인터뷰(2018.8.5., 동국대학교).

티브 시스템을 학습하는 교재이자 경험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주민은 남한의 영상을 교재삼아 보며 시장에서의 행동양식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선형적 기회를 갖게 된다. 시장에서의 생존을 위해서는 북한의 교육체계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자본주의적 거래 방식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주민들은 장마당이라는 비공식 영역에서 성공하기 위한 교재로서 남한영상물을 시청하며 이를 통해 습득한 새로운 행동양식을 실천하기도 한다. 또한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의 경험은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공식적인 노동을 수행하면서도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영위할 수 있는 미래를 꿈꾸게 하기도 한다.

둘째, 북한주민은 비공식적으로 유입되는 남한드라마나 영화 등 외부정보를 통해 규격화되어 있는 북한식 삶의 양식 바깥에서 다양한 생활방식을 관찰하고 있으며 남한영상물에서 습득한 ‘몸의 언어’를 모방하거나 차용하고 있다. 북한주민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비판과 실망도 없이 열심히 사는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규범으로 교육받는다. 그러나 남한영상물을 통해 북한식 규범에서 벗어난 방식의 삶이 허용되는 사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충격과 동시에 새롭게 접한 삶의 방식을 시도해보고 싶은 욕망을 느낀다. 강요받은 모범적 삶을 벗어나 개성을 획득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북한주민들이 자신에게 규범화되어 있는 사회적 정형의 바깥에서 다른 생활과 사고의 양식을 상상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때문에 남한영상에 등장하는 몸짓이나 생활방식을 증거가 남지 않는 방식으로 모방하거나 차용하는 수준으로 다른 삶의 방식을 시도해 보는 것이다.

셋째, 북한주민은 외부정보를 통해 금기의 영역이었던 남한과 자본주의 세상을 접하고 이를 자신의 일상에 접목해보면서 그것이 위험하지 않다는 경험을 누적한다. 그리고 내 안에서 나도 몰랐던 감정

을 발견하게 하는 즐거운 시도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개화한다는 느낌을 갖기도 한다. 또 남한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자신의 몸에 다른 문화를 입혀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이 접하는 외부정보가 북한의 체제를 비판하는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북한주민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죄의식과 두려움을 느낀다.

넷째, 시련의 언덕을 넘고 넘으면 아름다운 미래가 도래할 것이라고 교육받아온 북한주민들은 외부세계의 풍요롭고 운택한 삶을 보며 열패감을 느끼고 북한 당국에 대한 실망감을 갖게 된다. 그러나 남북교류협력과 대북지원,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철도연결, 이산가족 상봉 등을 통해 쌓이게 되는 긍정적 경험은 남북교류가 더욱 활발해지면 북한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한다.

또한 시기, 공간과 성별, 그리고 세대와 계층 등 북한주민들과 이들의 생활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별로 주민의식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부정보는 시기별 남북교류의 진전과 후퇴에 영향을 받으며 북한주민에게 전달된다.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 남한의 정보와 문물은 공식·비공식 영역을 아우르며 북한주민들에게 전달되고 남북관계가 퇴보하게 되면 남한의 정보와 물자는 다시 비공식 영역으로 편입되어 은밀하게 거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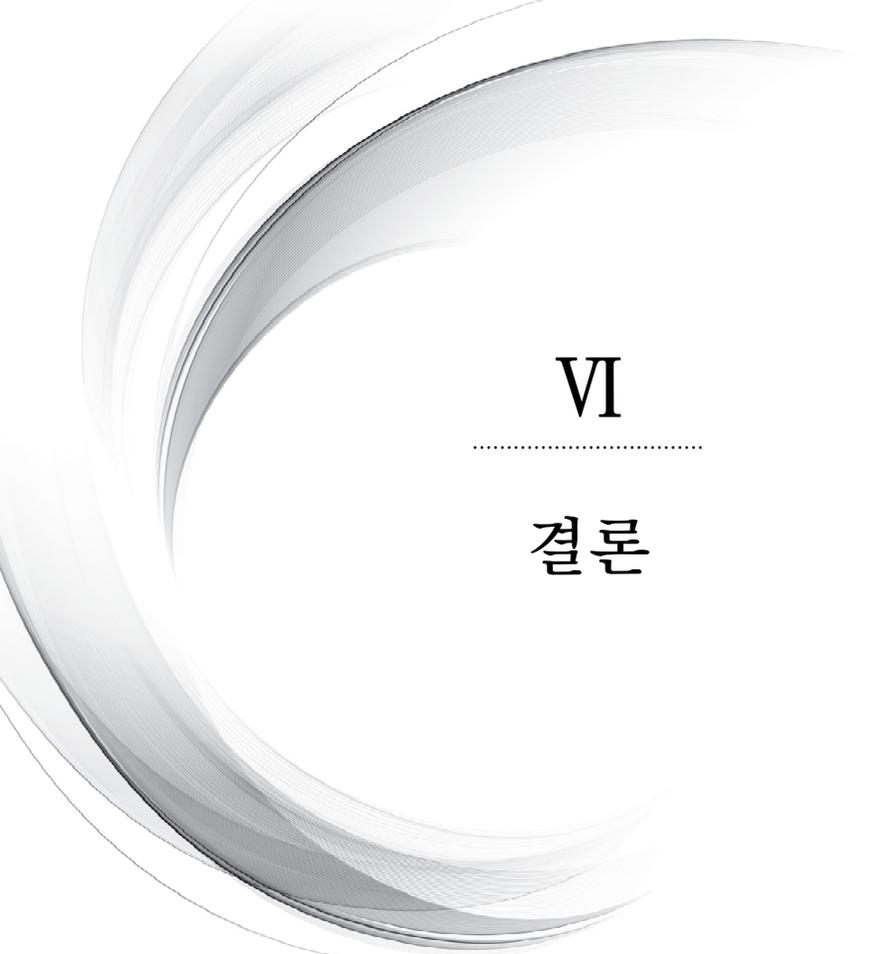
둘째, 북중 접경지역의 주민들은 북한과 중국을 왕래하는 상인 등을 통해 반입되는 남한의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영상물을 주로 접하고, 남북 접경지역에서는 남한에서 송출되는 TV프로그램과 월남 권유 및 북한 체제 비난 등을 담은 삐라를 먼저 경험한다.

셋째, 남성은 북한사회에서 조국을 지키는 전사로서의 의무를 요구받기 때문에 남한영상물을 통해 자유로운 삶의 방식과 이들의 성

공스토토리에 감정을 이입하는 경향이 드러난다. 반면, 여성은 희생과 헌신을 요구받으며 실질적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의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짐을 나누어 들어줄 생활력 있는 남성과 그로부터 보호받는 여성의 모습에 감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넷째, 장마당 세대의 가정은 시장에서 생존하는 방식을 체득한 부모와 이들 부모를 보며 성장한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활발한 시장활동을 하고 있으며 정보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외부정보를 습득하고 가족 구성원들과도 공유함으로써 북한 체제 안에서 비교적 독립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다섯째, 북한의 사회구조 내에서 정치적, 또는 경제적으로 높은 위치를 점유할수록 남한의 영상물 등 외부정보에 접근하는 데 유리한 경향을 보이며 이들은 뇌물 제공 능력 등 경제적 여건을 바탕으로 검열망으로부터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모습을 보인다.



# VI

---

## 결론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 결과 합의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으로 인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 내내 단절 상태에 있었던 교류협력 재개의 모멘텀을 맞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핵무력 병진노선’의 완료를 선언하고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노선을 새로운 전략으로 선포하면서 남북 간 경제협력 수요도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이미 남북 간에는 경제, 학술, 스포츠, 문화,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사업을 실시하기로 합의했고 협력의 주체 또한 정부뿐 아니라 국회, 지자체, 민간단체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한이 모두 정상회담 합의사항의 신속한 실천을 강조한 만큼 협력사업의 이행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이 과거처럼 정치적 환경 변화나 군사적 도발과 충돌에 의해 중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하는 작업에 남북한이 이미 착수했다는 사실이다. 남북한은 9월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채택하고 서해 완충수역 설정, 비무장지대 내 GP 철수 및 지뢰 제거 등 우발적 충돌 위험을 없애는 실질적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정상 간의 신뢰관계가 남북관계 70년 역사 중 가장 높은 수준에 있다는 사실 또한 과거와 달리 남북교류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과거 교류협력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기반으로 새로운 남북관계에 부응하는 새로운 교류협력사업의 모델을 창출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교류협력사업 모델의 요체는 경제적 안정성과 정치적 지속 가능성, 민간 분야의 주도적 참여, 남북한의 평화 정착과 공동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신사업의

발굴과 같은 내용이 될 것이다.

판문점선언과 평양정상선언의 이행과정에서 펼쳐질 새로운 교류협력 시대가 남북한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경제집중 노선이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외부 자원 유입에 대한 동기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실질적 삶의 질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될 때 교류협력사업이 북한 측 사업 담당자들만의 사업이 아니라 전체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남북관계의 발전상을 염두에 두고 경제협력, 사회문화교류, 인도적 대북지원 등의 남북 간 상호작용 과정에서 북한주민들이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하는지 분석해 보았다. 동시에 영화, 드라마, 대중가요 등 남한에서 제작되어 북한 내로 유입된 대중문화가 북한주민 의식 변화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에 관한 다양한 사례도 수집, 분석하였다.

북한주민 의식 변화는 1990년대 중반 경제난과 시장화 과정에서의 북한 내부의 대응 과정에 의해 촉발되었을 뿐 아니라 남북관계 변화 등 외부요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목격되었다. 경제협력을 통한 북한의 생존과 자립, 외부와의 교류 및 타문화의 접촉, 북한 내 지식과 정보 유입 등 다양한 층위에서 한국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여기에는 한국 정부의 대북한 전략과 정책이 중요한 환경을 조성했다고 할 수 있다.

이질적인 경험을 통해 새로운 의식이 형성되고 이러한 경험의 반복이 의식의 전환으로 이어진다고 할 때 1990년대 중반 이후 20여년간 남북교류의 역사는 북한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유의미한 계기를 제공했다. 남북교류가 지속되던 시기뿐만 아니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던 시기의 경험 역시 중요하다.

특히 남북한 교류사업 중에서도 개성공단을 포함한 경제협력사업과 사회문화교류, 인도적 대북지원의 경우 사업담당자 및 북한주민들과의 다양한 접촉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사업에 참여하거나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북한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북한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窓)은 공식적 교류협력의 공간 내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 대 정부, 민간 대 민간의 사업 상대방 사이에서 제도화한 접촉, 협의, 교류 등 공식성의 이면과 틈새에서 관찰되는 비공식적 상호작용이 북한주민들의 의식과 무의식을 수면 위로 드러내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말하자면 기록되지 않은 역사의 한켠에서 북한주민 의식 변화 양상을 소급하여 보여주는 지표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비공식성이 강화된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 비합법성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북중 접경지역을 통해 북한 내에 유입된 남한의 드라마와 영화 등 문화콘텐츠는 이러한 비합법성의 영역에 존재하며 당국의 검열과 길항관계에 놓이기도 하고 때로는 공모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든 남한에서 제작된 미디어의 유입이 북한주민 의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시공간을 뛰어넘는 전파력을 바탕으로 교류협력사업의 영향을 능가한다.

미디어를 통한 외부정보의 유입이 공식적 교류협력사업의 효과보다 북한주민 의식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남북교류가 활성화와 경색, 중단과 재개라는 분절적 경험을 반복한 데 비해 미디어를 통한 외부정보의 유입은 1980년대부터 꾸준히 이어져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미디어를 통한 외부정보 유입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남한의 영상물, 즉 드라마와 영화 등은 북한주민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생활상과 인물들을 간접경험하게 해

중으로써 극도의 통제사회 속에서 감추어진 내면의 감수성을 자극하고 일종의 대리만족 기능을 가져다주기도 한다.

과거 북한 당국은 남북경협과 인도적 지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은 극대화하면서도 경협과 지원사업의 복측 참여자들이 남한과의 접촉 과정에서 받게 되는 사회문화적 영향은 최소화하려는 관리 방식을 유지해왔다. 이러한 사실도 교류협력의 경험이 주민 의식 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북한 당국은 남북교류 단계에서 북한 내 담당기구의 분야별 업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한 측 대북지원 단체나 교류협력 관계자들은 북한 당국이 정해놓은 분야별 상대방 내에서만 접촉의 경험을 이어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제3국 인도지원 단체들이 장기간에 걸쳐 벌이고 있는 북한 내 의료지원사업과 같은 경우 주기적으로 복측 카운터 파트가 바뀌는 경우도 발생한다.

남북 간 합의에 따른 공식적 차원의 교류협력사업이 이러한 제약 요인 속에서 진행되는 반면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유입되어 통용되는 외부정보의 영향력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즉, 남한 측 정보를 단속하는 북한 당국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당 간부나 군 고위층 등 북한사회의 최고 엘리트 그룹 구성원들조차도 남한드라마나 영화의 수요자 집단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IV장과 V장에서는 교류협력사업에 참여했던 남한 측 관계자와 탈북민들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남북교류와 외부정보 유입을 통해 변화하는 북한주민 의식의 방향과 추이를 좀 더 상세하게 분석해 보았다. 심층면접 결과에 따르면 정부 및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와 접경지역을 통한 남한 정보 유입을 통해 북한주민들은 무엇보다도 자본주의적 사고와 행동방식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성공단 근로자로 일했거나 장마당에서 장사 경험이 있는 북한주민들은 이윤과 인센티브 시스템을 체험하면서 자본주의 작동 원리를 체득할 수 있었다.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고품질의 제품, 또는 근로자용 간식 등이 시장으로 흘러나와 거래되면서 일반주민들도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를 이해하고 남북경협 효과 등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게 되는 현상도 목격되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하면서 과거에 접하지 못했던 지식과 기술 습득의 기회를 갖게 된 북한주민들은 매우 적극적인 학습의욕을 보였다. 교류협력사업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북한주민은 소수에 불과하고 북한에서 남한의 영상물을 접했던 주민들은 훨씬 광범위하게 퍼져있지만 두 그룹 모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남한을 경험하면서 대남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도 확인되었다.

특히 북한에 유통되었던 남한의 드라마와 영화는 북한주민들의 일상 의식 변화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작품 속 주인공들의 외모와 행동을 모방하거나 차용하게 함으로써 행동의 변화를 자극하기도 했다. USB 등 전자 저장장치를 통해 유통되는 영상물에 비해 현장 검열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남한의 대중가요와 춤 등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더욱 깊이 스며들어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모방과 차용은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과거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감정을 발견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북한주민들은 남북교류와 외부정보 접촉을 통해 일련의 의식 변화를 경험하면서 남측 사업 담당자와의 관계를 재설정하고 평소 의도적으로 통제해왔던 감사와 미안함 같은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외부정보를 통해 남북한의 경제적 현실을 간접경험하면서 북한 당국에 대한 실망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남한으로부터 유입되는 뼈라를 통해 노골적인 월남 권유 등을 접하게 되면 충격과 두려움, 변민

등 복합적인 감정에 휩싸인다.

남북관계의 발전이라는 환경 속에서 유입되는 남한 관련 정보에 북한주민 의식이 변화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적 공간이나 성별, 계층, 세대 등 다양한 하위변수에 따라 의식 변화의 수준과 깊이가 달라지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네 가지 하위변수 중에는 세대나 성별에 따른 변수가 공간이나 계층 구분이라는 변수보다 북한주민 의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세대 간 격차에 따라 남한 정보를 수용하는 태도나 인식 변화의 수준에 차이를 보이는 현상이 두드러지는 사실을 확인했다. 기성세대는 과거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대한 자부심과 향수에 인식의 바탕을 두고 있으나 식량난 이후 출생하고 성장한 세대의 경우 가장 큰 관심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로 집약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남한으로부터의 정보를 해석하는 태도의 차이로도 이어진다. 예를 들어 90년대 식량난 이후 시장에서의 생존 방식을 체험해 온 세대와 이러한 부모를 보면서 성장한 세대는 가정에서 남한영화를 함께 시청할 정도로 외부정보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주기도 한다.

성별 측면에서 보면 남자보다는 여자가 외부정보의 영향에 민감하고 이를 수용하여 자신의 행동양식에 적응시켜 보고자 하는 욕구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직장 및 군대, 소속기관이나 조직이 요구하는 의무 이행 책임을 짊어진 남성보다는 식량난 속에서 시장을 통해 가족의 생존을 지켜야 했던 경험을 가진 여성들이 외부정보에 대한 민감성 측면에서 더욱 두드러진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계층별로 보면 엘리트 계층에서부터 외부정보를 접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북측 사업 상대방 또한 대부분 고학력의 엘리트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이들은 대남 접촉 과정에서의 부적절 행위에 대한 검열과 통제로부터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거주지역에 따른 공간 변수가 미치는 영향 중 두드러지는 특징은 북중 접경지역 주민들과 남북 접경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발견된다. 북중 접경지역 주민들이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상인 등을 통해 남한의 드라마와 영화 등 영상물을 은밀한 방식으로 접하고 있다면 남북 접경지역 주민들은 남한에서 송출되는 TV프로그램이나 빠라 등의 직접적 영향에 노출되어 있다. 남북 간 접촉이 중국 등 제3국에서 이뤄지는 경우 북한 내에서 이뤄지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호혜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기도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분석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1990년대 중반 경제위기 이후 북한주민들의 의식이 변화하게 된 요인은 크게 내부요인과 외부요인, 그리고 이들 두 요인이 중첩된 결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외부 관찰자와 탈북민의 시점을 통해 포착한 외부요인, 그 중에서도 남한 쪽 요인에만 분석의 초점을 맞추었다. 물론 남북관계가 북한주민들의 의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남북관계가 정체되어 있던 시기 상대적으로 북중관계가 더욱 활성화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요인들 중 남한에서 제공되는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이유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급진전을 보이고 있는 남북관계의 발전 방향에 맞춰 유의미한 시사점을 찾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이나 인도적 대북지원의 제공자이자 당사자로서 남측 관계자들과 이러한 사업에 대해 직·간접적인 정보를 가진

수용자로서의 탈북민들이 심층면접 과정에서 동일 사안에 대해서도 관점에 따라 다른 견해를 내놓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예를 들어 남측 관계자들은 대체로 북한주민 의식 변화가 곧바로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증언하는 반면 탈북민들은 구체적 행동의 변화를 강조하는 듯한 경향도 나타났다. 이는 관찰 지점이 어디냐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도 있는 인식의 편향이라고 할 수 있으나 심층면접의 초기 설계 과정에서 좀 더 구조적 접근을 필요로 했던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의 집필 과정에서는 그동안 기록되지 않았던 증언을 남기기 위해 익명성이 보장된 심층면접 결과를 가능한 한 그대로 서술하고자 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북한주민 의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외부요인은 앞으로도 더욱 확대, 강화되어갈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 대북제재의 일부가 완화되거나 해제된다면 남북경협의 전면 재개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개연성이 점쳐진다. 때 맞춰 북한이 경제건설 집중노선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주민들이 일상영역에서 경험하는 국가의 통제가 약화된다면 정치적으로 허용된 공적 선호(public preference)가 국가 통제와 충돌해온 사적 선호(private preference)의 일부를 흡수할 수도 있다.

문화예술, 스포츠 등 사회문화교류 분야에서도 커다란 진전이 예상된다. 예술단 교환방문 등은 이미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친선경기나 단일팀 구성 수준을 넘어 2032년 올림픽 공동개최 추진 등 과거의 협력 수준에 비해 한 차원 높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남북 간 교류는 일상화하고 협력사업은 다변화할 수 있도록 정책의 초점을 맞춰나가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남북관계의 발전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교류

협력사업에 민간의 참여가 높은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젊은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폭도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이뤄지게 되면 과거 남한 측 대표단의 방북 위주 협력사업에서 벗어나 각계각층 인사들의 상호 방문을 통한 쌍방향 교류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작업에 신속하게 착수해야 한다. 북한과의 인적 왕래와 접촉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인식도 개폐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듯이 경제협력을 포함하여 남북한 상호 간 교류와 접촉을 동반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북한 주민들의 대남 인식을 본질적으로 바꿔놓는 데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남북한주민들은 상호 간 적대적 인식을 우호적 인식으로 바꾸어나갈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대북정책의 두 가지 비전은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이다. 두 가지 모두 상호체제 인정과 내정 불간섭, 상호존중의 정신없이 이루기 힘든 목표들이다. 남북한주민들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상호 간의 적대적 인식을 우호적 인식으로 바꾸어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시대를 열기 위한 남북한주민들 상호 간 인식 변화의 목표 설정과 수단 발굴에 본 연구의 결과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강동완·박정란. 『사람과 사람: 김정은 시대 ‘북조선 인민’을 만나다』.  
부산: 너나드리, 2015.
- \_\_\_\_\_. 『한류, 북한을 흔들다』. 서울: 늘품플러스, 2011.
- 고유환·홍민·민유기·안재섭·기계형·남영호·데이비드 크롤리·차문석·  
조정아·박희진. 『사회주의 도시와 북한: 도시사연구방법』.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3.
- 고유환·박희진·임동우·안재섭·홍민·기계형·남영호·이상준. 『함흥  
과 평성: 공간·일상·정치 도시사』.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4.
- 구영록. 『한국과 햇볕정책: 기능주의와 남북한 관계』. 서울: 법문사,  
2000.
- 국가안전보장회의 편. 『평화변영과 국가안보: 참여정부의 안보정책 구상』.  
서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2004.
- 국정홍보처. 『참여정부 국정운영 백서 5: 통일·외교·안보』. 서울: 국정  
홍보처, 2008.
- 김경성. 『불굴의 아리랑』. 파주: 북스타, 2012.
- \_\_\_\_\_. 『포화 속에 핀 평화의 꽃, 벽을 넘어서』. 파주: 북스타, 2016.
- 김경숙 편. 『공산주의 생활윤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0.
- 김국신. 『미국의 대북정책과 북한의 반응』. 서울: 통일연구원, 2001.
- 김수암·김화순·민태은·박주화.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  
인식조사』. 서울: 통일연구원, 2016.
- 김연철. 『70년의 대화』. 파주: 창비, 2018.
- 김연호. 『북한의 휴대전화 이용 실태: 북한의 통신혁명은 시작됐는가』.

Washington D.C.: US-Korea Institute at SAIS and Voice of America, 2014.

- 김정일. 『무용예술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김진향 편. 『개성공단 사람들』. 전북: 내일을여는책, 2015.
- 김찬구. 『아 평양아』. 서울: 비봉출판사, 2005.
- 김찬호. 『모멸감: 굴욕과 존엄의 감정사회학』.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4.
- 라나지트 구하 지음. 김택현 옮김. 『서발턴과 봉기』. 고양: 박종철출판사, 2008.
- 랄프 페브리·앵거스 밴크로프트 지음. 이가람 옮김. 『스무 살의 사회학: 콩트에서 푸코까지, 정말 알고 싶은 사회학 이야기』. 서울: 민음사, 2013.
- 리처드 니스벳 지음. 최인철 옮김. 『생각의 지도: 동양과 서양, 세상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 파주: 김영사, 2004.
- 박명규·김병로·김수암·송영훈·양운철. 『노스 코리안 디아스포라: 북한주민의 해외탈북이주와 정착실태』.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1.
- 박순성·홍민 공편. 『북한의 일상생활세계』. 파주: 한울, 2010.
- 박영자. 『북한녀자: 탄생과 굴절의 70년사』. 서울: 엘피, 2017.
- 박종철·이상신·현인애·송영훈·정한울. 『남북한 주민의 통일국가정체성 인식조사』. 서울: 통일연구원, 2016.
- 박종철·전현준·최진옥·홍우택.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추진환경과 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09.
- 박종철·허문영·김보근. 『남북연합 형성 운영의 거버넌스』. 서울: 통일연구원, 2008.
- 박천조. 『개성공단 노사관계』. 서울: 선인, 2018.
- 박형중.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변화』. 서울: 해남, 2004.
- 백옥련 외. 『사회주의생활문화사연구』. 제2판.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0.

- 사회과학출판사 편. 『인간개조리론』. 주체사상총서 제6권.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편. 『북한주민 통일의식 2017』.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8.
- 서재진. 『남북 상생·공영을 위한 비핵·개방·3000 정책의 이론적 체계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8.
- \_\_\_\_\_. 『또 하나의 북한사회: 사회구조와 사회의식의 이중성 연구』. 서울: 나남출판, 1995.
- 손장권·이성식·전신현. 『미드의 사회심리학: 이론적 발전과 적용』. 서울: 일신사, 1994.
- 스티브 핑커 지음. 김한영 옮김. 『언어본능 하』. 서울: 그린비, 1998.
- 신종호·김석진·성기영·김상기·안희창·홍순직·김영희·전재성·정은미. 『전환기 남북관계 영향 요인 및 향후 정책 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16.
- 안찬일·조명철·장해성·이영훈·장진성·김동수·김성민·김홍광·임윤미. 『(10명의 북한 출신 엘리트들이 보는) 10년 후의 북한』. 서울: 인간사랑, 2006.
- 양문수 편. 『김정은시대의 경제와 사회: 국가와 시장의 새로운 관계』.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4.
- 여인곤·박종철·조민·함택영·조명철·이금순·장의관·강동완.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총괄보고서)』. 서울: 통일연구원, 2009.
- 오기현. 『그해 여름, 그들은 왜 조용필을 불렀나』. 서울: 미래를소유한 사람들, 2009.
- \_\_\_\_\_. 『남북 문화교류의 창, 평양 걸그룹 모란봉 악단』. 서울: 지식공감, 2014.
- 윤인주. 『북한의 사유화 현상: 시장화를 통한 사적 부문의 확산』. 파주:

- 한국학술정보, 2015.
- 이교덕·임순희·조정아·이기동·이영훈.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7.
- 이규창·유현정·윤민우·이근우·최순미. 『전환기 국가의 경제범죄 분석과 북한에의 시사점』. 서울: 통일연구원, 2015.
- 이금순. 『대북인도적 지원의 영향력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3.
- \_\_\_\_\_.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이승환·전영선·김종수·조영주·홍민·박지용·이현희·권지연. 『민간 교류 경험을 통해서 본 남북관계 발전 전략: 남북교류·협력 발전을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부, 2017.
- 이우영·손기웅·임순희.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한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1.
- 이재열·조동기·김경일·은기수·박영은·최종철. 『사회의식에 관한 사회 조사 연구』.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
- 임동원. 『피스메이커』. 서울: 중앙북스, 2008.
- 임순희·이교덕. 『최근 북한주민의 의식변화와 북한체제의 불안정성: 화폐개혁 이후를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11.
- 장용석·정은미·박명규·김경민. 『북한사회변동 2015』.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6.
- 장용석·정은미·정근식·김경민. 『북한사회변동 2016』.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7.
- 전영선. 『북한에서 여자로 산다는 것』. 서울: 경진출판사, 2017.
- 전현준. 『북한의 사회통제기구 고찰』. 서울: 통일연구원, 2003.
- 정근식·김병로·장용석·정동준·최규빈·김병조·송영훈·황정미·황창현. 『2016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7.

- 정근식·조성은·천자현·황정미·조용신. 『북한사회변동 2017』.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8.
- 정동준·정근식·조동준·천경효·문인철·이정옥. 『북한주민 통일의식 2017』.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8.
- 조정아·임순희·노귀남·이희영·홍민·양계민.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서울: 통일연구원, 2010.
- 조정아·최은영. 『평양과 해산, 두 도시 이야기: 북한 주민의 삶의 공간』. 서울: 통일연구원, 2017.
- 조지 미드 지음. 나은영 옮김. 『정신·자아·사회: 사회적 행동주의자가 분석하는 개인과 사회』. 파주: 한길사, 2010.
- 주디스 리치 해리스 지음. 팍미경 옮김. 『개성의 탄생: 왜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유일한 나인가』. 서울: 동녘 사이언스, 2006.
- 최대석·장인숙 공편. 『북한의 시장화와 정치사회 균열』. 서울: 선인, 2015.
- 최진욱·김수암·박영호·박재적·박종철·박형중·손기웅·이금순·임강택·조민·조정아·조한범·한동호.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13.
- 태영호. 『3층 서기실의 암호』. 서울: 기파랑, 2018.
- 통계청. 『2017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서울: 통계청, 2017.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8 통일문제 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8.
- \_\_\_\_\_. 『2018 북한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8.
- 통일부. 『2000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00.
- \_\_\_\_\_. 『2005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05.
- \_\_\_\_\_. 『2009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09.
- \_\_\_\_\_. 『2010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10.
- \_\_\_\_\_. 『2014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14.

- \_\_\_\_\_. 『국민의 정부 5년: 평화와 협력의 실천』. 서울: 통일부, 2003.
- \_\_\_\_\_. 『남북대화 제68호』. 서울: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2002.
- 한상복·이문옥·김광억. 『문화인류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 허문영·오일환·정지웅. 『평화변영정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서울: 통일연구원, 2007.
- 홍우택·박영호·이상득. 『북한주민 인권의식 고취를 위한 인권외교의 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09.

Hirschman, Albert. *Exit, Voice and Loyalty: Responses to Decline in Firms, Organization, and State*. Cambridge: Harvard UP, 1970.

Mezirow, Jack. *Transformative Dimensions of Adult Learning*. San Francisco: Jossey-Bass, 1991.

## 2. 논문

- 강동완. “북한으로의 외래문화 유입 현황과 실태: 제3국에서의 북한주민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제60집, 2014.
- \_\_\_\_\_. “북한의 한류현상과 사회변화.” 『北韓』. 제512호, 2014.
- 강동완·김현정. “북한 군대 내 남한 영상물 시청 실태 및 북한 정권의 대응.” 『통일과평화』. 제7집 1호, 2015.
- 강동완·박정란. “남한 영상매체의 북한 유통경로와 영향: 지역간·대인간 연결 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19권 2호, 2010.
- 구수미·이미경. “체제변혁 시기 북한 도시 여성의 지위 변화 전망.” 최완규 편. 『북한 ‘도시정치’의 발전과 체제 변화』.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7.

- 김남식. “북한의 공산화과정과 계급노선.” 공산권연구실 편. 『북한 공산화 과정연구』.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1972.
- 김대중. “국난극복과 재도약의 새 시대를 엮시다.” 『김대중 대통령 연설문집 제1권』. 서울: 대통령비서실, 1999.
- 김부용·임민경. “중국의 동북진흥전략 10년 평가와 전망.” 『중국 성(省)별 동향 브리핑』. 제4권 7호, 2013.
- 김연철. “한반도 평화체제와 경제협력: 쟁점과 과제.” 『역사비평』. 제81권, 2007.
- 김정수. “인도적 대북지원과 북한체제의 존속력에 미친 영향.” 『통일정책연구』. 제19권 1호, 2009.
- 김정일.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 1996년 1월 14일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과 한 담화.” 『김정일 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 \_\_\_\_\_.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는 철저히 보장 되어야 한다.” 김경숙 편. 『공산주의 생활윤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0.
- \_\_\_\_\_. “주체사상에 대하여.” 서대숙 편. 『북한문헌연구』.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4.
- 김학노. “평화통합전략으로서의 햇볕정책.” 『한국정치학회보』. 제39권 5호, 2005.
- 김흥규. “전략적 경쟁에서 전략적 협력으로: 미중관계 변화와 한국에의 함의.” 『중소연구』. 제33집 3호, 2009.
- 남성욱. “북한의 식량난과 인구변화 추이, 1961-1998.” 『현대북한연구』. 제2권 1호, 1999.
- 노무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50차 상임위원회 연설.” 『노무현 대통령 연설문집 제4권』. 서울: 대통령비서실, 2007.
- 문경연·이우영·정소민. “대북지원 20년(1995-2015):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성격과 과제.” 『국제관계연구』. 제22권 1호, 2017.

- 박영자. “체제 변동기 북한의 계층·세대·지역 균열.” 최대석·장인숙 공편. 『북한의 시장화와 정치사회 균열』. 서울: 선인, 2015.
- 박재규 편. “7.1 경제관리개선조치 관련 북한 내부자료.” 『새로운 북한 읽기를 위하여』. 서울: 법문사, 2009.
- 박희진. “함흥 도시 공간의 지배 구조와 탈주체의 삶.” 북한도시사연구팀 편. 『함흥과 평성, 공간·일상·정치의 도시사』.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4.
- 안드레이 란코프. “개성공단 사업의 정치·경제적 효과와 중요성.” 『통일경제』. 겨울호, 2008.
- 양문수. “1990년대 경제위기와 지방경제 운영체계의 변화.” 최완규 편.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 1990년대 청진, 신의주, 혜산』.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6.
- \_\_\_\_\_. “한반도 평화 회복을 위한 국가전략 - 개성공단 사업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19권 2호, 2013.
- 양문수·이우영·윤철기. “개성공단에서의 남북한 접촉이 북한 근로자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남한 주민에 대한 북한 근로자의 태도 변화를 중심으로.” 『통일연구』. 제17권 2호, 2013.
- 오양렬. “북한 내 외래문화 유입으로 인한 영향과 전망.” 『플랫폼』. 제3권, 2011.
- 오유석·이주철. “도시 주민의 행위 양식과 사회적 의식 변화.” 최완규 편. 『북한 ‘도시정치’의 발전과 체제 변화』.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7.
- 우승지. “김정일 시대 북한의 국제관계론 이해를 위한 시론.” 『국제정치논총』. 제47권 4호, 2007.
- 우승지. “김정일-후진타오 시대 북중관계에 대한 고찰.”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6.12.
- 우승지. “남북관계 연구: 검토와 과제.” 『국제정치논총』. 제46집 1호, 2007.
- 이경란. “북한 유치원 교육과정의 성격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교육

- 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 이미경·구수미. “경제위기 이후 북한 도시 여성의 삶과 의식.” 최완규 편.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 1990년대 청진, 신의주, 혜산』. 파주: 한올아카데미, 2006.
- 이석기. “북한의 1990년대 경제위기와 기업 행태의 변화: 생존추구형 내부자 통제와 퇴행적 시장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3.
- 이승렬. “금강산 관광사업의 정치군사적 평가와 과제.” 『금강산 관광사업과 남북교류의 새로운 모색』. 강원일보·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주최 국제 학술 심포지엄, 2017.11.21.
- 이우영. “김정은 체제 북한 사회의 과제와 변화 전망.”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2012.
- 이해정. “금강산관광 사업의 추진 과정과 향후과제.” 『금강산 관광사업과 남북교류의 새로운 모색』. 강원일보·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주최 국제 학술 심포지엄, 2017.11.21.
- 임석준·강동완·김현정. “북한의 한류 연구.” 『북한학연구』. 제10권 2호, 2014.
- 임석훈. “민간단체 풍선날리기와 분단 번역의 정치.” 『북한학연구』. 제9권 2호, 2013.
- 임을출. “2000-10년 한국의 인도적 대북지원의 현황과 평가.” 『북한경제리뷰』. 제2월호, 2011.
- 장세훈. “북한 도시 주민의 사회적 관계망 변화.” 최완규 편.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 1990년대 청진, 신의주, 혜산』. 파주: 한올아카데미, 2006.
- 장인숙. “국제환경 변화와 남북관계에 대한 영향.” 신중호 외 공편. 『전환기 남북관계 영향 요인 및 향후 정책 방향』. 서울: 통일

- 연구원, 2006.
- 장인숙·최대석. “김정은 시대 정치사회 변화와 북한주민 의식: 탈북민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북한학연구』. 제10권 1호, 2014.
- 전재성. “관여(engagement)정책의 국제정치이론적 기반과 한국의 대북 정책.” 『국제정치논총』. 제43권 1호, 2003.
- \_\_\_\_\_. “국제환경 변화와 남북관계에 대한 영향.” 신중호 외. 『전환기 남북관계 영향 요인 및 향후 정책 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06.
- \_\_\_\_\_. “분단 70년의 국제환경, 대내구조, 남북 관계의 조명.” 『통일정책연구』. 제24권 1호, 2015.
- 정영섭. “물질적 자극과 그 적용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경제연구』. 제127권 2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5.
- 정우근·이주철. “북한 주민생활보장제도와 도시 계층구조 재편.” 최완규 편.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 1990년대 청진, 신의주, 혜산』.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6.
- 정은미.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정체성 인식과 행동 양식 메커니즘.” 『북한연구학회보』. 제18권 2호, 2014.
- 정은미. “북한주민의 의식주 생활과 사회변동.” 『아세아연구』. 제57권 4호, 2014.
- 정은미. “북한 중간계층의 결정요인과 특성 북한이탈주민의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제7권 2호, 2015.
- 정일영. “공장관리체제를 통해 본 북한사회의 변화: 당비서-지배인-노동자 삼각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통일연구』. 제17권 1호, 2013.
- 정일영. “한국전쟁기 북한의 사회통제체제에 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19권 2호, 2015.
- 조 민. “평화경제론: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이론적 틀.”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 최대석·박희진. “비사회주의적 행위유형으로 본 북한사회 변화.” 『통일 문제연구』. 제23권 2호, 2011.
- 최봉대·구갑우. “북한의 도시 ‘장마당’ 활성화의 동학.” 최완규 편.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 1990년대 청진, 신의주, 혜산』.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6.
- 최용환.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쟁점과 과제.” 『북한토지주택리뷰』. 제2권 1호, 2018.
- 한승주. “북한의 대미관계.” 유세희·이정식 공편. 『전환기의 북한』.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1.
- 허문영. “북한의 대외정책 현황과 전망.” 민족통일연구원 엮음.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홍 민. “북한의 아파트 건설 역사와 도시 정치: 통치와 욕망의 공간적 변주.” 북한도시사연구팀 편. 『함흥과 평성: 공간·일상·정치의 도시사』.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4.
- 홍상영. “북한 지역개발협력사업의 과제와 방향: 당곡리 협동농장 현대화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북한토지주택리뷰』. 제2권 1호, 2018.
- 황수환.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참여형 남북교류협력 추진 방향.” 『새로운 한반도 평화·협력의 시대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3차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 2018.
- 황 철.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에서 생활비등급제의 지위와 그의 역할.” 『경제연구』. 제88권 3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5.
- Mezirow, Jack. “Learning to think like an adult: Core concepts of transformation theory.” In *Learning as Transformation: Critical Perspectives on a Theory in Progress*. Edited by Jack Mezirow. San Francisco: Jossey-Bass, 2000.
- Park, Geun-hye. “A New Kind of Korea: Building Trust Between

Seoul and Pyongyang.” *Foreign Affairs*, vol. 90, no. 5.  
September/October, 2011.

Sheldon, Stryker. “Symbolic Interactionism: Themes and Variations.”  
In *Social Psychology: Sociological perspective*. Edited by  
Moriss Rosenberg and Ralph H. Turner. New York:  
Transaction Publishers, 1990.

The White House.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Engagement  
and Enlargement.” February, 1996.

Haass, Richard N. and O’Sullivan L. Meghan. “Terms of Engagement:  
Alternatives to Punitive Policies.” *Survival*, vol. 42, no. 2.  
Summer, 2000.

### 3. 기타자료

『국민일보』.

『로동신문』.

『연합뉴스』.

『중앙방송』.

『중앙일보』.

『한겨레』.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nkinfo.unikorea.go.kr>.

통일부 주요사업통계. <[http://unikorea.go.kr/unikorea/business/  
statistics](http://unikorea.go.kr/unikorea/business/statistics)>.

플래툰 <[platum.kr/archives/102998](http://platum.kr/archives/102998)>.

ICT Statistics <[www.itu.int/en/ITU-D/Statistics/Pages/stat/default.  
aspx](http://www.itu.int/en/ITU-D/Statistics/Pages/stat/default.aspx)>.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북한 「사회주의로동법」.

북한 「형법」.

개성공단 사례 인터뷰.

교류협력 사례 인터뷰.

대북민간방송대표 K 인터뷰.

대북지원 사례 인터뷰.

탈북민 사례 인터뷰.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김흥규.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과 전략적 미·중관계의 형성.”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09.2.16. <<http://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편. 『2017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변화, “병진노선”의 두 얼굴』. 학술토론자료집, 2017.

정성장. “북한의 경제-핵 병진노선 폐기 배경과 비핵화에 대한 입장 평가.”

『세종논평』. no. 2018-22. 2018.4.23. <[http://www.sejong.org/boad/bd\\_news/1/egofiledn.php?conf\\_seq=1&bd\\_seq=4](http://www.sejong.org/boad/bd_news/1/egofiledn.php?conf_seq=1&bd_seq=4)>.

통일부. “참여정부의 평화변영정책.” 통일부 통일정책실, 2003.12.

통일부. “대북정책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2주년 대북 정책 설명자료.” 2010.2.

\_\_\_\_\_.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은 이렇게 합니다.” 『대북정책 설명자료』. 2008.8.22.

박근혜 대통령 미 의회연설 (2013.5.8., Washington D.C.).

“시장운영에 대한 내각지시.” 북한 내각지시 제24호. 2003.5.5.

UN doc. A/HRC/34/66. February 22, 2017.

UN doc. A/HRC/25/CRP.1. February 7, 2014.

UN doc. A/67/370. September 13, 2012.

#### 4. 방송 자료

김진만·최병길 연출. <에덴의 동쪽>. MBC 드라마. 2008.8.26.~2009.3.10.

신우철·손정현 연출. <파리의 연인>. MBC 드라마. 2008.8.26.~2009.3.10.

신윤섭 연출. <내 사랑 못난이>. SBS 드라마. 2006.8.11.~2006.10.13.

윤철용 연출. <올인>. SBS 드라마. 2003.1.15.~2004.4.3.

최이섭 연출. <귀여운 여인>. MBC 드라마. 2003.11.10.~2004.6.4.

홍성덕 연출. <진달래꽃 필 때까지>. KBS 드라마. 1998.1.5.~1998.1.26.

이진민 CP. <이제 만나러 갑니다>. 채널A. 2011.12.4.~방영 중.

<정적의 땅, 북한>. History Channel. 2003.

김정권 감독. <동감>. 2000.

백지영. <Sensibility>. 서울: (주)카카오M, 2008.

송대관. <송대관>. 서울: 오아시스레코드사, 1990.

싸 이. <6집 싸이6甲 part 1>. 서울: YG PLUS, 2012.

안재욱. <Reds In Anjaewook 4>. 서울: 한국음반산업협회, 2003.

이선희. <1집 아! 옛날이여/소녀의 기도/갈등/나는 사랑에 빠졌어요>.

서울: 지구레코드, 1985.

이자연. <찰랑찰랑, 서울에서>. 서울: Sewon Recording Co., Ltd,

1995.

- 전영록. 〈'83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서울: 지구레코드, 1983.
- 조용필. 〈창밖의 여자〉. 서울: 지구레코드, 1979.
- 주현미. 〈13집 92 주현미 - 너를사랑해〉. 서울: 한국음반산업협회, 1992.
- 젝스키스. 〈Blue Note〉. 서울: 로엔엔터테인먼트, 2000.
- 최진희. 〈2집/솔로 1집 사랑의 미로/물보라〉. 서울: 한국음반, 1984.
- 핑클. 〈2.5집 Special〉. 서울: 로엔엔터테인먼트, 1999.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KINU 통일포럼 시리즈

2016-01	제12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와 대북정책방향	통일연구원
2016-02	제13차 KINU 통일포럼: 북한 제7차 당대회 분야별 평가 및 향후 전망	통일연구원
2016-03	제14차 KINU 통일포럼: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한국의 북한인권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 통일나침반

2016-01	효율적 대북제재: 데이터 분석과 합의	이 석
2016-02	2016년 북한 신년사 분석	김갑식 외
2016-03	4차 북핵실험 이후 대북정책	통일연구원 현안대책팀
2016-04	4차 북핵실험 이후 정세 전개와 향후 전망	통일연구원 현안대책팀
2016-05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반도 정세 및 대응 방안	통일연구원 북핵대응 T/F팀
2016-06	4차 북핵실험 이후 미중관계와 대북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대외협력팀
2017-01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관련 주요 발언	통일연구원
2017-02	2017년 북한 신년사 분석	홍 민 외

## KINU Insight

2017-01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주요 활동 분석	홍 민
2017-02	중국의 19차 당 대회 평가와 정책적 고려사항	전병근
2017-03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 평가 및 권력구조 전망	박영자
2018-01	2018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홍 민 외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6	도경옥 외 18,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6	도경옥 외 22,500원
북한인권백서 2017	도경옥 외 2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7	도경옥 외 24,500원
북한인권백서 2018	한동호 외 2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8	도경옥 외 24,000원

## 연구보고서

### 2016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2016-01	북한 핵 개발 고도화의 파급영향과 대응방향	정성윤 외	14,000원
2016-02	일본 아베정권의 대외전략과 대북전략	이기태, 김두승	6,500원
2016-04	과학기술발전과 북한의 새로운 위협: 사이버 위협과 무인기 침투	장구연, 이기태	6,000원
2016-05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및 통일담론: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분석	오경섭, 이경화	8,000원
2016-06	남북통일과 국가재산·채무·양허권의 승계	이규창	8,000원
2016-0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주화 외	12,000원
2016-08	대북정책전략 수단 효용성 분석: 이란의 경험과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홍우택 외	7,000원
2016-09	북한 민생경제 진흥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김석진, 홍제환	8,000원
2016-10	북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지배구조	박영자 외	13,000원
2016-11	북한에서 사적경제활동이 공식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조한범 외	9,500원
2016-12	북한인권 제도 및 실태 변화추이 연구	임예준 외	8,500원
2016-13	최근 중동사태에 비추어본 북한 체제지속성 연구	김진하 외	7,000원
2016-14	「그린데탕트」 실천전략: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사업을 중심으로	조한범 외	7,000원
2016-15	Pathways to a Peaceful Korean Peninsula: Denuclearizatio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도경욱 외	14,000원
2016-16	한중수교이후 북중관계의 발전: 추세분석과 평가	이기현 외	8,000원
2016-17	국내적 통일준비 역량 강화방안	김수암 외	8,500원
2016-18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탈북민 인식조사	김수암 외	15,000원
2016-19	전환기 남북관계 영향 요인 및 향후 정책 방향	신종호 외	16,500원
2016-20	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과 과제: 로마규정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를 중심으로	이규창 외	12,000원
2016-21	2016년 통일예측시계	홍우택 외	7,000원
2016-22	남북한 주민의 통일국가정체성 인식조사	박종철 외	19,000원
2016-23	구술로 본 통일정책사	홍민 외	12,000원
2016-24	북한 전국 시장 정보	홍민 외	13,000원
2016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와 한국의 정책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7,500원
2016	북한의 제4차, 5차 핵실험 이후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통일전략 모색과 통일공감대 확산 방안	홍석훈 외	9,500원

〈정책연구시리즈〉

2016-01	미국 대선 주요 후보의 Think-Tank 및 의회 네트워크 분석	정구연, 민태은
2016-02	대북제재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	신종호 외
2016-03	개성공단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개성공단 운영 11년(2005~2015)의 교훈	임강택, 이강우
2016-04	북한 해외노동자 실태 연구	이상신, 오경섭, 임예준

〈Study Series〉

2016-01	Identifying Driving Forces for Changes and Policy Challenges on the Korean Peninsula(2015-2030)	Park, Hyeong Jung et al.
2016-02	China's Neighborhood Diplomacy and Policies on North Korea: Cases and Application	Lee, Ki-Hyun et al.
2016-03	The Costs and Benefits of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Areas	Cho, Han-Bum et al.
2016-04	Development of Unification Diplomacy Contents	Kim, Jin-Ha
2016-05	South and North Korean Integration and North Korea's Adaptability: From the Perceptive Point of View	Kim, Soo-Am et al.

2017년도 연구보고서

〈연구총서〉

2017-01	북한인권 피해구제 방안과 과제 - 인도에 반한 죄를 중심으로 -	이규창 외 11,500원
2017-03	2017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주화 외 12,000원
2017-04	통일 이후 통합방안: 민족주의와 편익을 넘어서는 통일담론의 모색	이상신 외 8,500원
2017-05	대북·통일정책 관련 주요 쟁점과 정책추진방향	민태은 외 9,500원
2017-06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복지, 그리고 시민권에 대한 인식	민태은 외 13,000원
2017-07	전환기 남북관계 발전 추진 방안	조한범 외 7,500원
2017-08	한반도 평화로드맵 실천전략	홍민 외 7,000원
2017-09	북한 주민들의 복지와 시장화	임강택 8,000원
2017-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과 대북정책	정성윤 외 8,000원
2017-11	평양과 해산, 두 도시 이야기: 북한 주민의 삶의 공간	조영아, 최은영 9,500원
2017-12	북중관계 주요분야별 현황 분석	임강택 외 12,000원
2017-13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동아시아 전략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김상기 외 11,000원
2017-14	동맹의 진화와 글로벌 파트너십	정구연 외 7,000원
2017-15	북한인권 정책환경 분석	한동호 외 7,500원
2017-16	북한 재난협력 방안과 과제	임예준, 이규창 9,000원
2017-17	김정은 시대 조선노동당의 조직과 기능: 정권 안정화 전략을 중심으로	박영자 13,000원
2017-18	김정은 정권 5년의 북한경제: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홍제환 7,500원

2017-19	김정은 정권의 통치 테크놀로지와 문화정치	홍민	6,000원
2017-20	김정은 정권의 핵전략과 대외·대남 전략	정성윤	6,500원
2017-21-01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관계와 한반도에의 함의(1부)	전병곤 외	9,500원
2017-21-02	뉴노멀 시대 미중 전략 경쟁관계와 한반도에의 함의(2부)	전병곤 외	9,500원
2017-22-01	주변국 국경안보: 이론과 실제	현승수 외	10,000원
2017-22-02	주변국 국경안보: 사례와 검증	현승수 외	9,500원
2017	사회권의 관점에서 본 북한인권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13,500원

### 〈정책연구시리즈〉

2017-01	지속가능한 통일·대북정책: 환경 분석과 추진방향	이규창 외	
2017-02	통일국민협약 추진방안	조한범, 이우태	
2017-03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서독정부의 대동독정책 연구	이상신 외	
2017-04	대북제재 국면에서 남북교류협력 추진 방안	임강택, 홍제환	
2017-0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이규창 외	

### 〈Study Series〉

2017-01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Nuclear Advancement and Response Measures	Chung, Sung-Yoon et al.	
2017-02	Study on Changing Trend of Human Rights Institution and Situation in North Korea	Rim, Ye Joon et al.	
2017-03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North Korea's Asymmetric Threat: Rise of Cyber Warfare and Unmanned Aerial Vehicle	Chung, Kuyoun · Lee, Kitae	
2017-04	Study on North Korean Defectors' Perception about Democracy and the Market Economy	Kim, Soo-Am et al.	

## 2018년도 연구보고서

### 〈연구총서〉

2018-01	평화의 심리학: 한국인의 평화인식	박주화 외	19,000원
2018-02	사회문화교류협력 및 인적 접촉 활성화 방안	이규창 외	14,000원
2018-03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주민 의식 변화	성기영 외	10,500원
2018-04	국경협력의 가능성과 미래	이기태 외	9,000원
2018-05	북한과 주변국의 국경안보	이기태 외	8,000원
2018-06	중국 초국경 경제협력 연구: 통일 한반도 국경안보에 대한 시사점	이기태 외	12,000원
2018-07	KINU 통일인식조사 2018: 남북평화 시대의 통일인식	이상신 외	11,000원
2018-08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관계 전략	조한범 외	8,000원
2018-09	북한의 주민 이탈과 법적 대응	박영자 외	11,500원

2018-10	'하나의 시장' 형성을 위한 시장친화적 남북경제협력방식의 모색	임강택 외	9,500원
2018-11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	김진하 외	9,500원
2018-12	북한 민생 실태 및 협력 방안	홍제환 외	9,000원
2018-13	북핵위기와 북미 간 전략환경 인식	이우태 외	11,000원
2018-14	북한의 핵전략 분석	홍우택 외	6,500원
2018-15	제재 국면에서의 주민의 인권	도경옥 외	10,000원
2018-16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 종합연구 (총괄보고서)	김상기 외	5,500원
2018-17	북핵 종합평가와 한반도 비핵화 촉진전략	정성윤 외	21,000원
2018-18	동북아플러스 책임 공동체 형성 방안	이기태 외	12,000원
2018-2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관계	김상기 외	10,000원
2018-21	북한에서 국가-사회관계 양상 연구	한동호 외	14,000원
2018-22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기구와 국가성	박영자 외	13,500원
2018-23	북한 군사경제 비대화의 원인과 실태	오경섭 외	12,000원
2018-24	한반도 평화변영과 남북중 협력방안	정은이 외	9,500원
2018-25	중국 시진핑 2기 지도부 구성과 대외정책 전망	신종호	8,500원
2018-26	2030 미중관계 시나리오와 한반도	신종호 외	12,000원

#### 〈정책연구시리즈〉

2018-01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사회 8대 변화	박영자 외
2018-02	2018년 미국 중간선거 평가와 미국의 향후 대외정책 전망	민태은 외
2018-03	대북 제재 현황과 완화 전망	서보혁 외

#### 〈Study Series〉

2018-01	The Implementation Strategy of the Establishment for Peaceful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Hong, Min·Cho, Han-Bum·Park, Ihn-Hwi
2018-02	2017 Survey of Inter-Korean Integration	Park, Juhwa·Rhee, Minkyu·Cho, Won-Bin
2018-03	North Korean Economy in the Kim Jong-un Regime	Hong, Jea Hwan
2018-04	Peace Regim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 Korean Policy	Chung, Sung-Yoon·Lee, Moo Chul·Lee, Soo-hyung
2018-05	Eight Changes in North Korean Economy and Society under the Kim Jong Un Regime	Park, Young-Ja et al.

#### 연례정세보고서

201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6~2017	통일연구원
2017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7~2018	통일연구원

##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25권 1호 (201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5, No. 1 (201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5권 2호 (201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5, No. 2 (201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6권 1호 (201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6, No. 1 (201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6권 2호 (201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6, No. 2 (201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7권 1호 (201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7, No. 1 (2018)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7권 2호 (201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7, No. 2 (2018)	10,000원

## 기타

2016	북한 내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한동호 외
2016	Torture and Inhumane Treatment in North Korea	Han, Dong-ho et al.
2016	북한 여성·아동 인권 실태	도경옥 외
2016	Human Rights Situation of Women and Children in North Korea	Do, Kyung-ok et al.
2016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북한 노동자	이애리아 외
2017	북한 내 이동의 자유	한동호 외
2017	Freedom of Movement in North Korea	Han, Dong-ho et al.
2017	러시아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의 북한 노동자	이애리아 외
2018	한반도 평화체제 및 비핵화 관련 자료집	박주하, 윤혜령 53,500원
2018	미·중·일·러 한반도 정책 연구 네트워크 다이렉토리	김진하 외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9,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주민 의식 변화

